

南濟州郡 南元邑 下禮里

調查經緯/443

社會背景/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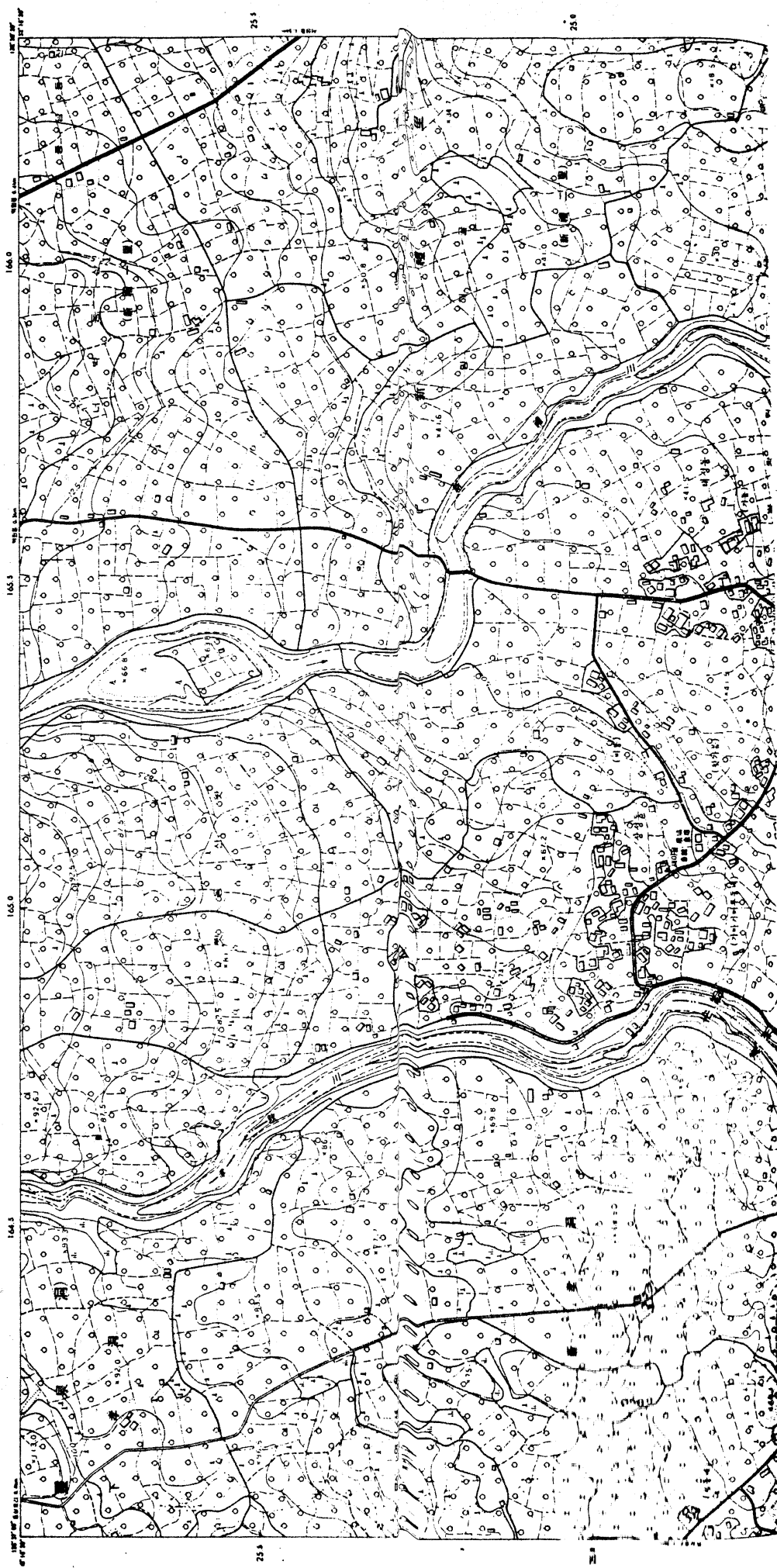
方 言/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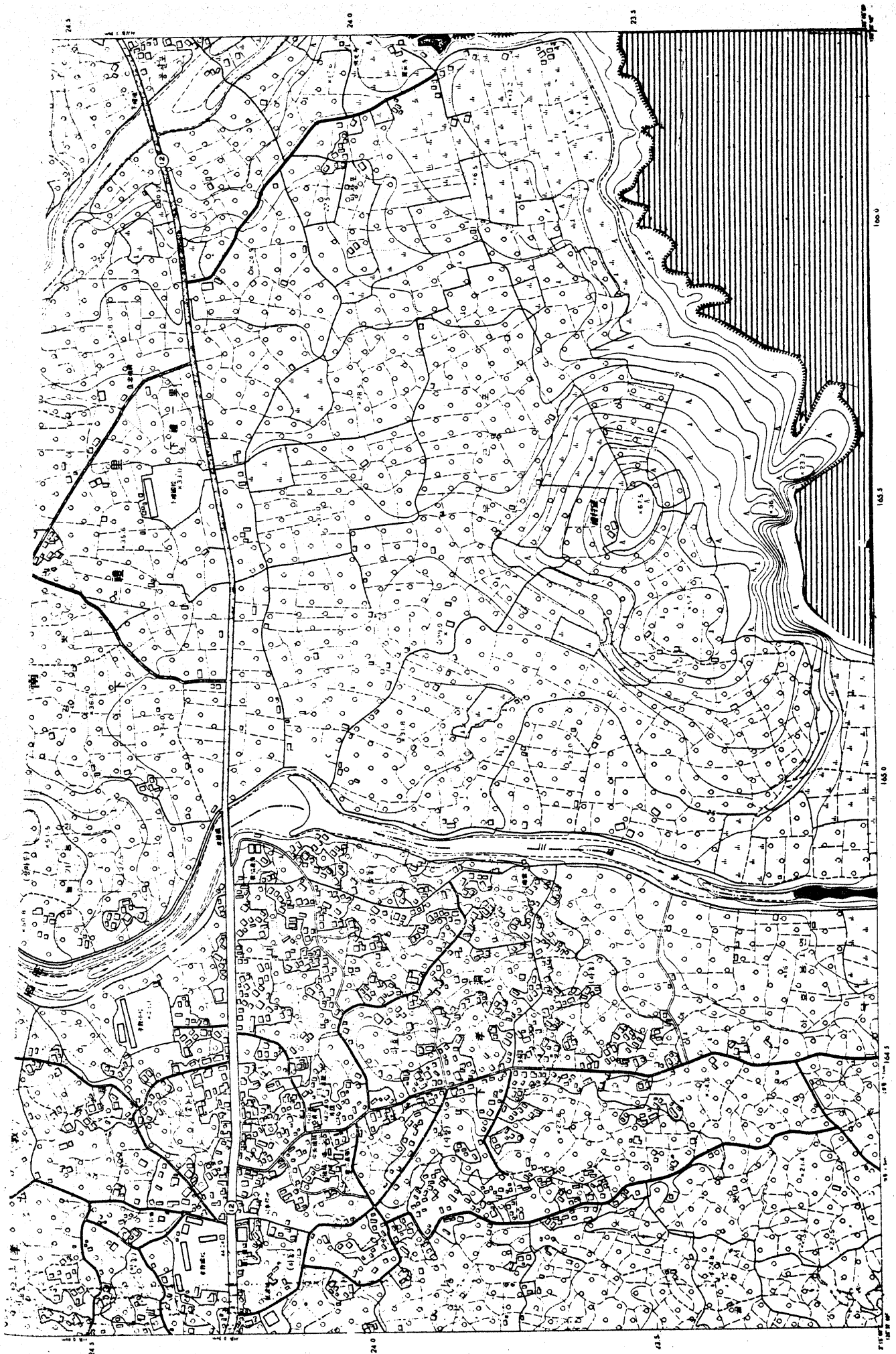
民 謠/478

說 話/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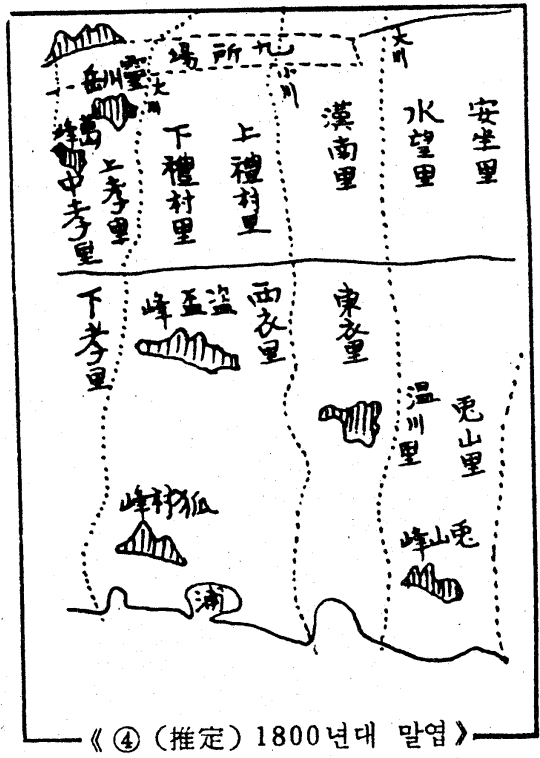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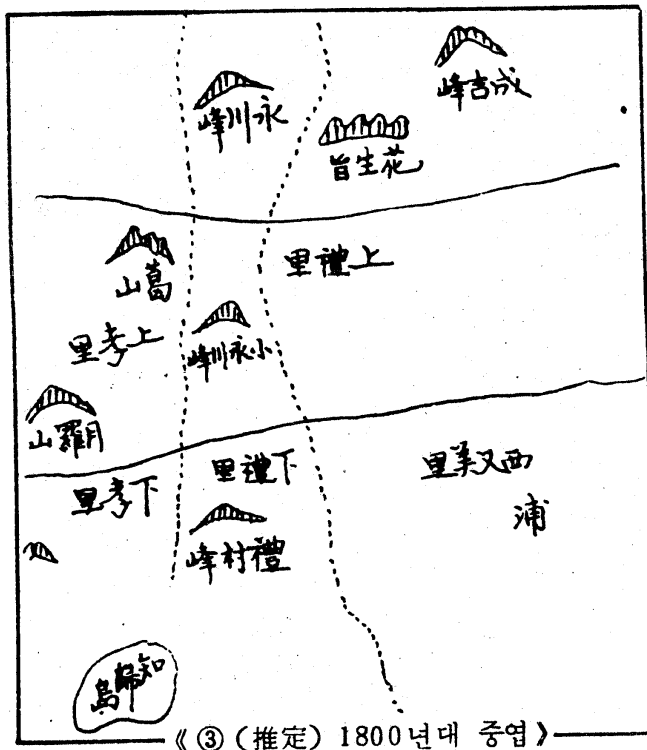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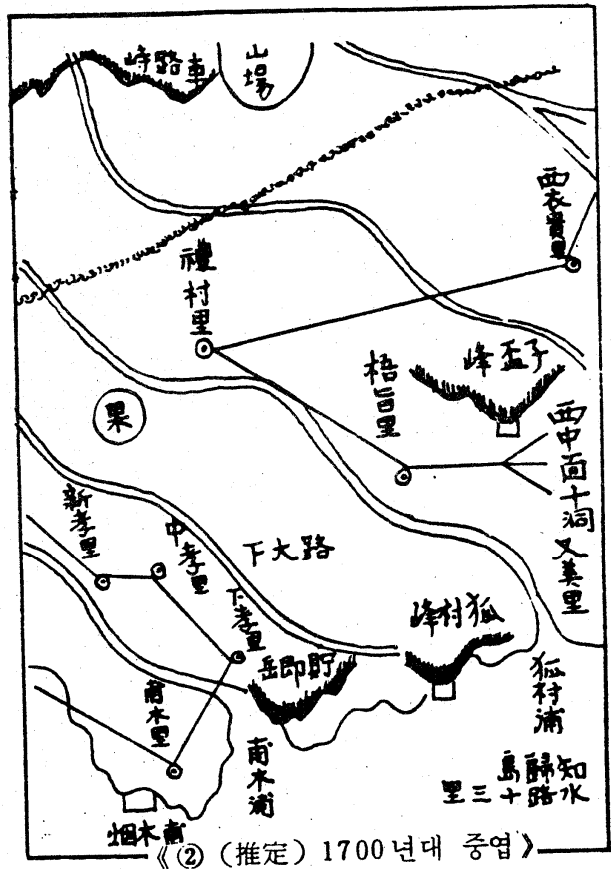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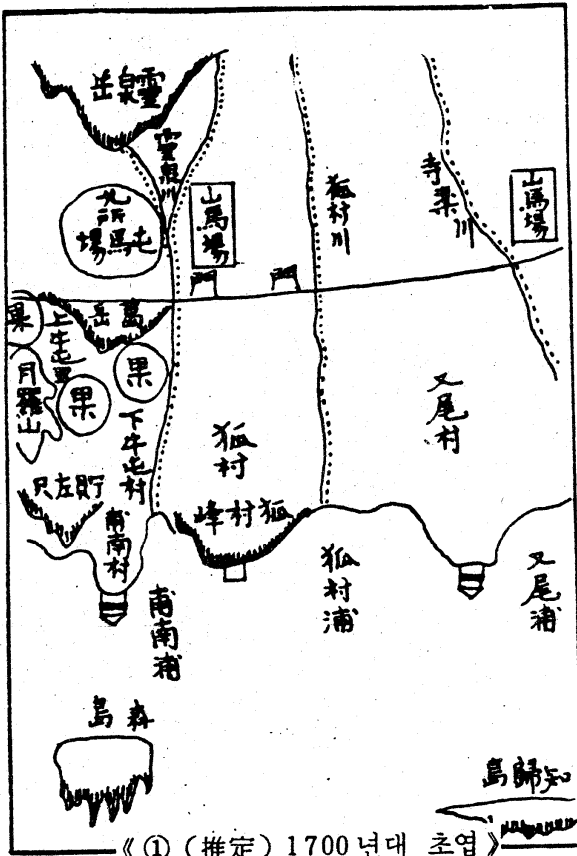
信 仰/537

下禮里全圖





禮村(狐村)古地圖



調查經緯

본 학과에서는 1976년 이후 방학을 이용해 現地學術調查를 실시하고 있다. 현지학술조사의 意義는 첫째,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에 응용해 봄으로써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게 하고, 둘째, 方言·民謠·說話·信仰 등의 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문화를 심층 이해함과 동시에 국어국문학의 시야를 확대하고, 셋째,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사성원들간에 협동심을 고양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본 학과에서 실시한 學術調查地는 ①南濟州郡 城山邑 蘭山里(1976. 8), ②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1977. 7), ③北濟州郡 涯月邑 納邑里(1978. 8), ④南濟州郡 安德面 德修里(1981. 7), ⑤北濟州郡 涯月邑 光令里(1983. 8), ⑥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1984. 8), ⑦南濟州郡 安德面 大坪里(1985. 8), ⑧南濟州郡 城山邑 溫平里(1986. 7) 등이다. 이들의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는 <學術調查報告書>(5집~8집)와 <白鹿語文>(창간호~3·4호)에 수록되어 있다.(p. 224 참조)

제9회 현지학술조사는 1987년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3박 4일동안 南濟州郡 南元邑 下禮里에서 실시하였다.

이 마을을 선정하게 된 배경은 지금까지의 學術調查地域 중에서 제주도의 동남부에 해당되는 南元邑 지역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며, 또 사전답사 때에 그 마을의 특이한 점들에 대한 확인과 古考學的 遺物에 대한 보고에 주목을 하였기 때문이다(제주대학교 박물관 1986 <濟州島遺跡>).

학술조사의 준비단계로 숙식·취사문제의 해결과 마을현황 등의 파악을 위해 3차에 걸쳐 사전답사를 했고, 조사방법론을 정리하여 <現地學術調查方法論：白鹿語文 第5輯 別冊>을 발간하였다. 사전답사의 결과 보고와 학술조사 방법론의 학습은 전체모임과 반별모임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에는 본 國語教育科의 교수님들과 在學生, 그리고 졸업한 선배님들이 참여하였다. 학술조사 지도는 梁重海(社會背景), 玄容駿(信仰), 梁淳秘(民謠), 崔圭一(方言), 金泰棍(說話), 尹錫山(說話), 文聖淑(民謠), 安成洙(信仰) 교수님이 해주셨고 조사반원은 다음과 같다()은 재학학년).

濟州島部落誌(Ⅰ)

社會背景：吳昌桓(4), 吳承龍(3), 吳始烈(3), 李昌祐(3), 金銀姬(3), 金明蘭(1), 康哲秀(1)

方言：吳東植(4), 張勳(3), 金恩希(3), 高政相(2), 夫喜淑(2), 金美伶(1), 吳惠英(1), 韓京惠(1)

民謠：金京玉(4), 元邦弼(4), 李金美(4), 梁泓順(3), 高希仙(3), 安慧林(2), 韓昌勳(1), 玄承春(1)

說話：宋美羅(4), 金景贊(4), 夫慶淑(4), 吳賢淑(3), 吳承姬(3), 韓政錫(2), 任宣香(1), 朴星彥(1)

信仰：姜年熙(4), 李承姬(3), 李京美(3), 高舜子(3), 全恩瑛(2), 高利金(2), 趙淑嬪(2), 李丞娥(1), 吳和眞(1)

正 高光敏(信仰), 金智弘(社會背景), 梁彰修(社會背景), 姜晶植(說話), 李性勳(民謠), 任容震(信仰), 姜洪吉(方言) 선배님도 조사를 도와 주셨다.

3박 4일에 걸친 학술조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일(8월 3일) : 12시에 下禮里에 도착하여 下禮國民學校에 짐을 풀고, 이민회관으로 가서 이장님으로부터 마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후, 반별로 예비 조사를 겸한 조사활동을 폈다.

제2일(8월 4일) : 첫날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반별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펴 나갔다.

제3일(8월 5일) : 지금까지의 결과와 앞으로의 예정을 반장들이 서로 모여 검토한 후 전일과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하였다. 그런 다음 조사내용에 대한 자체 평가회를 가졌다.

제4일(8월 6일) : 조사활동의 마무리를 위해 평가회에서 제기되었던 미비점을 보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조사하고 학술조사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이렇게 학술조사 활동을 끝내는 데까지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사전 답사 때부터 학술조사 활동이 끝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었던 下禮里 출신의 梁永洙 교수님(英語教育科), 우리에게 숙식·취사시설을 제공하여 조사에 불편함이 없게 배려해 준 하례국민학교의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 下禮里 이장님을 비롯한 마을주민 여러분들, 南元邑 읍장님, 靑年會, 婦女會, 그리고 提報에 협조해 준 老人會에 깊은 謝意를 표하고 싶다. 그리고 社會背景에서 古考學 분야를 집필하여 주신 李清圭 교수님(史學科)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학술조사 원고를 정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던 각 반의 반장 및 반원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 둔다.(高舜子)

社 會 背 景

목 차

- | | |
|------------|------------|
| I. 自然環境 | III. 人文 概況 |
| II. 歷史的 背景 | IV. 產業 構造 |

I. 自然環境

下禮里¹⁾는 행정구역상 濟州道 南濟州郡 南元邑에 속한다. 남원읍 읍사무소 소재지인 남원리에서는 서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와 경계하고 있어 교통여건상 생활권은 서귀포시에 속한다.

본 마을은 세 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다. 바닷가로 망장동이 있고, 일주도로변에 태성동과 장성동이 있으며, 행정상 3동 17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다와 접해 있으면서, 마을 형태는 해안에서 산간지역까지 남북으로 길쭉하게 펼쳐져 있다.

인접마을로는 동쪽으로 위미리, 북쪽으로 하례2리, 서쪽으로 서귀포시 효돈동이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바다가 있다.

기온은 제주도 남쪽에 위치하여 아주 따뜻한 편이다. 연평균 기온이 15.8℃이고, 연간 강수량도 1787mm이며 기온의 연교차가 적다. 이는 해양성 기후와 난류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표1>

1) 下禮里는 현행 맞춤법의 표기에 따르면 “하례리”라고 표기해야 된다. 그러나, 서귀포시 하예동(下猓洞)과의 혼동을 피하여 이곳 주민들이 “하례리”로 표기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런 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예리]로 발음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관되게 현지 주민들의 의도적 표기법인 “하례리”를 존중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표1〉 하례리의 월별 평균기온 및 강수량

월 요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년
기 온 (C)	6.0	6.4	9.5	13.9	17.7	20.6	25.0	26.6	23	18.5	13.3	8.3	15.8
강수량 (mm)	62.3	78.4	97.5	193.0	218.6	262.7	261.4	206.2	137.8	67.3	85.7	47.3	1,718.3

* 본 자료는 1961-82년 사이의 서귀포 측후소 관측자료의 평균이며, 하례국민학교(1987)에서 퍼낸 향토지에서 재인용하였음.

하례 1 리는 총면적이 678 ha이나, 경지면적은 전체면적의 42%에 달하는 285 h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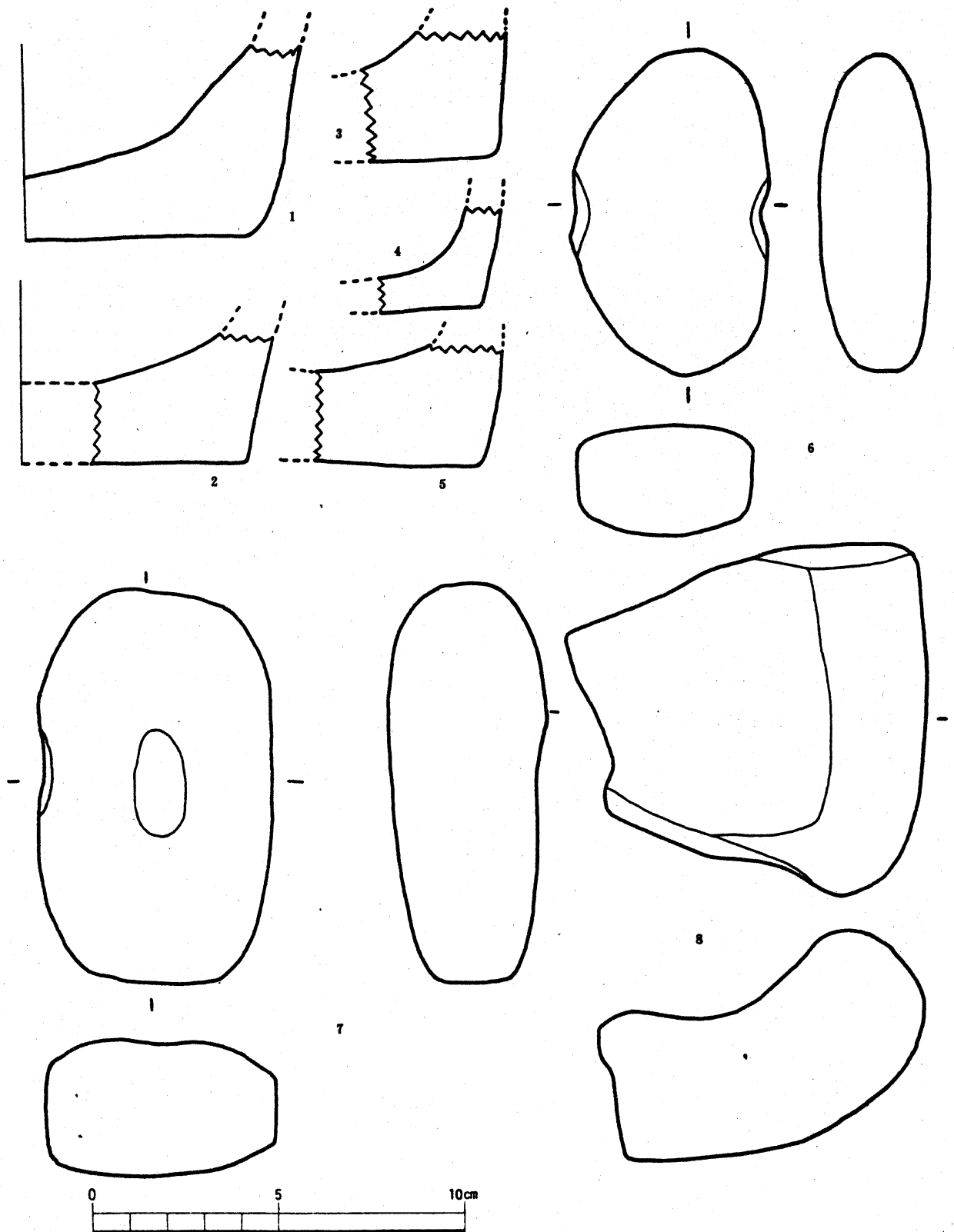
교통은 매 15분마다 동회선 버스가 일주도로를 다니고 있으므로 불편이 없다. 생활필수품은 주로 남원리 오일장이나 서귀포시 상설시장에서 구입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옆마을인 서귀포시 효돈동의 슈퍼마켓 등에서도 간단한 생활필수품은 구입한다.

용수는 마을 옆을 흐르는 냇물에 의존하여 왔다. 상수도인 경우 댁물, 남내소 웃소, 오랫물도, 긴소 등의 봉천수를 이용해 왔다고 한다. 이 마을의 설촌 동기도 이와 같이 풍부한 용수자원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마을 재정의 확충과 함께 지하수를 개발하여 높은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2. 歷史的 背景

下禮里에는 마을 서쪽으로 孝禮川이 흘러내리고 있다. 孝禮川은 건천이나 계곡이 깊어 이 마을에 용수를 공급하여 왔다. 이곳에서는 지난 1985년 제주대학교 사학과 조사단에 의해 '바위그늘 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다. 下禮里 403번지 孝禮川 동쪽에서 쪼가리들과 석기 유물이 다수 수습되었다. 이번의 조사에서도 무문토기의 쪼가리들이 수습되었는데, 교차되는 일대의 밭에서였다. 이곳은 고인들의 흔적도 있었는데 이미 과수원으로 만들어지면서 파괴되거나 돌담쪽으로 옮겨져 있었다(다음의 토기 그림과 설명 부분은 사학과李清圭 교수의 집필임).

下禮里出土先史遺物
(1~5는 무문토기, 6~8은 현무암제 석기)



이번에 수습된 무문토기는 그 그릇의 전체 모양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며, 5점 모두가 토기 바닥이다(그림 1~5). 바닥의 두께는 1점을 제외하고 모두 2cm가 넘었다. 전체의 지름을 알아볼 수 있는 1점은 바닥의 지름이 12cm이다. 胎土에는 굵은 현무암 계통의 암석 알갱이가 다량 혼입되어 있고 硬度가 높으며 적갈색을 띠고 있다. 이는 1979년 제주대 박물관에서 북제주군 애월읍 광지리 패총 제2지구의 발굴 때 층위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 이른바 '광지식 무문토기' 종류이다. 이 광지식 무문토기는 기원 이후의 철기시대 혹은 原三國時代의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 孝禮川의 주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기원 이후의 철기시대로까지 그 역사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석기 유물 1점은 자갈돌의 양쪽 옆면에 홈을 낸 것으로서(그림 6), 얼핏 그물추를 연상시킨다. 다른 1점의 납작한 타원형 자갈돌은 한가운데에 움푹 들어간 타격면이 있고 양쪽의 옆면에 다소 패인 부분이 있다. 따라서 끈을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아랫면을 타격면으로 사용한 듯이 보여, 그 기능이 제분용 공이인 동시에 그물추로 쓰였을 법한 다목적 석기이다(그림 7). 이와 같은 형식의 석기가 앞에서 언급한 바위그늘 주거지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또 다른 1점의 현무암제 석기(그림 8)는 원시 맷돌이라고 할 수 있는 갈판의 한 종류로 생각되나, 무문토기와 동시대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석기들의 용도는 민족지적 민속학적 자료의 검토로써 확실한 결론에 이를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下禮里에서 발견된 토기와 석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편년까지를 추정하였다(제주대학교 박물관 1986 '濟州島遺跡'). 고고학적으로 검토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문헌기록으로는 고려시대 말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원진(1653) 탐라지와 이원조(1841) 탐라지에서는 1300년(충렬왕 26년)에 제주에다 東西道縣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속에 狐村이란 이름이 보인다(고려사와 절요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1416년(태종 16년) 5월 6일(정유)의 도안무사와 판관의 장계 및 이듬해 5월 19일(갑진)의 정의현감의 장계를 담고 있는 왕조실록에서는 狐兒縣이란 이름이 보인다. 이들 기록의 眞僞 논의를 차치하고 狐村과 狐兒縣을 서로 비교할 때에, 우리는 村과 縣이라는 행정단위의 등급 升降을 짐작하게 되나, 그 내용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고 연구도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현상만을 지적하는 데에서 그치기로 한다.

狐村 또는 狐兒縣으로 이름되는 이 마을은 어떤 특정 시기의 특정 설촌 동기를 상정하기보다는 석기 유물을 쓰던 당대부터 계속 사람이 살아오고 있는 것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마을은 고려 충렬왕 때에는 東道(元 지배 때 東阿幕 후신)에 소속되었는데, 1416년에 제주가 삼분될 때 旌義縣에 소속되었다. 1608년 坊里가 구획될 때 정의현은 左右中의 3개 面으로 나뉘는데 이때 정의 중면에 소속되었고, 영조 때에 다시 정의 중면이 東西로 나뉘자 정의 서중면에 소속되었다. 1935년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때에는 南元에 소속되었고, 1946년 8월 군정 법령에 의해 남원읍에 소속되었으며, 1980년 12월 읍 승격에 의해 남원읍에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狐村으로 이름되던 당시는 비교적 큰 마을을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옛지도에다 이 마을 주변의 냇가, 다리, 구릉 등의 이름에 이 마을 이름이 冠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狐村이란 이름이 禮村으로 바뀌어진 때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다만 禮村이란 이름으로 바뀌어질 당시에는 上과 下로 마을이 분립되어 옛지도에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上禮里 下禮里), 마을의 팽창에 따른 자연 분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앞의 고지도 참조).

이 마을의 역사를 추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본 조사자들이 시도한 것은 이 마을에서 내리 살아오고 있다고 얘기될 수 있는 집안의 족보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역사 기록의 결루 부분을 다소 보충하며 마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고, 配位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당시 마을의 大姓에 대해서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에 따른 결론이 사실성을 얼마만큼 보장받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법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일단 높은 개연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新禮里와 下禮里를 합쳐서 이 마을의 土姓으로 제주양씨 廣山김씨 남평문씨 연안김씨 연주현씨 등이 있다.

제주양씨의 경우 梁奉洽 가계는 그 16세 先祖가 이 마을로 이주해 왔다. 1세의 기간을 30년으로 계산하면 최소한 480년 동안 이 곳에서 살아오고 있는 셈이다. 廣山김씨의 경우 金柄河 가계는 그 14세 선세가, 남평문씨의 경우 文達宗 가계는 그 13세 선세가 이 마을로 이주해 왔다. 연안김씨의 경우 金榮浩 가계는 그 10세 선세가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 연대로 따지면 제주양씨가 16세기경이고, 廣山김씨와 남평문씨가 17세기경이 되며, 연안김씨와 연주현씨가 18세기경이 된다. 현씨인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堂에서 玄氏日月之神이 모셔지는 점이다. 이는 어느 시기에 현씨 家神이 堂神으로 확대될 만큼 집성촌을 이루었을 가능성을 일단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마을의 큰 堂에 매인 심방은

朴氏로서, 22대째 이어온다고 하였지만 서귀포시로 이주하여 그 世系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姓氏別 世系 및 配位

世系(墓所)-配位	世系(墓所)-配位	世系(墓所)-配位	世系(墓所)-配位	世系(墓所)-配位
〈제주양씨 이주〉	〈광산김씨 이주〉	〈남평문씨 이주〉	〈연안김씨 이주〉	〈연주현씨 이주〉
1세(하례)-成氏				
2세(신호)-문씨				
3세(신호)-趙氏	1세(하례)-양씨			
4세(하례)-고씨	2세(신호)-고씨	1세(신예)-변씨		
5세(하례)-김씨	3세(신호)-박씨	2세(토평)-康氏		
6세(신예)-홍씨	4세(하례)-한씨	3세(하례)-허씨		
7세(신예)-오씨	5세(하례)-고씨	4세(토평)-현씨	1세(하례)-고씨	
8세(봉개)-김김	6세(신예)-변씨	5세(하례)-姜氏	2세(위미)-고씨	
9세(신예)-이씨	7세(신예)-한씨	6세(하례)-고씨	3세(토평)-任氏	1세(하례)-康氏
10세(신예)-경김	8세(신예)-현씨	7세(하례)-현씨	4세(위미)-康氏	2세(하례)-고씨
11세(신예)-오씨	9세(신예)-오씨	8세(하례)-광김	5세(상호)-경김	3세(하례)-고씨
12세(신예)-광김	10세(하례)-문씨	9세(토평)-광김	6세(신예)-양씨	4세(하례)-고씨
13세(신예)-김씨	11세(하례)-연김	10세(하례)-허씨	7세(하례)-문씨	5세(하례)-연김
14세(신예)-오씨	12세(신예)-양씨	11세(하례)-경김	8세(하례)-오씨	6세(하례)-康氏
15세(하례)-고씨	13세(하례)-현씨	12세(—)-양씨	9세(하례)-현씨	7세(하례)-고씨
16세(신예)-오씨	14세(—)-연김	13세(—)-양씨	10세(신예)-양씨	8세(위미)-경김

* 김김은 김해김씨, 연김은 연안김씨, 경김은 경주김씨, 광김은 광산김씨를 나타내며 김씨는 본관 미상

성씨별 配位들 중에서 성씨 변씨 조씨 이씨 허씨 임씨 고씨 康氏 등이 이채롭고, 이 이외의 경우는 대개 마을 내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 통혼의 범위로서 이 下禮里의 경우 윗마을인 신예리와는 잘 이뤄지지 않았고, 이웃 해안 마을들과는 이뤄졌었다고 한다. 이는 해안 마을을 천하게 보았던 의식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이 마을의 이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검토의 대상으로는 狐村과 狐兒縣 및 禮村에 국한하기로 한다. 禮村에선 上禮村과 下禮村으로 나누

어진다. 이중 下禮村만이 下禮里라는 마을 이름에서 남아 있고, 上禮村의 이름은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新禮里라는 이름이 태어났다. 검토는 狐村과 狐兒縣, 狐兒縣과 禮村의 순서로 진행한다. 村과 縣의 승강의 문제를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때, 남는 것은 狐와 狐兒의 비교에 따른 문제가 된다. 후자는 兒라는 표기요소가 하나 더 덧붙여져 있다. 이 외형적 표기요소에 집착한다면, 후자가 한 음절 더 추가된 것으로 결론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태도보다는 양자의 관계를 동치의 것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있다. 곧 兒를 차자표기에서의 末音 첨가요소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비록 전자가 狐라는 표기요소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訓讀을 통하여 말음 첨가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입장을 취하는 것은 적어도 세가지 이유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²⁾

狐는 중세국어에서 “여ㅅ/여스”의 訓으로 읽힌다. 兒는 차자표기에서 音讀되어 “ㅅ/스”의 값을 갖는다. 이때 兒의 음가는 狐의 제2음절의 음가를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狐兒는 결국 “여스”정도의 음으로 읽히는 표기이며, 狐村의 狐도 訓讀되어 “여스”로 읽혔으리라 본다. 狐村은 “여스의 村”으로 불리웠을 것이며, 狐兒縣은 “여스의 縣”으로 불리웠을 것이다(물론 여기서 母音大推移에 따른 모음 음가들의 결정은 유보되어 있다). 여기서 몇 음운론적 과정을 세워 보자. 반치음은 중세국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쉽게 자음 체계 속에서 구조적 압력을 받아 사라져 갔을 것이고, 이로 인해 명사의 2음절이 없어질 수 있다.

- 2) 첫째, 표기의 외형에 따라 狐와 狐兒를 살피면, 후자의 경우 두 언어형식 모두에 하나의 자립형태소로서의 지위를 주는 셈이 된다. 그러나 차자표기에서 兒는 어휘적 의미를 지닌 자립형태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구속형태소로서 쓰이고 있다. 중국어의 조어에서도 이 경향이 있다(최세진 老朴集覽: 又呼物名, 必用兒字, 爲助語之辭). 둘째, 만일 이 경우의 兒가 자립형태소로 쓰인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대립 짝을 이루고 있는 자립형태소(長이나 人)가 狐와 결합하여 조어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겠는데 짝을 이루는 지명은 찾아지지 않는다. 兒는 짝을 공유하지 않는 구속형태소임을 거꾸로 증명받을 수 있다. 셋째, 한 지명이 다른 지명으로 바뀔 때에는 모종의 역사적 동기에 의해, 그리고 전반적이거나 국부적인 일괄 개명 작업이 문헌에 노출되는 것이 상례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이런 변화가 狐와 狐兒의 두 이름 사이에 개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두 이름 사이의 관계가 改名の 관계라면 동일한 어근이 되는 狐를 채택한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두 이름의 관계를 개명의 차원에서 볼 때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거꾸로 동일한 내용에 대한 표기상의 변이로 파악할 때 쉽게 해결될 수 있다.

명사의 “여-”와 속격어미의 인접으로 인하여 속격 어미의 부대모음에 변화 내지는 약화가 진행된다. 이 조건이 구비되면 “여-이”에서 “예”로 복합될 지반이 형성되는 것이다.

禮는 訓이 “절”이고音が “례/배”이다(훈몽자회 및 광주본 천자문). 이 마을이 예촌(또는 예촌)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고려하면 이 글자는 音讀의 가능성이 높다. 음독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로는 “여우의 村/縣”에서 모종의 음운론적 과정을 거쳐서 “예”로 통합되는 절차가 상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에서 보면 狐兒는 순전히 훈독을 하는 경우이고 禮는 순전히 음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된다. 이들의 내용은 모두 “여우의”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뜻을 冠하여 마을 이름을 지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모색은 남원읍 신흥리에 있는 “여우내” “여우동산”이라는 속칭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암시적인 데에서 만족하기로 한다.

下禮里에서는 고문서류에 대하여 특기할 만한 것이 없었다. 조사자들이 접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흥미가 있는 것은 이곳 제주에서 평안북도 영변에 있는 선묘에까지 성묘를 갔다온 내용을 담고 있는 所志였다.³⁾

Ⅲ. 人 文 概 況

하례리의 가구수는 353세대이며 1644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는 제주도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가 된다. 주민 대부분이 농업(감귤, 아열대성식물, 화훼)에 종사하고 있고, 해안가의 50여 세대가 半農半漁의 생활을 하고 있다. <표2>

가호별 성씨 분포는 이사무소의 제보에 의하면 玄氏가 가장 많고, 許氏, 金氏 등의 순으로 되어 있다고 하나, 정확한 자료는 나와 있지 않았다. 조사자들

3) 소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下禮里 玄應元. 右謹陳所志段, 去在戊戌年, (?分)民之諸宗族, 以寧邊先墓事, 一一門會, 而擇定該事人一名, 期欲往來爲願. 而方在擇人之中, 何必指目於不佞曰, “路費則, 當往來後, 從其所入以酬應矣, 勿辭其辛苦” 云云. 故莫非爲先之事, 非忍勒力爲臥, 水陸三千里間, 關累月往來乎遣, 受答通章以, 付于諸宗中矣. 越在數月, 該費三百餘兩, 一一計算後, 敬通于諸宗, 非止一再是乎代, 都無一分酬應, 故姑置之勿論矣. 不幸, 今春先墓有事, 方在收錢之中, 故亦以此意, 敬通則, 無一言而回答, 而反加鞭於今番收斂條矣. 莫非先墓之事, 豈有何厚何薄之理哉? 伏願, 嚴訓于門中及宗孫, 該費三百餘兩, 一一聚給之澤, 千萬望良爲白只爲, 城主 處分

〈표2〉

하례리 가구 및 인구수

(단위 : 가구, 명)

가 구 수			인 구 수		
계	농 가	비농가	계	남	여
353	315	38	1,644	832	812

(1986.1. 현재 남원읍 사무소 제공)

이 남원읍 위미출장소에서 조사한 바로는 金, 梁, 文, 玄, 康氏 등의 순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들이 전체 가구수의 2/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⁴⁾ 〈표3〉

〈표3〉

가호별 성씨분포

(단위 : 가구)

계	김	양	문	현	강	기 타
353	107	46	42	21	20	117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는, 청년회 주최로 마을 주민들의 단결을 위해 체육대회가 매년 열리고 있다. 새마을 사업이나 공동작업은 각 반별로 단결하여 공동작업을 하고 있으며, 마을 공동으로 감귤 선과장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버이날에 즈음하여 마을노인회 사무소에서 노인들을 위한 위안의 밤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노인회와 청년회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회의 조직은 보이지 않았다(1987년 8월 현재).

〈표4〉

문화복지 시설 현황

(단위 : 가구)

총가구	주택보급	전기시설	T·V	전 화	냉장고	변소개량	승용차	화물차
353	353	353	353	342	343	353	26	36

(1987.1 현재, 하례리 사무소 제공)

주택구조는 새마을 사업으로 지붕개량과 변소개량이 98% 이상 진척되어 있다. 이 중 반수 이상이 슬레이트 건물이고, 현대식 양옥 건물도 30% 정도 차지한다. 또한 타농촌보다 현대적 문화시설도 많이 갖추고 있다. 이는 과수 농업을 통한 소득증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표4〉

- 4) 본 자료는 조사자로서는 호주와 세대주의 구별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임을 밝혀 둔다.

문화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기타 시설을 들 수 있다. 마을 안길 포장은 道지원, 새마을 사업, 마을 자체 부담, 재일교포 도움 등으로 연차적으로 이루어져 현재 95% 가량 포장되어 있다. 전기시설은 100% 되어 있다. 상수도 시설은 1967년 이전까지는 공천포와 냇물을 이용했다. 그 후 공동수도가 보급되었고, 1976년부터는 군지원을 받아 지하수를 개발 100%의 상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 마을 문화시설의 특이한 점은 1960년대 후반부터 감귤이 생산되어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많은 시설을 갖추었고, 재일교포도 10여명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주민의 종교생활은 전형적인 민간신앙과 불교가 혼합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샤머니즘적인 전통사상이 불교에 혼합된 것이다. 이는 마을에 堂이 여럿 있고, 사찰도 세 곳(불광사, 보타사, 삼보사)이나 있으며, 사찰을 계속 신축 중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주민 모두가 堂에 다니며, 또한 주민들 80~90%가 불교를 믿고 있다. 기독교 신자는 10여명에 불과하며 그 대상도 주로 학생층에 국한된다. 더군다나 마을내에는 교회가 없어 이웃 마을인 효돈이나 위미에 가서 예배를 보는 실정이다. 이는 당신앙이 돈독할 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한 私契 조직의 발달이 본 마을 주민들을 잘 협동하도록 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방식은 자연히 보수적인 경향을 띠게 되고 자족적 협동 체제를 이루어 외부의 요소에 낮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기관으로는 1946년에 설립된 하례국민학교와 국민학교 내에 병설유치원, 마을 자체운영의 유아원이 있다. 중학교는 마을 내에는 없고, 서귀포시 효돈동에 있는 효돈중학교에 다닌다.

〈표 5〉

국민학교 학생 현황

(단위 : 명)

학년 성별	1	2	3	4	5	6
남	14	13	12	19	15	31
여	17	19	13	14	16	14
계	31	32	25	33	31	45

(1987.7 현재, 하례국민학교 제공)

〈표 5〉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 학년 학생수가 30여 명밖에 안된다. 이는 이

촌현상과 가족계획사업으로 인한 감소현상이다. 이 마을 학부모의 교육열은 대학생이 71명이나 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의 어느 가정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마을 기관의 공식단체는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어촌계 등이 있다. 비공식 단체로는 상조계, 친목계 등이 조직되어 있어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마을에서는 유아원을 운영하며, 청년회에서 체육대회 등 대부분의 마을 행사를 주관한다.

〈표6〉 마을 공동재산

복지회관		창고		감귤원	조림지	토지
동수	평	동수	평			
1	75	1	30	12,800 (평)	261 ha	122 ha

(1987.7 현재, 하례리 사무소 제공)

마을 창고로 농협창고, 감귤선과장, 어촌계창고가 있다. 마을 복지회관은 82년도에 대통령 하사금 5백만원과 자체 부담으로 1동 75평을 건립했고, 회관 내에는 노인회 사무실, 유아원이 있다. 〈표6〉

IV. 産業構造

이 마을 산업은 농업이 주가 된다. 농경지의 99%가 감귤과 시설원예(금감, 바나나, 파인애플 등)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표7〉

〈표7〉 토지이용 현황 (단위 : ha)

계	경지면적			
	전	과수원	임야	기타
678	3	282	383	10

〈표8〉 특용작물 분포 (단위 : ha)

계	금감	바나나	파인애플	감귤
294.2	1	9.7	1.5	282

(1986. 12 현재, 남원읍 사무소 제공)

이는 70년대 중반부터 낮은 소득의 곡물 재배 농업에서 높은 소득의 과수 재배 농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수익성이 높은 특수작물 재배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표8〉

이와 함께 이 마을의 1가구당 소득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서, 감귤과 특용작물을 통한 소득이 전체 소득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표9>

<표9> 하례리의 호당 소득 현황 (단위 : 천원)

년 도 소 득	1970	1976	1978	1980	1982	1984	1985	1986
군 소 득	375	1,569	2,393	3,107	4,064	6,000	6,034	7,006
하례리소득	375	2,327	4,118	4,835	6,410	8,896	8,976	9,270

(1986. 12 현재, 남원읍 사무소 제공)

이러한 경향에는 남원읍 관내의 농촌지도소에서 정기(여름, 겨울)·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농교육과 특수 작물 재배 교육도 한 몫 끼고 있다.

반면에 목축업, 논농사 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가축 사육 현황을 보면 <표10>과 같다.

<표10> 하례리의 가축 사육 현황 (단위 : 마리)

돼 지	닭	개	염 소	소
20	10	20	3	1

(1987.1 현재, 하례리 사무소 제공)

어업 또한 망장포의 50여 가구가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고 있을 뿐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해녀수도 현재 13명에 불과하며 계속 노령화 추세에 있어 몇 년 후에는 해녀가 완전히 없어질 전망이다. <표11>

<표11> 하례리 해녀의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계	20 대	30 대	40 대	50 대
13	1	3	5	4

(1987. 7 현재, 하례리 어촌계 제공)

이들 해녀들의 학력은 대부분 국졸이다. 어선은 대부분 옥돔잡이에 사용되며, 전부 1t 이상 발동선이다. 해녀 복지시설은 타마을과 같이 잘 되어 있지 않았으며, 어촌계 사무실은 망장포에 있다. 이와 함께 해녀들의 주소득원도 해

산물 채취보다는 정치망 어선을 통한 옥돔잡이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이 어업은 옥돔잡이와 해산물 채취로 가구당 소득은 높은 편이나 전체소득의 3%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한다. 어업 소득은 해녀 개인당 소득이 월 10-50만원이다. 옥돔잡이선은 한 척당 월 약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므로 개인당 250-3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된다.

농기계 보급은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경운기, 동력분무기, 농업용 트랙 등이 대량 보급되어 있다. 대부분의 농가가 이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수원 등의 제반 관리에 사용되고 있다.

* 본 란의 작성에는

남원읍(1986), 남원읍지

서귀포시 교육청(1986), 설촌유래

제주대 국어교육과(1987), 현지 학술조사 방법론

제주대 박물관(1986), 제주도 유적

하례국민학교(1987), 학교 요람

하례국민학교(1987), 향토지

한글학회(1984), 한국지명총람-제주편
등이 참조되었다.

▽ 孝禮川



方 言

目 次		
I. 用言의 活用形	V. 漁	業
II. 衣 生 活	VI. 其	他
III. 食 生 活	VII. 地	名
IV. 住 生 活		

이번 방언 조사에서는 南濟州郡 南元邑 下禮里 마을에서 ‘用言의 活用形’에 대한 조사에 주력했다. 조사의 편의를 위해 미리 100목의 어휘를 준비하였다. 이 어휘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語幹末 形態素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였고, 생활상에 흔히 드러날 수 있는 어휘들로 택했다. 또한 語尾를 선정함에 있어서 “-는다고, -다가, -다고, -지만, -아도, -아서, -으면, -으니까”를 통합시켜 조사하였다. 이는 基本形을 잡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질문지를 작성할 때에는 본 국어 교육과에서 발간한 《백록어문》(창간호, 2호), 《방언조사질문지》(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방언학》(이악섭, 1984)을 참고하였다.

현지의 반응이 좋은 편이어서 제보자 선정에는 별 어려움이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용언의 활용에 조사의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해당 항목의 대답을 유도하는 데 애를 먹었다.¹⁾

용언의 활용형 외에도 衣·食·住生活의 名詞들을 조사했다. 친족관계의 호칭 어휘(최규일(1986), 한국어의 친족호칭 어휘 연구, 국어교육 55·56 합병호 참조)와 地名, 추가 조사 때 어업에 관해서도 조사했다. 일찍부터 밀감 과수원이 많았고, 근래에 들어 바나나 비닐하우스의 보급으로 재래의 농업형태는 없었으므로 농업에 대한 것은 조사하지 않았다.

1) 活用形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받아 적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던 활용형이 나올 때에는 받아 적었다. 방언의 예도 방언형으로 표기하였다.

I. 用言의 活用形

어휘의 語幹에 “-는다고, -다가, -지만, -아도, -아서, -으면, -으니까”의 語尾를 통합하여 조사했다. 물론 의도대로 된 것만은 아니다. 대부분 ‘-아서’의 제주방언형인 ‘-앙’이 많이 나타났다.

- ① 익다; 익건, 익으민
 - 막 익건 타주마
 - 익으민 둔다마는
- ② 막다; 막앙, 막으난
 - 막앙 나뉘도 들어오랑 문이역 몬 갇아부럼쩌
- ③ 신다; 신영, 신어, 신나, 신국, 신으라
 - 신 신영 땡기라
 - 신어 가불민 어평허여
 - 양말 신국 고무신 신나 허영 나가주
- ④ 듣다; 듣나, 들어야, 듣지
 - 난 귀막으난 못듣나
 - 고생헌 사름 말을 들어야 현다
 - 그말 듣지 누게 말 듣나
- ⑤ 닫다; 더꺼도, 더끄랭, 더끄랜, 더끄라, 더끄멍, 더깁
 - 문 더꺼도 열다
 - 문 더깁 들어오라
 - 문 줄바로 더끄라
- ⑥ 날다; 놀앙, 놀아
 - 놀앙 땡기당
- ⑦ (눈을) 감다; 곱앙, 곱으민, 곱아부난
 - 눈 곱앙 자라
 - 괴영 곱앙 감서
- ⑧ 삼다; 솟앙, 솟아그네
 - 시청 솟앙 먹고
 - 솟앙도 먹고 킁도 먹꼭
 - 너무 솟아비였저

- ⑨ 숨다 ; 곱으민, 곱다
 • 곱으민 촌지라
 • 잘 곱아불지 안허클랑 나오라불랜 허주게
 △ 숨바꼭질 ; 곱을락
- ⑩ 넘다 ; 넘엉, 넘어비난, 넘으난
 • 정설낭 넘엉 들어오주게
- ⑪ 곱다 ; 곱닥헌, 곱다, 곱닥허다
 • 곱닥헌 아이가 나쁜 짓 허염쩌
 • 아이고 나딸 곱닥허다
- ⑫ 눅다 ; 누엇당, 누라, 누엉
 △ 눅지라 (使)²⁾
 • 누엇당 갑서
 • 줄바로 누라
 • 드러누엉 잔다
- ⑬ 뎡다 ; 더깁, 더평, 더꺼당, 더끄랜
 • 후등이나 잘 더깁 누라
 • 비 오람시난 장항 더끄랜
- ⑭ 높다 ; 높으게, 높으긴, 높으주마는
 • 높으게 다라 (쌓으라)
 • 높으긴 높으주마는 칭수사 굴을테주
- ⑮ 낫다 ; 느잡다, 느자와
 • 단칭보단 이칭이 느자와
- ⑯ (병이) 낫다 ; 나산
 • 다 나산 오란?
- ⑰ 늦다 ; 늦언
 • 시간 늦언, 훈저 가라
- ⑱ 낳다 ; 나뻬구나, 남시민, 나곡, 난디, 낭, 나가민, 나당보난, 나비난
 • 아기 나뻬구나
 • 남시민 아덜도 나곡 딸도 나주게
 • 아기 하영 나도 헛거

2) '눅다'의 使動形

- ①⑨ 앓다 ; 아지랭, 아지라, 아진다, 아자불켜
 • 굴 속읍에 아진다
 • 이레 오랑 아지라
 • 아고 혼끝으레 아자불켜
- ②⑩ 밝다 ; 붉으랜, 붉암쩌, 붉암시난, 붉아감쩌
 • 붉은 붉으랜 썬다
 • 붉암쩌, 혼저 일어나라
- ②⑪ 읽다 ; 익으민, 익으라, 익주게, 익으랜
 • 호나 오랑 딱 익으민 또 익으라 허주게
 • 글 익으랜 허민 아니 허영
- ②⑫ 옮다 ; 올른다, 올랑, 올란, 오른다, 올르곡, 올르민, 올르는, 올르주
 • 도랭이 올른다
 • 비디(?) 올랐젠 허주게
 • 혼 놔미 올르민 다 오르주게
- ②⑬ 밟다 ; 불라, 불랑
 • 보리 불라났주게
- ②⑭ 없다 ; 어신디, 어시민, 업시민, 어성, 어시, 어서, 엇지, 어신, 어시난,
 엇다
 △ 매미여³⁾
 • 어시민 헐 수가 어신 거여
 • 본 것도 들은 것도 어신 사름이여
 • 멘경(面鏡)은 어시난
- ②⑮ (소금) 짜다 ; 짜그네, 짱, 짬, 짜난, 짜게, 짜주
 • 곤 마추멍 무사 경 짜게 낡디
 • 쿠사 이추록 짜게 볶아시니
 • 짜그네 못 먹첸 허여라
- ②⑯ (글) 쓰다 ; 쓰곡, 쓰국, 쓰라, 써라
 • 지네 알아지는 글은 쓰곡
 • 족본 권당덜 써진 거
- ②⑰ 흐르다 ; 흘리, 느리다, 내치다, 내리다
 • 골마다 물이 흘리부난에

3)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어린아이에게 하는 말.

- 내첫쨌 곤주게
- 물골(水口) 르레 느려 감쨌
- ㉘ 바쁘다; 바빠, 바빔, 바쁘단, 바쁘당
 - 아이고 바빠
 - 바쁘당만 알아사 될 거라
 - △ 저르었다, 절어선, 저르어성⁴⁾
- ㉙ 비비다; 브비는, 브빈다, 브비민, 보비멍, 브빈단
 - 손은 브비민 비는 거라
 - 영영 브비는 거
- ㉚ (싸움) 말리다; 멀린다, 멀려, 멀리곡
 - 싸움은 멀리곡 흥성은 부치랜 허주
- ㉛ (아기) 업다; 업엉, 업곡, 업어그네, 업어시라
 - 둑지에서 업엉 땡기멍 달래엿주기
 - 마 아이 왕 업엉 강 저디 강 놀라
- ㉜ 안다; 안은, 안곡, 안앙
 - 가슴엔 안은 거
- ㉝ (젓) 빨다; 빨앙, 빨아
 - 젓사 빨앙 먹주 썸으멍도 먹어
- ㉞ (마당) 쓸다; 쓸어불랜, 쓸엉, 쓸어그네
 - 박박 쓸어그넵에 불도 살곡
- ㉟ (머리) 빗다; 빗엉, 빗는, 빗젠, 빗저
 - 열레기로 빗엉 다왕
 - 밤이 머리 빗젠 허민 모습넨
 - 챙빋 아저오라 니 빗저
- ㊱ 부끄럽다; 비끄르왕, 비끄릅곡
 - 비끄르왕 놔 베리카부덴 영 곱아났주게
 - 새서방 베리몬 비끄릅곡, 시어멍도 베리몬 비끄릅곡
- ㊲ 기다리다; 지드려, 지들럼쨌
 - 암만 지드려봐도 아니 오랑 어땡 헐거니
 - 하르방 지들럼쨌
- ㊳ 마르다; 몰르주게, 몰라야, 몰른다

4) 바쁘다와는 좀 다르게 쓰인다. 표준어의 '거를'에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 금방 몰르주게

• 빨래야 몰라야 거두주

△ 브뜨다, 브땅; 물 브땅 빨래 못허연

③⑨ (방귀) 꾸다; 꾸엄시니, 꾸어불주

• 무슨 똥을 경 꾸엄시니

④① 꺾다; 꺾으는, 각으는, 각은댄

• 밤인 손톱 아니 각은댄

• 꺾으는 기계 시난 주룩 꺾으주

△ ㄱ스다, ㄱ사불라, ㄱ스난

④① (잡아) 당기다; 동기라, 땡기라, 동경

• 동경 열주

△ 좁아동길락

④② 꺾다; 꺾으는, 꺾어불지

• 꺾으는 거

• 거 무사 경 꺾어비염시니

• 남도 경 꺾어불지 말라

④③ 뜯다; 툇을, 툇으는, 툇지, 툇으라

• 누물 툇을 때랑 고양이 툇으라

• 툇으는 거

• 누물 툇지 말라

④④ 울다; 우는

• 우는 거

• 우는 책 허지 말라

④⑤ 일다(쌀); 일게, 일어사켜, 일어

• 쌀 일게

• 쌀 일어사켜

• 쌀 일어노라 저디 갔당 오마

④⑥ (얼음) 얼다; 얼러불주, 얼리우는

• 겨울엔 밤이 마당에 물 비왕 놔두민 얼러불주

• 유리추룩 히양 헌 건 얼리우는 거

④⑦ (옷) 입다; 입어사켜, 입으라, 입엉, 입으난

• 아고 파씩 얼다 옷 입어사켜

- 옷 입으난 드시다
- 막 얼었져 옷 입으라
- ④⑧ 짓다 ; 짓으난, 짓어사주, 짓엉
 - 막 옛날엔 움막 짓엉 살아났덴 허여
 - 새 집 짓으난 참 좋다
 - 돈 벌민 집도 새로 짓어사주
- ④⑨ 웃다 ; 웃어사, 웃지
 - 웃어사 곱주
 - 너미 웃지 말라 배아픈다
- ⑤① (개가) 짓다 ; 지꾸지, 주끄멘
 - 지꾸지 말라
 - 저 갠 무사 경 주끄멘?
- ⑤② 딸다 ; 다우는, 다왔져, 다와
 - 그건 머리 다우는 거
 - 머리 참 곱게 다왔져
 - 거 누게 경 곱게 다와 줘니?
- ⑤③ 똥다 ; 똥른, 똥르곡, 똥랑
 - 고망 똥른 건 약괘
 - 네 밧디 똥르곡 가운디 똥랑 만들주
- ⑤④ 끄다 ; 끄라, 꺾
 - 불 끄라 훈저 자게
 - 불 꺾 누라
- ⑤⑤ (활) 쏘다 ; 쏘아난
 - 직센(直숨는) 활 쏘아난 디
- ⑤⑥ (꿈) 꾸다 ; 시꾸와라, 시꾸민
 - 꿈에 시꾸와라
 - 현씨 시꾸민 선난(?) 일 난덴
- ⑤⑦ (숫자) 세다 ; 세어
 - 강 수정 세여 보라, 멧 사름이니?
- ⑤⑧ (베개) 베다 ; 베영, 베와
 - 베개 베영 자주게
 - 가이 베개 잘 베와주라

- 58 (되로) 되다 ; 될, 되여사
- 되사 쓸 될 때 쓰는 거 아니라
 - 장발이 가젠 허민 쓸 되여사 혼 말 귀말(?) 이서
- 59 (목) 쉬다 ; 쉬여부난, 쉬였저
- 목 쉬여부난 말 곤지 못허켜
 - 아이고 목 막 쉬였저
- 60 (모르는 것을) 묻다 ; 들으레, 들어, 듣주
- 들으레 와서라, 들어 보젠 와서라
 - 그건 지네 어멍신디 강 듣주게 무사 이디 왕 경 허염서?
- 61 (땅에) 묻다 ; 묻은, 묻는, 묻어
- 그건 아니 묻은 때
 - 하관(下棺) 허영 묻어부는 거주
- 62 (꾸벅꾸벅) 졸다 ; 졸ამچه, 졸리는, 조는, 졸아
- 자인 꼭꼭 졸ამچه
 - 자이 조는 거 보라
 - 가인 잘 졸아
- 63 더듬다 ; 더듬거림젠, 더듬거리멍
- 무사 더듬거리멍 꼴암시니
- 64 (생선) 굽다 ; 켜, 권만, 구언
- 켜 먹주 어뎡 먹어
 - 옛날에 권만 먹어서
 - 낭 이션 잘 구언저서게
- 65 무겁다 ; 뵤, 배다
- 야인 찰도 뵤 아이여
 - 찰도 배다
- 66 아프다 ; 아프난, 아광, 아파샤
- 병원에서 아프난 감쭈
 - 아광 일어나지 못허켄 허염چه
 - 가인 아파샤?
- 67 (새끼) 꼬다 ; 꼬앙, 꼬는
- 노 꼬앙 스끼 꼬앙
 - 노 꼬는 거

- ⑥⑧ 데우다 ; 테와사, 테왕, 데우라
 - 테와사 먹주게
 - 테왕 먹어
 - 불 와랑와랑 솜앙 데우라
- ⑥⑨ 쉬다 ; 쉬엉, 쉬으라
 - 여러가지 쉬으라
- ⑦⑩ 먹다 ; 먹어, 먹지, 먹어불랜, 먹어불라, 먹으멍
 - 과자덜도 먹으멍 허라
 - 걸랑 먹지 말라
 - 먹어 보랜도 허꼭 먹어불랜도 허주
- ⑦⑪ (힘) 세다 ; 세염직, 세다
 - 기신이나 세염직 허다
- ⑦⑫ 묶다 ; 묶으랜, 묶음
 - 묶음이 옛날 말이라
 - 묶으랜 꼴라
- ⑦⑬ 잡아매다 ; 줄라 매는 거
- ⑦⑭ 굶다 ; 굶나, 굶어사
 - 애비 아덜 새에도 범벅의 그릇 굶나
 - 그릇 ㅈ어사 이견 나저여 그건 너저여
- ⑦⑮ (옷) 벗다 ; 벗어불랜, 벗엉, 벗으난, 벗어사
 - 더러 벗어불랜 허주게
 - 옷 벗엉 자라
 - 옷 벗으난 시원허영 좋다
- ⑦⑯ (물) 붓다 ; 비왕, 비우주게
 - 물 ㅎ썰 비왕 솜으라
- ⑦⑰ 달래다 ; 달래라
 - 자이 달래라
- ⑦⑱ 녹다 ; 녹아, 녹영
 - 얼음 녹영 먹어사 시원헌다
 - 몬 녹아비였저
- ⑦㉠ 고치다 ; 고쨍, 고찌랜
 - 이 테레비 고쨍 오라

- 사름 오걸 랑 고찌랜 허라
- ㉔ 낚다 ; 낚으레, 낚아도
 - 이디도 하영 낚으레 와
 - 복쟁이 낚아도 데껴불주
- ㉕ 잠그다 ; 중그라, 중강
 - 잘 중그라
 - 잘 중강 학교 가라
- ㉖ 자빠지다 ; 텔사졌저, *텔사전, 텔사지민
 - 탁 텔사졌저
- ㉗ 일으키다 ; 일려주곡
 - 텔사지민 일려주곡
- ㉘ 썩다 ; 썩어사
 - 막 썩어비연
 - 걸름도 썩어사 끝주
- ㉙ 걸다 ; 걸고, 걸다
 - 이진 걸고 이진 줄르다
 - 이진 어떻 질쭉허니 걸다
- ㉚ 짧다 ; 줄르다, 줄랑
 - 그 낭은 줄랑 못 쓰켜
- ㉛ 심다 ; 싱그레, 싱그는
 - 식목일은 낭 싱그는 날
 - 낭 싱그레 간
- ㉜ (발이) 저리다 ; 자련, 자렸저
 - 발 자련 일어사지 못허켜
 - 다시 오젠 발 자렸저
- ㉝ 어둡다 ; 어둑언, 어둑으난, 어둑어사
 - 어둑언 베리지 못허켜
 - 어둑어사 불 싸주
- ㉞ 가렵다 ; ㄱ루우난
 - 등땡인 ㄱ루우난 글그랜 허주
- ㉟ (공) 차다 ; 차곡, 차는, 찬댄, 차불라
 - 발로 영 허는 건 찬댄허여

- ② (이름) 부르다, 불르라, 불령
 • 자이 불르라
 • 느네 아방 불령 오라
- ③ 던지다; 데끼라, 데졌저, 데껴불라⁵⁾
 • 멀리 강 데껴불라
 • 잘도 멀리 데껴찌
- ④ 만지다; 몬직아
 • 서답 몰라시나 몬직아 보라
- ⑤ (다리미) 다리다; 다리느, 다리게, 다리젠
 • 화리에 윤디 뽕 다리느 거
 • 저디강 다리웨 빌령 오라, 옷 다리게
 △ 윤디; 인두
 △ 다리웨; 다리미
- ⑥ (한약) 달이다; 딸령
 • 한약은 잘 딸령 먹어사
- ⑦ 부수다; 부수라, 부셔사컬
 • 흑병애 부수라, 부셔사컬
- ⑧ (지게에) 지다; 경
 • 지게에 경 오라
 • 그 상진(箱子는) 경 오라샤?
- ⑨ (머리에) 이다; 잉어, 잉으느
 • 머리에 잉어
 • 잉으느 거
- ⑩ (가슴을) 펴다; 폐왕
 • 무사 딱 오그라정 땡김이니? 영 폐왕 땡기라

Ⅱ. 衣 生 活

1. 혼례복

1) 남자의 경우

① 탕근

5) '버리다'의 뜻으로도 쓰인다. ex) 쓰레기 데껴불라

- ② 입저
- ③ 관디 ; 쓰는 거. 사모관디엔도 허주
- ④ 도복 ; 우머니 돌진 큰 옷
- ⑤ 관복 ; 도복 우의 입는 거
- ⑥ 행견
- ⑦ 가막창신 ; 쇠가죽으로 만든 거

2) 여자의 경우

(1) 下衣 (內→外)⁶⁾

- ① 속곳 ; 소중이엔도 허는 거
- ② 바지 ; 속곳 우의 입는 거
- ③ 굴중이 ; 아래가 홀타지지 않은 거. 요새 속치매
- ④ 한복

(2) 上衣 (內 → 外)

- ① 적삼
- ② 친헌 적삼 ; 요새 속내의
- ③ 한복
- ④ 장옷 ; 호난 입곡 호난 쓰곡

(3) 머리, 발

- ① 족두리
- ② 이맏거리
- ③ 창신

2. 기 타

- ① 땡기
- ② 등에 진 머리
- ③ 두룽전지 ; 처녀 때 머리가 길어서 머리 위로 감아올린 머리
- ④ 맹지옷 ; 맹지로 만든 거
- ⑤ 우장 ; 새 비여당 쥘영 만들앗당 비 올 때 입는 거
- ⑥ 빙것 ; 쇠터럭 허여그네 만들앙 쓰는 거
- ⑦ 양재
- ⑧ 머리창
- ⑨ 몸배

6) 속옷에서 겉옷의 차례로 항목의 순서를 정했다.

⑩ 치매

Ⅲ. 食生活

1. 밥 종류

- ① 보리밥 ; 보리 낱 현 거
- ② 쌀밥 ; 곤밥이옴도 허주
- ③ 조팝
- ④ 콩밥
- ⑤ 서숙밥 ; 조 님은거 낱 현 밥이라
- ⑥ 툇밥
- ⑦ 오곡밥 ; 곤쌀, 보리, 풀, 콩, 좁쌀 낱 허영 잡구신(雜鬼神)에게 받지는 거

2. 떡 종류

- ① 솔벤(솔펜) ; 돌 훈착 골지
동네방상 다 모다들어그네게, 방애에 뽕앙, 좁진 채로 청, 반죽 허영 떡 몰앙,
스몯 잘 밀엿 솔잎 꿀앙 쳐그네 춤지름 볼르곡 허영 제 지내났주.
- ② 절벤 ; 반죽 허영 그냥 익엿 동골레미를 두 개 붙정 맨들아. 동골랑 현 뿐이
이서
- ③ 제펜 ; 덧섰 꿀앙 징을 갈른 거라. 침떡 허영 비여내민 영허영 칼로 딱딱 훈 빗
씩 떼여내영 그 양펜의 눈 돈지주게, 풀방울 허영 눈 돈저
- ④ 침떡 ; 풀으로 징 갈른 거
- ⑤ 꽃떡 ; 제펜에 헤영케 허영 만드레기 꽃 열매 허영 더운 때 꼭허게 찢르민 떡
에 물이 들어가
- ⑥ 속떡 ; 옛날은 속떡이옴 허영 먹을겔로덜 먹었주. 젓상엔 올리지 안허여서
- ⑦ 상외떡 ; 밀 2루 허영 지금 빵추룩 허영 청, 빗떡으로 비민 상외떡이고, 순다리
허영 기주허여그네 주생인 허영 죄기떡 만들앙 먹곡.
- ⑧ 움떡 ; 기계가 뽕 거
- ⑨ 정기떡 ; 빙떡이옴도 허는 거
- ⑩ 만디떡
- ⑪ 문치떡 ; 침떡게, 풀쉬낱 현 것이 문치떡이주게
- ⑫ 작구떡
- ⑬ 과질 ; 쌀 피운 거
- ⑭ 중괘 ; 수랑줄랑현 거
- ⑮ 약괘 ; 호쌀 질게 허영 네빳디 고망 난 거

⑯ 인절미

⑰ 툇범벅 ; 툇 솟앙 농곡, 양을 부르우젠 허난 툇 놓은 거주

⑱ 밀떡

3. 반찬 종류

① 쟁이젓

② 괴기

③ 드릇느물

④ 민내기

⑤ 부루

⑥ 비늬

⑦ 산느물

⑧ 시금추

⑨ 유잎

⑩ 지, 마농지

⑪ 짐치

⑫ 춤비늬

⑬ 콩느물

⑭ 콩쌈

4. 식기류

① 남박새기

② 남도고리

IV. 住 生 活

① 굴묵방

② 굴묵

③ 곶판

④ 마리

⑤ 상방

⑥ 지판

⑦ 구들

⑧ 대문

⑨ 대문귀틀

⑩ 구들샅문

⑪ 바착문

⑫ 뒗문

⑬ 낭간

⑭ 잇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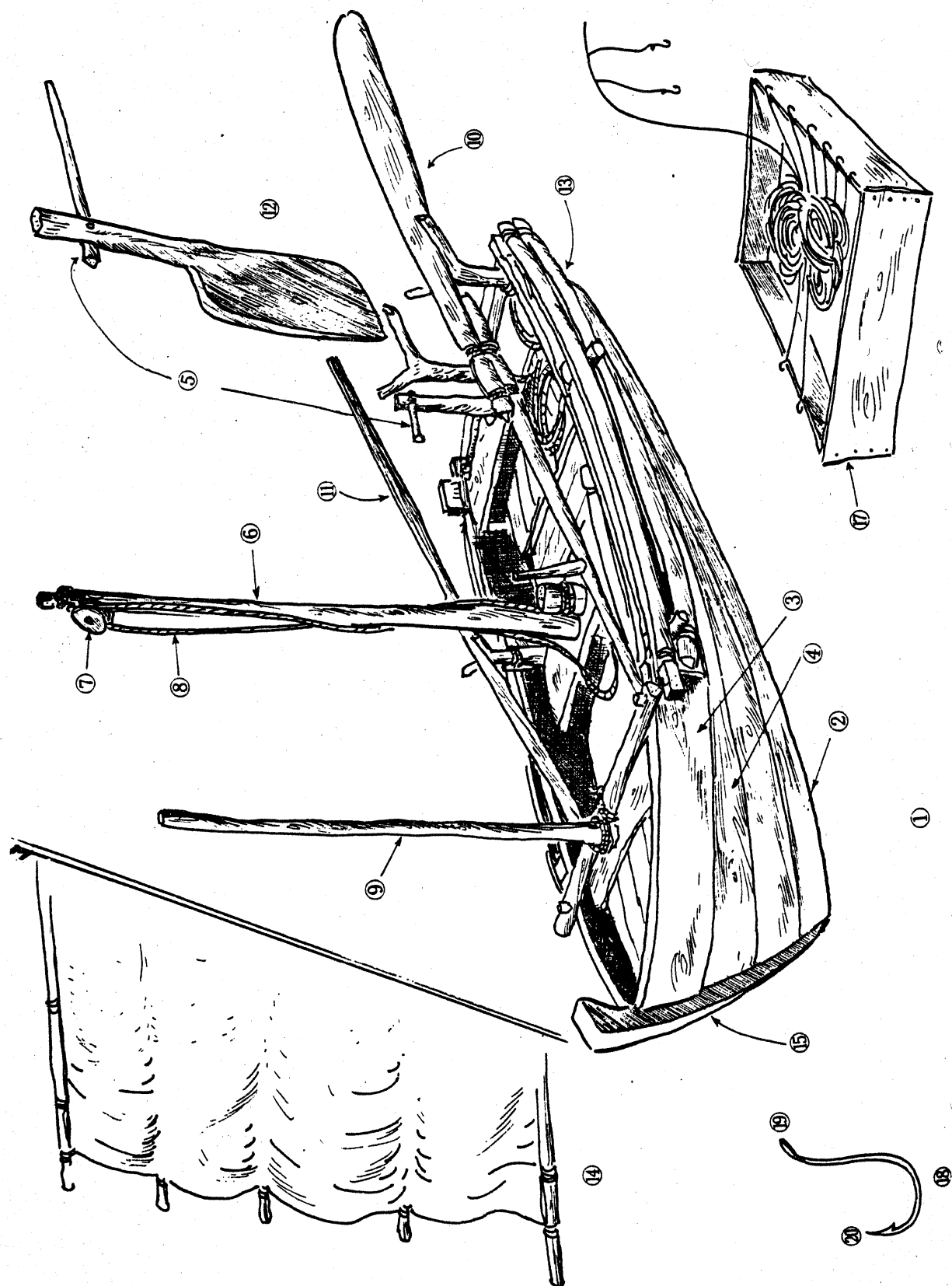
⑮ 시렁

⑯ 당반

⑰ 정지

⑱ 솔강알

⑲ 찰레



V. 漁 業

1. 배 < 앞의 그림 참조 >

- | | |
|----------------------------------|------------------------------------|
| ① 풍선 (風船) : 돛단배 | ⑫ 치 |
| ② 밀 | ⑬ 파락 |
| ③ 옷장 | ⑭ 초석 : 허릿돛대에 낀 뱃초석,
야웃대에 낀 야웃초석 |
| ④ 부삼 | ⑮ 못시 |
| ⑤ 칫장낭 | ⑯ 주낫 |
| ⑥ 허릿돛대 | ⑰ 주낫상자 |
| ⑦ 용도 | ⑱ 낚시 |
| ⑧ 용돛배 | ⑲ 조륙 |
| ⑨ 야웃대 | ⑳ 미늘 |
| ⑩ 허릿노 | |
| ⑪ 젓거린노 | |
| ⑫ 이물(배의 앞부분) | |
| ⑬ 한장(배의 한 가운데) | |
| ⑭ 고물(배의 뒷부분) | |
| ⑮ 이물사공 : 이물에 아진 사람, 초석덜 내리우곡 세우곡 | |
| ⑯ 고물사공 : 고물에 아진 사람, 치 잡는 사람 | |

2. 물질 할 때

- | | |
|----------------------------------|-----------------|
| ① 눈 : 수경 | ⑥ 비창 |
| ② 태왁 : 지평 쉬는 거 | ⑦ 호맹이(골개) |
| ③ 속곳 | ⑧ 소살 : 피기 쏘우는 거 |
| ④ 물적삼 | ⑨ 오리발 |
| ⑤ 물수건(까부리) : 광목수건 허영
써그네 눈 쓰곡 | ⑩ 고무옷 |
| | ⑪ 망시리 : 잡앗 담는 거 |

△이젠양 고무옷 입으난 해도 그 땐 속곳에 물적삼 입어나서

3. 魚貝類

- ① 솔난이 : 옥돔
- ② 어랭이
- ③ 맥진달랭이
- ④ 갯돔
- ⑤ 우럭
- ⑥ 다금바리
- ⑦ 벵들락
- ⑧ 모살맹이
- ⑨ 마매기
- ⑩ 문닥지
- ⑪ 복쟁이
- ⑫ 각재기
- ⑬ 고도리 : 고등에 새끼
- ⑭ 꼴뚜기
- ⑮ 쟁이⁷⁾
 - ㉠ 돌쟁이
 - ㉡ 똥쟁이
 - ㉢ 성창쟁이 : 엉덕에 사는 거
 - ㉣ 산물쟁이 : 산물에 사는 거
- ⑯ 소라⁸⁾
 - ㉠ 조쿠재기
 - ㉡ 생쟁이
 - ㉢ 소라
 - ㉣ 문둥구쟁기(민둥구쟁기)
- ⑰ 해섬 : 동지 넘으민 해섬 잡곡
- ⑱ 문개(물끄러)
- ⑲ 생북⁹⁾
 - ㉠ 마드리 : 종즈가 틀린 거, 잘 베지도 못하여 질경
 - ㉡ 살피역 : 생북 죽은 거
 - ㉢ 암천북 : 베지그락 현 거
 - ㉣ 수천북 : 물크락 현 건디 이만은 현거 이서
- ⑳ 조개
- ㉑ 성기
 - ㉠ 성기
 - ㉡ 붉은성기 : 쌀이 검은 쌀이 아니고, 붉은 쌀이라
 - ㉢ 솜 : 복쌈 현 거
- ㉒ 오분자기 : 생북 죽은 거 닮은 건디 종즈가 트나
- ㉓ 눈쟁이
- ㉔ 따찌 : 손 찢르민 아프곡 허는 거
- ㉕ 껍주리
- ㉖ 올랑껍주리 : 껍주린 껍주린디 소롱현 거

Ⅵ. 기 타

1. 親族

친족 관계에서 호칭에 대한 어휘들은 몇 되지 않았다. 서열에 있어 '큰, 셋,

-
- 7) 사는 장소에 따라 분류한 것임.
 - 8) 성장 과정에 따라 분류한 것임.
 - 9) 모양, 종자에 따라 분류한 것임.

큰말젯, 중(중간)말젯, 작은말젯, 막녕이(죽은)을 붙여 해상 계열의 서열을 부른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형제들을 부를 때에는 다음과 같다.

큰아방, 셋아방, 큰말젯아방, 중말젯아방, 작은말젯아방, 작은아방, 큰고모, 셋고모, 큰말젯고모, 중말젯고모, 작은말젯고모, 작은고모

여기에서 형제자매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중말젯, 큰말젯과 작은말젯(그냥 말젯)으로, 셋'의 순으로 줄어나간다. 이외의 친족호칭은 다음과 같다.

- | | |
|------------------|--------------|
| ① 징주 : 증조부(曾祖父) | ⑧ 누이 |
| ② 왕할망 : 증조모(曾祖母) | ⑨ 누님 |
| ③ 당주 : 조부(祖父) | ⑩ 언니 |
| ④ 당할망 : 조모(祖母) | ⑪ 형부, 성부(兄夫) |
| ⑤ 아지망 | ⑫ 동세(同孀) |
| ⑥ 아지방 | ⑬ 조캐 |
| ⑦ 오라방 | |

고계와 부계의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모계에는 '외-'를 부계에는 '성-'을 붙인다.

2. 기타

매미¹⁰⁾ : 굼베랭이, 고주어리, 왕자리

Ⅶ. 地 名

- | | |
|---|------------------------------|
| 1) 가개기마루(烏旨里) : 하례리 전역 | 5) 걸세오름 : 산 |
| 2) 개다리왓(개드랏) : 352 - 2. 전 일대(개다리 하나에 바꾼 디) | 6) 고냉이소 : 진소 근처 |
| 3) 개똥뱅디 : 498 - 8 대 ~ 349 전 ~ 344 전 ~ 509 - 2 전 일대(가동 뱅디, 개천뱅디) | 7) 고드리왓 : 744 전 일대 |
| 4) 개소 : 457 전 川 ¹¹⁾ | 8) 골생이곳 : 819 전 일대 |
| | 9) 광구왓 : 661 - 1 전 일대 |
| | 10) 금든밭(金入田) : 1024 - 1 전 일대 |

10) 애벌레, 번데기, 성충의 순서

11) 川은 냇가 또는 냇물을 뜻함

濟州島部落誌(Ⅰ)

- | | |
|------------------------------------|--|
| 11) 남내소 : 455 전 川 | 40) 빗긴마루 : 산 |
| 12) 너르넷도 : 산 | 41) 사니물 : 22 전 川 |
| 13) 너븐광동네 : 752 전 일대 | 42) 사니물동산 : 38 - 1 대 일대 |
| 14) 널무든동산 : 734 대 일대 | 43) 새기내 : 신예와 하례리 경계 川 |
| 15) 노꼴시 : 1220 임 일대 | 44) 새왓칩발 : 901 전 일대 |
| 16) 농남소 : 768 임 川 | 45) 서가왓 : 399 전 일대 |
| 17) 당돌왓 : 488 전 일대 | 46) 서당마루 : 884 임 일대
(서당 이서난 디) |
| 18) 당카름 : 1047 임 일대 | 47) 서동네 : 장아리왓 일대 |
| 19) 대곶터 : 283 전 | 48) 세밋도 : 1577 - 2 임 일대 |
| 20) 대성동 : 아왜남밭 일대 | 49) 소각 : 130 전 일대 |
| 21) 대신뱅디 : 286 - 1 전 일대 | 50) 소안팍 : 1033 전 일대
(빗돌 나는 디) |
| 22) 대생이왓 : 1243 임 일대 | 51) 쇠숙각 : 142 - 2 전 川 |
| 23) 땡물(땡물) : 686 대 川 | 52) 시끄리왓 : 912 전 일대 |
| 24) 돈드르 : 1371 - 3 임 일대 | 53) 소왕난동산(소학난동산) : 565
전 일대 |
| 25) 돛터릿도 : 592 전 일대 | 54) 솔대왓 : 720 전 일대 |
| 26) 뒤스름 : 1835 - 1 임 일대 | 55) 송가팍(골생이) : 634 전 일대 |
| 27) 망장동 : 바닷가 동네 | 56) 아외남밭 : 517 - 5 대 일대
(도채비 나는 디) |
| 28) 망장포 : 621 - 1 海 ¹²⁾ | 57) 앓밭 : 394 대 일대 |
| 29) 마트릿내 : 산 | 58) 어웁도 : 1830 임 일대 |
| 30) 맹신당 : 85 전 | 59) 예춘가름 : 350 전 ~ 15 - 2 전
~ 26 임 ~ 130 전 일대(일주도로
남쪽의 평야) |
| 31) 머을산저 : 산 | 60) 예춘망 : 95 - 2 ~ 9 전 |
| 32) 머켓동산(멧케동산) : 402 전 일대 | 61) 옥터 : 363 전 일대 |
| 33) 물왓동산 : 316 - 1 전 일대 | 62) 오지리 : 702 대 일대 |
| 34) 모래기도 : 1863 임 川 | |
| 35) 물오름 : 수악산 | |
| 36) 박다르케 : 103 임 海 | |
| 37) 뱅이잣도 : 1071 - 4 전 일대 | |
| 38) 비둘기동산 : 380 - 1 전 일대 | |
| 39) 비렁고지 : 622 - 1 전 일대 | |
| 12) 바다를 뜻함 | |

- | | |
|------------------------------------|-------------------------------|
| 63) 우금포 : 108임 海 | 76) 진지리왓 : 603 - 2 ~ 608 전 일대 |
| 64) 웅보릿도(움모르도) : 819 전 일대 | 77) 진소 : 401 전 川 |
| 65) 웃동네 : 장성동 | 78) 처드르 : 978 묘 일대 |
| 66) 유지남괴 : 산 | 79) 초기 산 : 산 |
| 67) 장귀도 : 773 전 일대 | 80) 칼드리 : 1022임 川 |
| 68) 장성동 : 아외남발 윗동네 | 81) 큰내 : 효돈천 |
| 69) 장아리왓 : 399 전 일대 | 82) 큰당 : 1533 전 |
| 70) 잣꽃내(앗꽃내) : 26임 일대 | 83) 큰방(큰방등을) : 671-3전 일대 |
| 71) 재수장 : 1070 - 3임 일대 | 84) 폐생이동산 : 105 - 2 전 일대 |
| 72) 절왓 : 378 - 4 전 일대
(절 이서난 디) | 85) 학림동 : 1670 - 3 전 일대 |
| 73) 조물곶지 : 4 전 ~ 57 전 川 | 86) 한지내콤 : 381 전 川 |
| 74) 지귀도 : 섬 | 87) 황개 : 70 - 1임 일대 |
| 75) 직새(直舍) : 1723 전 일대 | 88) 허풋갯동산 : 593 - 5 전 일대 |

* 본고에서 /외/의 표기는 [we]의 重母音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본 조사에 협조해 준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 무 생(여, 71)	양 홍 기(남, 50)
김 종 수(남, 55)	오 신 옥(여, 79)
안 시 봉(여, 77)	오 정 숙(여, 73)
양 계 화(여, 66)	현 계 월(여, 65)

民 謠

目 次

I. 勞動謠

1. 땃 돌노래
2. 방아노래
3. 흙덩이 바수는 노래
4. 밭 밟는 노래
5. 거름 밟는 노래
6. 꿀베는 노래
7. 김매는 노래
8. 타작노래
9. 보리 훑는 노래
10. 마소 모는 노래
11. 벼틀노래
12. 톱질노래
13. 땃 노래
14. 땃목 짓는 노래

II. 儀式謠

1. 달구노래
2. 행상노래
3. 진토굿파는 노래

III. 타령類

1. 서우젯소리

IV. 童謠

1. 動植物謠
2. 天體氣象謠
3. 諷笑謠
4. 遊戲謠
5. 語戲謠
6. 자장가

南濟州郡 南元邑 下禮里 민요 조사에서는 勞動謠・儀式謠・타령類・童謠에 걸쳐 採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勞動謠는 이번 조사에서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요 제보자들의 강인한 생활력을 엿볼 수 있었다. 童謠는 하례국교 어린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採錄하였다.

採錄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자체가 자료로서의 값어치가 없는 경우는 제외했으며, 표기는 제보자 발음에 따라 제주어 표기법시안에 충실하도록 노력했고 어린이들이 부르는 童謠인 경우는 표준어법에 준했다. 지면 관계상 사실만 소개하고, 現場論的 調查方法에 따른 口演狀況, 提報者 解說, 辭說 註解의 明記는 생략한다.

I. 勞 動 謠

1. 맏돌노래

1-1

이여이여
이여 동하라
말아니하라
말도ㄴ난
세로흔질
놀레모른
나신디레
〔청취불능〕

무산디레
물도ㄴ민
넌들미영
살아신들
어서죽어
흔의몸이
눔의울도
눔은아니
내사설와
울영가고
자식생각
내신생이
저민물도
미영간들
저영간들
갈적이랑

이여동하라
이연말도
말아니하라
눔이나오는
올레로오라
애기네덜아
베우레오라

베메듯히여
여희나난듯
여히문골려
살을메엇듯
흔으로가라
열린땃하민
내울엔하느네
울어라마는
너무나운다
울영올때는
으뜸이훈다
저리레가문
귀에레든다
미역에가문
저역에가랴
가노라하문

濟州島部落誌(Ⅰ)

울적이랑
힘도엇이
이메 높고
저산높고
깜깜메러라
높이 나말른
서울이러라
어떻게서울
열놈이먹어
서울애덜은

오노라호마
이메 나절로
저메 로가난
강산에덜은
강산ㄱ티랑
늪어지면
서울서울
훈숯밥을
천리사는
서울이러라

(고태평, 여 · 67)

1 - 2

A 이여이여어어어

이여동호라

B 이여이여

이여동호라

이여동호라

A 이여이여어어어

이여동호라

B 이연말도

말아니호라

말아니호라

A 늪어가민어어어

몸이나

B 늪어가난

몸이나

세로훈질

놀레로가라

A 설운어멍

날은나멍

놈은

아니남테가

B 기영제기

아니굴민

못굴리야

A 이여이여어어어

이여동호라

B 이여소리

나는불른다

나는불른다

A	눈물속에 시새와노라	절르왕
B	시새와노라	시새와노라
A	전성궂인 놈의옆이	내몸은 간보난
B	전성궂인	내몸은
A	시어명은보난	전복넋이
B	시어명은보난	전복넋이러라
A	시아바님은	구쟁이넋이
B	시아바님은	구쟁이넋이
A	시누인보난	구쟁이넋이
B	시누인보난	구쟁이넋이
A	서방님은보난	물꾸럭넋이
B	서방님은	물꾸럭넋이
A	아고설운 자람시난에	애기야 살을메낫저
B	[청취불능]	살을메난다
A	부모떡장울엄 설운나딸	말을새경마는 울엄날쌔시아
B	호호호 호호호	울어 날새여간다
A	울음에 놈이키워도	떨구왕 살을메웃나
B	소낭에 놈의 두린아덜	브름광 입대고 살을메엇다

(A : 안시봉, 여 · 77, B : 고태평, 여 · 67)

2. 방아노래

2-1

이여이여
이여방이
즈낙이나
본디즈낙
오늘이엔
이여이여
가시오름
식콜방에
식콜방에
우리성제
다솜콜도
이여이여
이연말도

이여동하라
ㄱ들베짚영
붉은때하라
어둡는집의
붉은때하라
이여동하라
강당장칩의
문더꺼놓왕
새글럼서라
삼성제강
새맞아온다
이여동하라
말아니하라

(안시봉, 여·77)

2-2

A 이연이연
이여동하라

B 이여이여
이연말은
A 이연말도
말아근하라

B 눈물소에
A 이여하난
이연말도

이여동하라

이여동하라
눈물이난다
말아근하라

절르와논다
눈물이러라
말아니하라

- | | | |
|---|-----------|--------|
| B | 오름엿들광 | 지세어멍은 |
| | 등글당도 | 살을메 난다 |
| A | ㄱ 랑좁쌀 | 늑엇이먹영 |
| B | 눔의첩광 | 소낭귀들은 |
| | 소린나도 | 살을메 엿나 |
| A | 눔의어멍 | 말엇이살라 |
| | 눔의어멍 | 말엇이살라 |
| B | 질ㅈ집이 | 도실낭싱건 |
| | 씨냐드냐 | 맛불인셔도 |
| A | 나소리랑 | 물넘영가라 |
| | 나소리랑 | 산넘영가라 |
| B | 지세어멍이 | 직ㅎ렌ㅎ난 |
| A | 조상뒤엔 | 나소리마저 |
| | 설운애기 | 소리엔ㅎ게 |
| B | 서울독이라근에 | 목소리좋아 |
| A | 물도산도 | 쉬넘지말아 |
| | 요짓올레 | 쉬넘영가라 |
| B | [청취 불능] | |

(A : 오신옥, 여 · 79, B : 김병은, 여 · 69)

2 - 3

- | | |
|------|-------|
| 이여이여 | 이여동ㅎ라 |
| 이연말도 | 말아니ㅎ라 |
| 이여이여 | 이여동ㅎ라 |
| 이연말도 | 말아니ㅎ라 |
| 가시오름 | 강당장침의 |
| 씩콜방에 | 새글럼서라 |
| 우리성젠 | 삼성제드난 |
| 다솜콜도 | 새맞암서라 |

이여이여	이여동하라
이연말도	말아니하라
즈낙이나	붉은때하라
본디즈낙	어둡는집이
오늘이엔	붉은때하라

(양계화, 여 · 65)

3. 흙덩이 바수는 노래

3-1

어허두더럼	부서지라
어허두리야더럼	어허더럼아
요놈의병에	얼마나쌌영
나얼먹이젠	아니부서점시냐
어허두더럼	어야더럼
더두럼마	부서지라
어허더럼	

(강무생, 여 · 71)

4. 밭 밟는 노래

4-1

어려려려려 어려려려 어려려려 어려려려 아 올덜덜 어리로구나
어어어에 어려려려려 어려려려려 아 올덜덜

이제랑 초벌겉화져시메 이겉앗당 뿌리라 올덜덜 이것 뿌리젠호민 또
일기보난에 정식잡앙 뿌리라

정식잡앙 뿌리젠호민 올덜 혼춤심엉 열두번 놀려사

옛날어른덜말씀이 혼자국에 혼방울씩 들어간단다.

이제라그든 씨뿌려졌거든에 질서로걸좌사 질서로 혼번걸좌야혼다 아
올덜

저레떨어지는 송아지덜 딜여몰라 혼더레 뭉청걸어사 고루불라진다 아
올덜

절서로걸좌시메 이제랑 고루걸르라 오오 고루걸좌근에해똥 밧불러사
조도읍고 막뎡이 풀어보멍 또 불리라

조이라근에 나거든 막뎡이랑 풀엿내비고 오오야 여름이랑 열거든에
무췌여름 올라

천석만석을 디리게 제석할망이 몬 시켜줍서 제석할망 그릇은 시계
 좋게 모밀도 아 올덜

제석할망 그릇은 시계줄것 굶을것 다알아진다.

반사발이 넘짓호민 무게가 좋고 너미ㄱ득아도 넘어비영 아니된단다.
막뎡이 질러보멍 불리라 막뎡이 데와지게 불러사 여름이나 혼다.

(고태평, 여·67)

5. 거름 밟는 노래

5-1

어려려려 호호호호호호 어려려려려 호호호호호호 어려려려려 어려려
어려려려려 아 올덜

굿드레 볼트지탈앙 가운디레 볼트라 이놈외 송아지들 걸름신디가민
종에 아프카부멘 바깿덜로 돌아남시네

어려려려어려 어려려려어려 아 울덜덜

흔저 씨가 맞어시메 또 이레흔저 보리씨덜 뿌리라 흥쑼 씨게덜
뿌리꼭흥라

어려려려어터려

저레가는 송아지 이거보라 저 바깿덜로 감시네 호호호호 아 울덜덜

우리집 감종아시메 보멍덜 뿌리라 굿도 아니줄거미는 저리무신 눈
들 돌아시아

(고태평, 여·67)

6. 끝베는 노래

6-1

A o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 어와아아 어어
어도 산이구나 저멍에는 어어어어 어어어어 아아아아 산이로구
나

B 나도 숨쭈라 오 호호호호 못헐로구나마는 오오오오오오 요놈의
출도 혼자 비여 흥애로다

A 저멍에도 어와 어어어어 어와아아 흥애로다 오오오오오오 저멍
에도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요웨아아 산이로구나 아아

B 늑은이도 [청취불능]

나는 숨쉴랑 어땡 혼번색이나 학지도 못학키여

(A : 안시봉, 여 · 77, B : 고태평, 여 · 67)

7. 김매는 노래

7-1

- | | | |
|---|--------|--------|
| A | 어기여랑 | 사데로다 |
| B | 고태평이 | 할마니도 |
| A | 앞명에랑 | 들어나오라 |
| B | 후소리랑 | 반아내쿠다 |
| A | 어기뒷명에랑 | 나고나가라 |
| B | 어기여랑열도 | 사데로구나 |
| A | 아고기여랑 | बाट로다 |
| B | 검질짓고 | 골눗인बाट |
| A | 방에쫓듯 | 물지듯호민 |
| B | 곶은췌로 | 여헤멍메게 |
| A | 가요못갈 | 지세어멍조낙 |
| B | 보름엿들광 | 소낭괴브름 |
| A | 소리낭에도 | 살을메웃나 |
| B | 오름엿들은 | 등글다도 |
| A | 아고기여랑 | बाट로다 |
| B | 팔을맹근 | 나거든나는 |
| A | 살져살고져 | 이멍에살져 |
| B | 놈의첩광 | 낭개호라 |
| A | 소린나고 | 사람이적다 |
| B | 아고두리여 | 더럼마 |
| A | 더럼소리는 | 생산이좋아 |
| B | 더럼소리는 | 생산이좋아 |

A	응흐으두리여	더림마
B	아고두리여	더림마
A	설운어멍	나나서나랜
B	잘나든못나든	남조로나흔번
A	나거든에도	남조로나서
B	남조로만도	흔생이엇구나
A	나거든에	군조로나서
B	놈의흔을	내몸에흔디
A	놈의군조	몸에나나라
B	놈은아니	울어라마는
A	어멍진대랑	날자랜흔민
B	내사그안에	엉허야흔다
A	아침조때에	사데요마론
B	얼숙설와	설움이설와흔다

(A:안시봉, 여·77, B:고태평, 여·67)

8. 타작노래

8-1

- A 어야흥
- B 어야흥
- A 어야도 하야
- B 어야도 하야
- A 어야흥
- B 어야흥
- A 어야도하야
- B 어야도하야
- A 어야흥
- B 어야흥

- A 어야도하야
B 어야도하야
A 요눔도맛을눔
B 요동산저동산
A 요눔도때릴눔
B 어야홍
A 어야하야 요눔도 때리라
B 어야하야
A 요눔저눔 맛을눔많네 높이들리라
B 좇갱이에 독새기품지말아
A 어야하야
B 어야하야
A 어야홍
B 해는 일루제 혼므루라 어야도하야
A 족게춤으라 혼손에랑 즈직 즈직 때려나봐
B 혼손에랑 즈직놓아
A 어야도하야
B 요눔맛을눔 어야도하야
A 요눔산저동산
B 어야홍
A 요눔맛앙
B 낭도내라
A 아프건 날라가라
B 요눔저눔 저까짓거 아궁이에나
A 때릴눔많네
B 어야도하야
A 어야도하야
B 옛날옛적에
A 어야홍

B 신민판에 가랴난

A 어야도하야

B 도깨위에 걸러정 베설 문 끈쳐져

A 어야흥

B 혼손으랑 혼쌀 들어나노라 높이하라

A 혼손으랑 늦인노라

B 데씨라보져

(A: 안시봉, 여·77, B: 고태평, 여·67)

9. 보리 흉는 노래

9-1

어야두리야

요놈의보리

감비역도

요놈의보리

홀타나지라

혼번혼건

빨리빨리

어서두리

요놈의보리

감비역도

이보리

줍아내라

허꺼지게

보리도

산이로구나

홀타나지라

하저

요놈의보리도

혼저비도

혼번씩까라

줍아내라

더럼마

홀타지라

하저

허꺼기개말앙

홀타나지게

줍아내민

홀타접내

(고태평, 여·67)

9 - 2

- | | |
|------------|---------|
| A 어허두리여 | 산이로구나 |
| B 어허두리 | 산이로다 |
| A 요놈의보리 | 홀타지라 |
| B 요놈의보리 | 홀타간다 |
| A 허꺼지게말아근에 | 줍아나내라 |
| B 스르릉슬짝 | 잘홀타진다 |
| A 허꺼지게 | 줍아도내난 |
| B 보린아니 | 만당거리나 |
| A 등치길에 | 몬허꺼접네 |
| B 스르릉슬짝 | 잘넘어간다 |
| A 훌번둥기건 | 뒤로후후빠라 |
| B 요놈의보리 | 잘홀타점저 |
| A 아고까민 | 무사영도하니게 |
| B 훌손이랑 | 즈직즈직 |
| A 어마진중 | 아구못ㅎ키여 |
| B 어마진중 | 버칠소냐 |
| A 설놀이난 | 버천못ㅎ키여 |
| B ㅎ당말민 | 놈이나웃어 |

(A:고태평, 여·67, B:양계화, 여·65)

10. 마소 모는 노래

10 - 1

이러이러러이러이러 어리로구나
 요놈의 송아지야 재기걸라. 해는 보난 일락서산에 해 떨어져가는데
 이러이러러 재기걸라 요놈의 송아지야
 이러러러이러 마마갓백케위에서 드골락드골락 구루마소리 이러러이러
 이러러러 이러러러러러

(고태평, 여·67)

11. 베틀노래

11-1

옥낭간에
그우이
웨젓기랑
팔즈긋인
이믓근
좁은목에
너른목에
잉앳대랑
찌끄레기
두룽머리
잉앳대랑
살아실때에
올락내력

베클눔앙
겉터앗앙
좃혀겉엉
우리집은
와락차락
베락치듯
번게치듯
올락내력
가락오락
깨끌깨끌
우리낭군
케기나끄는숨씨

(오신옥, 여·79)

12. 톱질노래

12-1

놀퍼들라
요네낭근
질기고
요네낭가
가옥이나
아고
질기고

놀퍼들라
무슨낭고
여리든
요네낭아
조룩이나
낭도
여리다

칼로	물베듯이
슴닥슴닥	넘어사라
먹통줄을	가는산골
어서빈정술발라	베껴나보라
요낭이사	오려근에
우리큰아들	집짓어주시요
오호후야	눈독헛가
무신거나	될거니
빈집판	오렴고나
오호후야	집짓어노려
어기야디야	산이로오호
산이로구나	어허산이로구나
오늘날로	몸을갈라
몸을갈라	대령헛라
대령헛라	어마진중
버칠소냐	산에가난
살장귀소리	오호비여훈다

(고태평, 여·67)

12-2

선병ㄹ뜬	요네연장
놀퍼들라	놀퍼들라
서두리더럼이야	요네연장아
놀퍼들라	놀퍼들라
요낭은도	무슨낭이여
낭근아니	물뚝비낭
쫓각이나	무슨자국이냐
질기고여리던	요낭기로구나
낭근아니	물뚝비로

문탁문탁

낭즈르던

가늠을삼고

양끗잡아

아고툼도

지동ㄴ슴을

물착물착

나는소리

먹통줄로

어화두리더럼이여

ㄴ친듯이

ㄴ시랏져

오려나보게

잘넘어간다.

(고태평, 여 · 67)

13. 뱃 노래

13 - 1

A 여기여차

A 이여싸

A 이여차소리

A 닷올려놓고

A 산에해도

A 놓아나보라

A 이여싸

A 이물에는

A 이사공아

A 고물에는

A 적거리로

A 배를돌고

A 한이러라

A 치나발리라

A 이여도디여

A 쳐라디여

A 이여디

A 이여라져라

A 총각차라

B 여기여차

B 이여싸

B 이여차소리

B 닷올려놓고

B 산에해도

B 놓아나보라

B 이여싸

B 이물에는

B 이사공아

B 고사공아

B 이여싸

B 이여싸

B 이여싸

B 이여싸

B 이여도

B 이여싸

B 이여디

B 이여싸

B 총각차라

A 물에들게	B 물에들게
A 장석따라	B 장석따라
A 서리나가게	B 서리나가게
A 총각차라	B 이여싸
A 물에들라	B 이여싸
A 정굽이천	B 이여싸
A 그물에탄	B 이여싸
A 수심바당	B 이여싸
A 들고나보니	B 이여싸
A 은과금이	B 쌓엿건만
A 높은낭게	B 높은낭게
A 열매로구나	B 열매로구나
A 이여디	B 이여디
A 쳐라저어	B 쳐라저어
A 훈묵이랑	B 훈묵이랑
A 오래못가	B 오래못가
A 열미못가	B 열미못가
A 이여디	B 이여디
A 쳐라디	B 쳐라디여
A 해천영업	B 해천영업
A 내운눔아	B 내운눔아
A 이여나갓나	B 천년이나
A 원수로다	B 이여라쳐라

(A:고태평, 여·67, B:안시봉, 여·77)

13-2

이여사나	이여도사나
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떠밋되	화장나야
물때나점점	다늦어간다

濟州島部落誌(Ⅰ)

이여도사나
 어기야저어
 울거로몰라
 원수로다
 내운놈이
 설운어멍
 어떤날에
 요영업을
 아고야저라
 밧잘갈기는
 노님이여
 쳐라저어
 이여디여
 아고저라
 글잘쓰기도
 노님이여
 요내팔즈
 요내팔즈
 훈묵이랑
 꿔어나지면은
 남쪽놈아
 이여도사나
 꿔어나지면은
 가시나무
 쳐라저라
 적거리로
 나손에서
 쳐라쳐
 애기베거든

쳐라저어
 어기야디라
 정수로다
 해천영업
 원수로구나
 나요것시킬적에
 나냥아된
 시키던고
 담배들러
 농부홀일
 이여도사나
 이여치여
 이여도사나
 붓대나들러서
 서울선비
 이여디여
 기박도호구나
 쳐라쳐라
 요내정드레베끼
 부산항구
 없을소나
 요내상착
 부산공장
 없을소나
 가시나무
 요내해야
 몽그러보라
 놈의고재
 허리지닥

배지닥말앙
지닌듯호라

구분일어
쳐라져어

(고태평, 여 · 67)

13 - 3

쳐라쳐
쳐라배겨
뽕뽕배겨라
잘잘이가는
술술이가는
어서가자
배질호세
즈낙호게
삼대나지멍
농부네애비
이여도사나
이물에는
고물에는
허릿떠밋되
물때나점점
즈낙참은
정심참은
쳐라쳐
요눗맹이
몬딱놓아
지름통이나
호칠호칠
구름통이나
이여도사나

이여라쳐라
이여도
이여라쳐라
жат나무베야
술나무베야
양도따랑
훈저나지영
이여도사나
밧잘갈게
노념노래여
이여도사나
이사공아
고사공아
화장나야
늦어나가난
일어나진들
늦어나진다
〔청취불능〕
저눗맹이
살자나떠나
먹엇더냐
잘도나간다
먹엇더냐
이여도사나

바람통이나
동곳동곳
이여도사나

먹엇더나
잘도나간다

(양계화, 여·65)

13-4

잘잇거라
나는간다
육지강경허영
등등팔월
어정칠월
요내해야
타고나가자
오라허듯
안굴아불문
이별이무사
잘잇거라
어느베야
춘삼월나건
라고보자
정든고향
어딜갓나

나는간다
동물타고
또돌아올적엔
언제민오코
등등팔월
정든고향
가문연못에
정들엉
등등팔월
이별이무사
잘잇거라
내년일적
또다시타고
잘잇거라
우리강산
잘잇거라

(고태평, 여·67)

14. 뗏목 젓는 노래

14-1

A 이여싸
A 잉허어영허
A 훈저젓언

B 이여싸
B 어기야차야히
B 제기나글라

- | | | | |
|---|--------|---|--------|
| A | 벼름쳐레 | B | 물쳐레로 |
| A | 밋밋 돋나 | B | 헤에에 |
| A | 쓴물나민 | B | 동의와당으로 |
| A | 창창돌라 | B | 돌으라돌으라 |
| A | 심으라심으라 | B | 든물나면 |
| A | 서의와당 | B | 쓴물나면 |
| A | 동의와당 | B | 벼름쳐레 |
| A | 물쳐레로 | B | 허어씨히히 |
| A | 이여도사야 | B | 이여도사야 |
| A | 벼름쳐레 | B | 물쳐레로 |
| A | 십구중에 | B | 돌으라 |
| A | 십구중에 | B | 돌라 |

(A:오신옥, 여·79, B:김병은, 여·69)

II. 儀 式 謠

1. 달구노래

1-1

- | | | | |
|---|-----------|---|--------|
| A | 어허어 달구 | B | 어허어 달구 |
| A | 성주로다 성주로다 | B | 어허어 달구 |
| A | 이집성주 어드메나 | B | 어허어 달구 |
| A | 경상도 안동따헤 | B | 어허어 달구 |
| A | 제비연이 뉘을받아 | B | 어허어 달구 |
| A | 어허어 달구 | B | 어허어 달구 |
| A | 받은소챤 버리라고 | B | 어허어 달구 |
| A | 소평대평 던졌더니 | B | 어허어 달구 |
| A | 소부동이 점점자라 | B | 어허어 달구 |
| A | 대부동이 되엿고나 | B | 어허어 달구 |
| A | 어허어 달구 | B | 어허어 달구 |

濟州島部落誌(I)

A	대부동이 점점 자라	B	어허어 달구
A	청장목이 되엿고나	B	어허어 달구
A	청장목이 점점 자라	B	어허어 달구
A	대들 보가 되엿고나	B	어허어 달구
A	어허어 달구	B	어허어 달구
A	대 툽소 툽 걸어 놓고	B	어허어 달구
A	앙금소치 끌어다대여	B	어허어 달구
A	한목두목 다베여놓아	B	어허어 달구
A	어허어 달구	B	어허어 달구
A	강토를 내와놓아	B	어허어 달구
A	스르릉술 짝 느리와놓아	B	어허어 달구
A	집안정실 정히 시고	B	어허어 달구
A	우영보자 뒷면을 살피	B	어허어 달구
A	아들딸보자 청룡백호	B	어허어 달구
A	효조를 보자 앞면 살피	B	어허어 달구
A	어허어 달구	B	어허어 달구
A	강태공에 서 목시불러	B	어허어 달구
A	마당버려 올레 문째	B	어허어 달구
A	대한강소한강 다버려놓고	B	어허어 달구
A	초가삼간 집을 지어	B	어허어 달구
A	양친부모 모셔다놓고	B	어허어 달구
A	어허어 달구	B	어허어 달구
A	양친부모 모셔다놓아	B	어허어 달구
A	천년만년 살고지고	B	어허어 달구
A	에라만수 대신이로다	B	어허어 달구
A	새 집짓어 삼년만에	B	어허어 달구
A	아덜은나민 효조로고나	B	어허어 달구
A	딸은나민 열너로다	B	어허어 달구
A	물은나민 역마만되고	B	어허어 달구
A	소는나민 황소로고나	B	어허어 달구
A	도야진나민 지신 이요	B	어허어 달구

A 고양inna민 토신이라 B 어허어 달구
A 어허어 달구 B 어허어 달구
A 에라만수 대신이요

(A : 안시봉, 여 · 77, B : 김군보, 남 · 78)

2. 행상노래

2-1

A 허어허어허어 허어허야 허어허오 허어후이
허어허어허어 허어허야 허어허오 허어후이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간다간다 나는간다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일가방상 이별을하고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아버님전 피를빌고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어머님전 슬을빌고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칠성님께다 멍을빌고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태스님께다 복을빌고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쓸대ㄴ뜰 이내몸에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태산ㄴ뜰 뺨을드난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저승질이다 멀다보니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일가방상에	이별을하고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서가중대다	이별을하고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동네촌장님네	이별을하고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대문밖에	나가서니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저승이란	말이던가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동네술집이	갈적에는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친구와벗이	잇엇건만은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저승질갈적인	친구도벗도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다엇고요	적막도호도다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북망산천	태역강토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고사리그늘로	내가랜말가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아돌엇다	칭원도훈다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잘잇어요	잘가시요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나는가요	나는가요
B' 엉허야	두리로구나

(A : 김군보, 남·78, B : 안시봉 외, 여·77)

(A' : 안시봉, 여·77, B' : 김군보 외, 남·78)

3. 진토굿 파는 노래

3-1

오골오골
적군님네
일가삼삼

일어나라
모두일심
하여주소서

(고태평, 여·67)

Ⅲ. 타령類

1. 서우젯소리

1-1

아아아앙
검질짓고
아아아앙
앞명에랑
아아아앙
뒷명에랑
아아아앙
총각차라
아아아앙
이물에야
아아아앙
고물에야
아아아앙
허릿띠밋디랑
아아아앙

에헤에요
골너른밧디
에헤에요
들어오라
에헤에요
나고가고
에헤에요
물에들게
에헤에요
이사공아
에헤에요
고사공아
에헤에요
화장나야
에헤에요

얼 씨구나 좋구나
아아아양
대 천바당
아아아양
우리배는
아아아양
술술가는
아아아양
우리배는
아아아양
저놈내운놈아
아아아양
요물속에
썩엿건만은
아아아양
높은낭게
높은낭게
아아아양

절씨구 지구 좋다
에헤 에요
뒤 돌아가니
에헤 에요
잘잘가는 잣나무배
에헤 에요
술나무 배야
에헤 에요
돌앙재미 노는듯이
에헤 에요
천년이나원수로다
에헤 에요
일 망무재
높은낭게
에헤 에요
열매로구나
열매로구나
에헤 에요

(안시봉, 여·77)

Ⅳ. 童 謠

1. 動植物謠

1-1 매미노래

부알부알 내려오라

개똥범벅주마 개똥범벅주마

부알부알 내려오라
개똥범벅주마 개똥범벅주마

(고태평, 여 · 67)

1-2 씩비늬노래

불나라 물 ㄱ레 굴아다주마
불나라 물 ㄱ레 굴아다주마

(고태평, 여 · 67)

1-3 꿩노래

꿩꿩 장서방 어찌어찌 살았나
콩밭콩밭 뱅뱅돌멍
콩훈방울 콩훈방울 찍어먹으멍
그럭저럭살아요

(안시봉, 여 · 77)

1-4 게노래

신다리 신다리 개천개
신에머즘 버문개
오즘싸 곤아곤아
오즘싸라 줄각 새곤

(김선희, 여 · 13 외 7인)

2. 天體氣象謠

2-1 비올 때

비야비야 오지말라
장통बाट 물넘어감چه
명지비단 다씩어감چه

(고태평, 여 · 67)

3. 諷 笑 謠

3-1 머리 깎은 애를 놀리며

돌빡 췌빡

머리빡빡

(김선희, 여·13 외 7인)

4. 遊 戲 謠

(1) 공놀이할 때

(1)-1

영자야 뽕

어디가니 뽕

산에간다 뽕

따라간다 뽕

(김선희, 여·13 외 7인)

(2) 고무줄놀이할 때

(2)-1

예순아 예순아 예순아

너의엄마 어디갔니

너의엄마 배타고

압록강에 놀러가셨지

(김선희, 여·13 외 7인)

(2)-2

딱따구리 마이네즈

마이네즈께 끼는 맛좋아

인도 인도 인도사이다

딱따구리 맛좋아

(김선희, 여·13 외 7인)

(2)－3

장난감기차가 칙칙 달려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엄마방에 있는 우리아기한테
갖다주러 갑니다.

(김선희, 여·13외7인)

(2)－4

정이월도 가고 삼월이라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면은
이땅게도 또다시 새봄이 온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김선희, 여·13외7인)

(2)－5

망가 사랑이 넘쳐요 망가씨
오세요 오세요 내곁으로
사랑하는 내마음 몰라요
망가씨 망가씨 망가씨

(김선희, 여·13외7인)

(2)－6

이 상망상 꽃도라지 순이아저씨
어찌하여 이동네에 오셨읍니까
놀러왔지 왔지 놀러
놀러왔지 왔지 놀러

(김선희, 여·13외7인)

(3) 줄놀이 할 때

(3)－1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꼬마야 꼬마야 땅을 짚어라
꼬마야 꼬마야 만세를 불러라
꼬마야 꼬마야 종기를 좇어라
꼬마야 꼬마야 잘가거라.

(김선희, 여·13 외 7인)

(3)-2

똑똑
누구십니까
학생입니다.
학생이면 신발벗고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아기보았니
죽었어요
이놈저놈 뒤로돌아 하나 둘 셋

(김선희, 여·13 외 7인)

(3)-3

A 어머니	B 무사
A 학교	B 가라
A 선생님	B 무사
A 몇점	B 빵점
A 어머니	B 무사
A 빵점	B 공부잘해라
A 어머니	B 무사
A 학교	B 가라
A 선생님	B 무사
A 몇점	B 백점
A 어머니	B 무사
A 백점	B 나가놀라

(4) 손놀이할 때

(4)- 1

썰먹고 썰먹고 썰썰 먹고먹고
너먹고 나먹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오무라이 썰썰 오무라이 썰썰
시냇가에 나가보니 개미한마리

(김선희, 여·13 외 7인)

(4)- 2

오란다빵 사라다빵 양꼬빵 찐빵 만두빵
목마를 땀 목장우유 오렌지쥬스 코카콜라
밀짚모자 눌러쓰고 그대와 뽀뽀할 때면
나도 살짝 그대에게 사랑의 뽀뽀하지요.

(김선희, 여·13 외 7인)

(4)- 3

감자에 싹이나서 잎파리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감자

(김선희, 여·13 외 7인)

(4)- 4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드래요
샤파샤파 하이샤파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파샤파 하이샤파 친구백팔십칠년도

(김선희, 여·13 외 7인)

(4)- 5

빈대빈대	빈대뽕
가나다라	마바사
우리우리	우리는
주먹뽕	가위뽕
바닥뽕	

5. 語 戲 謠

5 - 1 꼬리따기

원숭이똥고망은	시빨강
빨강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건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건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건	하늘
하늘은	푸르다
푸른건	바다
바다는	짜다
짠건	소금
소금은	희다
흰건	토끼
토끼는	뛰다
뛰는건	공
공은	둥글다
둥근건	지구

(김선희, 여·13외 7인)

5 - 2

여우야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세수한다	멋장이

밥먹는다
개구리반찬

무슨반찬
살았니죽었니
(김선희, 여·13외 7인)

6. 자 장 가

6-1

자랑자랑
저레가는
우리애기
느네애기
아니재와주민
돈방속에
앞밭데레
뒷밭데레
앞집고냉이도
뒷집고냉이도
웁이자랑
금과옥엽
금과옥엽
물아래
가마솥티
자랑자랑
우리애기
화목맹이
일가방상
길러주라
자랑자랑
제기들으게

자랑자랑
금동개야
재와도라
재와주마
총베로걸러
들이쳐다내쳐다하다근에
훈가닥
훈가닥데껴불민
찢어먹고
찌서먹나
자랑자랑
자란애기
자란애기
옥돌ㄴ튼내애기
명지ㄴ튼애기
우리애기
동네방상
길러주라
화목맹이
웁이자랑
자랑소리가
혼저자물라

(고태평, 여·67)

6-2

자랑 자랑
우리애기
우리애긴
어서자라
일가방상
어서자랑
동네방상
어서자랑
물아레랑
우리애기
금을주면
은을주면
금중에도
어서자랑

자랑 자랑
잘도잔다
부모애기
어서자라
화목댁아
어서자랑
인심댁아
자랑 자랑
옥돌ㄱ튼
잘도잔다
너를사나
너를사나
귀훈애기
어서자랑

(오신옥, 여 · 79)

6-3

웁이 자랑
어진할마님
곤밥맥영
자랑 자랑
웁이 자랑
웁이 자랑
물아레
가마귀
훈저자불라
동네방상

자랑 자랑
애기돈좁
돈좁재와좁서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옥돌ㄱ튼내애기
준놀개ㄱ튼내애기
훈저자불라
화목댁이

일가친족
어서자라
자랑자랑
놈의애긴
우는소리
튼 줍을
웁이 자랑
자랑자랑
저레가는
이레오는
우리애기
아니재와주민
총베로
지픈지픈
드리치곡
건져내어
훈가닥
훈가닥
앞집강생이도
덜쳐든다
어서자라

화목댁이
어서자라
자랑자랑
고치먹엉
우리애기
재우는소리
자랑자랑
자랑자랑
금동개야
금동개야
재와도라
질긴질긴
걸러당
천지소에
내치곡
앞밭데레
뒷밭데레
덜저불민
덜쳐든다
어서자라

(안시봉, 여 · 77)

說 話

目 次

- | | |
|----------------|---------------------|
| 1. 호랑이가 도와준 효자 | 7. 익살꾸러기 변인태 |
| 2. 제주의 네 名人 | 8. 말 잘못해서 개똥 먹은 이야기 |
| 3. 힘 센 머슴 먹쟁이 | 9. 울산 李氏 이야기 |
| 4. 묘자리 이야기 | 10. 웃귀 烈女 이야기 |
| 5. 禮村 양집의 名墓 | 11. 蘇牧使와 高典籍 |
| 6. 使令 강님 이야기 | |

1. 호랑이가 도와준 효자

Tape 4 - 뒤

제보자 ; 양남학(남·68세) 하례 1리 662번지

조사일자 ; 1987 년 8 월 5 일

조사장소 ; 양남학 할아버지 댁

『이 이야기는 효자가 짐승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종류의 이야기인 것 같다.』

아덜이 삼형제가 이셨는데, 우로 성제는 부량헌 사름이고 맨 밑에 아덜은 효자라. 우로 성제는 술 먹고 노름하고 해서 그냥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니까 아버지하고 그 밑엿 동생은 참 기가 막힌 생활을 했다 말이며. 살질 못허니까 이제 왕족이니까 임금한테 강 청 드려 가지고 어느 씨름을 원님을 하나 벌었어. 씨름을 원님을 벌어가지고 허민 옛날에는 만기가 삼년이라서. 삼년동안 가서 사는데, 그 봉급을 모여가지고 그 후손 살 생각 해가지고 돈 천냥을 모아서 가정 올라고 허니까 이방놈이 그 원님이 와 가지고 있는 등

안에는 자꾸 나쁜 일이고 송사고 이서야 이방이 벌어먹을건디 와시민 “너희들 싸워서 뿔허겠느냐? 화해해라. 화해해라” 행 보내부난 이방이 먹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말이며. “이놈의 원님이 와 가지고 삼년 동안 날 먹을 게 아무 것도 없게 맨들아 와시니까 봉급 타가는 거나 빼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영감님 그 돈 천냥 절 빚져두고 가십시오.” “아 그래라” 해영 천냥을 빚 줬부렀다 말이며. 이젠 아덜 우로 성제는 “우리 아방 원님 살레 갔으니까니 봉급 받았오민 주겠다”고 해가지고 술 빚에 뭐 그냥 하영 해왔다 말이며. 이젠 삼년동안 돈 천냥 줬 부난 빈털터리로 그냥 돌아왔다 말이며. 돌아가니 뭐 어떻허여, 전디다 전디다 버쳐 가지고 겨우겨우 혼 일년을 전더가지고 죽은 아덜 보고 “가서 돈 천냥 받아오라” 했거든. 돈 천냥 받으 이제 가노랜 허니까, 도중에서 호랭이가 나타나가지고 호랭이가 꾸벅꾸벅 막 절을 허거든. 왜 이런가 해서 심영 그 놈을 술술 해가니까 호랭이가 막 절 꼬박꼬박 하면서 저래 간다 말이며. 조금 있으니까 포수가 와 가지고 “아까 그 호랭이 안 가더냐”고 허니까. “아! 저래 가더라”고 반대방향으로 가리켜 주니까 포수가 그래 가 버렸거든. 이제 그날 저녁 그 원에 가가지고 흐룻밤 자고 그 이방을 찾아가서 돈 천냥을 달라 그러니까, 그 이방은 어떤 피를 썼는고 허니까, 독헌 술을 맥여 가지고 술 취행 자빠지거든. 이젠 포수 빌영 죽여 두고 돈 안 물라고 했다 말이며. 그래서 약속을 했어. 이젠 돈 좇으레 가니까 이젠 “올라오십서” 우리 어진 원님의 아들이, 아드님이 왔다고 해서 좋은 술을 해다가 막 맥연. 술 막 먹언 꼬부라져 뱃다 말이며. 약속헌 포수는 쏘려고 한 오란 보니까 호랭이 안은 사름이라. “어이구! 난 이거 안 허겠다. 이 사람 죽였다가 이 산의 호랭이가 다 내려오민 우리가 다 죽는다. 이 묵을이 위태롭다. 호랭이도 안앙 다니는 사름인디 어떻게 내가 무섭지도 안행 쏘느냐?”고 해서. 경허니까 “아이! 그럼 큰일났다. 돈 천냥 물어야겠다고 해서, 돈 천냥 이자 출령 물었다 말이며. 돈 천냥을 저 아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디, 가당 보니까 큰 벼랑인디 젊은 남녀가 여자가 빠질라 그리며는 남자가 끌어댕기고 남자가 털어질라 그리며는 여자가 끌어댕기고 허거든. 왜 그런가 해서 돈 천냥 떡 부려놓고 갔다 말이며. “당신네 웬 일이요” “당신 가는 길이나 가시요” 그렇게 말하니까 정 사

연을 말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돈 천냥이 없어 가지고 죽을라고 하오”
 “돈 천냥 내게 있다” 웬 일이냐 그러니까, 돈 천냥 비시(빛이)나 가지고 이제 그 비세(빛에) 목숨을 바쳐야 하게 됐다 말이며. 그러니까 돈 천냥을 쥐 부렸어. 경하고 그 사름들은 그 돈 가정가네 그 빛을 갚았다 말이며. 이젠 또 빈털터리로 걸어갔어. 간 아버지한테 “소실이 이만저만해서 젊은 남녀가 죽는 것을 살려두고 왔읍니다”고 말하니까. “아! 잘 했다. 사름이란 선심을 써 뒤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젠 사는디, 초근 복피로 살다살다 버쳐가지고 아방이 죽었다 말이며. 아방이 죽으니까. 우로 성제는 “에! 우리 아방, 인색한 아방 잘 죽어베틸다”고 하면서, 죽어베도 밤에 드러눕 좀만 자고, 그 죽은아덜만 앉아가지고 이제 쉼게 쉼게 우노라니까, 훗 밤중에 어떤 손님이 와서. 손님이 와 가지고 “난 저 서서문 뱃긔의 사는 김서방이라는 사름인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친구가 돌아갔다고 해서 조문왔노라”고 하여. “아! 고맙습니다”고 하니까, “어떻게 장지는 마련했는가?” “없읍니다. 어떻게 장지를 마련합니까?” “평소에 나하고 친구랐는데 아무도 모르게시리 영장혈 디를 내가 결정해둔디가 시니까 송장 지영 걸라.” 지게져 아지고 그 사름이영 고치 성님 성제는 내버려두고 갔다 말이며. 가 가지고 돌리가 파서 영장을 해서. 영장을 해 두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사름은 가버리고 “여기서 붉거든 오라. 이제 어딘 줄이나 알 건가?” “예” 아 누영 자는디 붉앙 보니까 완전히 큰 부잣집 우영에 강 물어왔다 말이거든. “하 이거 큰일났구난! ” 허는디. 그 주인은 뒷날 아치기 도적이냐 어디 범허지 안했는가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훗번 뺑허게 돌아 땡기는디, 어떤 놈이 영장해영 거기 있다 말이며. 이거 심어당 패 두드릴 판이라. 이제 그 예편되는 사름은 “어째서 누굴 어떤 사름을 때리젠 햄신고?” 해서, 영행문 구멍으로 쳐다 보니까. 옛날엔 남녀를 구분하기 때문에 여자가 남저 상뎡 못헌다 말이며. 문구멍으로 영 쳐다보니까 언젠가 한 번 봐난 사름이라. “허 이상허다” 해서, 남편보고 “어떤 죄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방에 데려와가지고 사유나 물어보고 때리라”고 해서. 각시 말 들어가지고 방안에 데리고 들어 왔거든. 데리고 들어왕 보니 얼굴이 봐난 사름이라. “이상허다. 어디서 봐난 사름인가?” 허는디 생각은 아니나니, 그 사람보고 여자가 묻는

말이 “당신 어디서 꼭 봐난 기억이 있는데 당신은 우리 봐난 기억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내가 돈 천냥 지영 가다가 어떤 젊은 남녀 살려 줬는다 혹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허니까. “아 저 맞습니다. 이 집도 당신 거고 이 돈도 당신 겁니다.” 어떻게 했는고 하니까. 돈 천냥을 가정 가서 갚으니까 “어떤 돈이냐?” 허니까 “어떤 사름이 돈 정 가당 준 겁니다.” 허니까 돈 스물닷냥 주면서 이걸로 가 가지고 돈 벌어서 갚으라고. 그 오원돈 가지고 뭘 했는고 하니 꺾기 잡는 그물을 샀어. 그물을 사 가지고 꺾기를 잡는다, 어떻게 꺾기가 많이 잡히는지 그 꺾기를 잡아서 쏜 돈이 처치를 못할 정도로 막 잡아왕. 경해연 우영에다가 큰집 지서 노번(지어 놓고) 곳간 지어 놓고 그 돈을 데메도 다 데메지 못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말이며. 그러니 이 집도 당신 거고 이 돈도 당신 거엔 해 두고 나가버린다 말이며. 혼자서 그 날이 어두워도 안 오고 뒷날이 어둑어도(어두워도) 안 온난 말이며, 실지 내건가 해서 보니 돈이 엄청나게 많아. “이거 내건가? 우리 성님덜이 돈이 얼마나 쓰고 싶었나? 형님들 보고 여기 왕 돈 좀 갖다 씌운 해야겠다” 해서 올라가 가지고 형님들한테 “나신디 돈 많이 있으니까 돈 갖당 씌우” 행, 형님들한테 말했다 말이며. 어디 어디 허멍 달려와서, “이것이 다 돈입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허난 성님들은 지꺼정 좋다고 허는다, 동생이 허는 말이 “서서문 뱃긔의 사는 김서방이라고 허는 사름이 여기를 일러줬으니깐 나 그 사름한테 가서 감사하다는 인사나 해두고 올 테니까 형님들 여기서 놀암십씨” 허니까, 그러라고 동생은 서서문 뱃긔의 김서방 좇으레 가 버리고 형 성제가 돈 꺼내 가지고 돈 자파릴 허는다. 돈을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고 허멍 엽전이니까니 그냥 올래(골목) 양쪽에다가 막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 동생 죽여두고 너하고 나하고 우리 성제가 갈랑 갖자”고 해신디. 어떻게 됐느냐면 돈을 막 너무 쌓았다가 “동생 와가문 양편에서 밀려 가지고 돈에 묻혀 가지고 죽게 허자” 그렇게 약속을 해 가지고 있는디. 동생은 서서문 뱃긔의 암만 찾아봐도 김서방을 못 찾앙 돌아와서. 돌아오란 보니 성님들 두 성제가 돈 자파릴 험다 말이며 “거 형 뭐 험이파?” “하도 심심허길래 돈 자파리 험저” 영 들어오는 걸 꺾히게 밀리니까 돈이 조그만이 높으게 해야할 걸

너미(너무) 막 높으게 쌓은 걸 탁 밀리니까 가운데가 아니고 돈이 뒤터래
자빠졌어. 자기네 성제가 다 죽어부려서. 그래서 밀엿 동생 하나만 남아가
지고 그대로 잘 살았지. 경헌디 그 서서문 뱃긔의 김서방이라는 건 호랭이
라. 호랭이가 변신행 오라 가지고 ㄹ리쳐(가르쳐) 준거주.

2. 제주의 네 名人

Tape 4 - 뒤

제보자 ; 양남학 (남 · 68 세) 하례 1 리 662 번지

조사일자 ; 1987 년 8 월 5 일

조사장소 ; 현회순 할아버지 댁

『이 이야기는 제주도의 네 명인에 대한 것으로 대부분 문곡성에 대한 이
야기만 많이 전하는데 네 사람 모두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로 매우 흥미로왔
다. 주내용은 제주의 세 명인이 서울에 가서 겪는 이야기이다.』

양보성은 양무성이고, 문곡성은 문영후고, 고전적은 고흥진이고, 월계 진
좌수는 진국태해서 이것을 스절이라고 했지. 우리 제주도 스절이라고 했지.
이 사람들이 처음 서울에 가자고 그래서 가는데 그 대감네 집의 하인놈이
“남방으로 멍인 세 사람이 옵니다” 이래서. 경헌니까 날이 저물어 가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제 사랑에 청해 들어가서 저녁밥을 주고서 대감이
나와 가지고 “자네네 뭐해서 사는가?” 허니 이제 고전적은 “예, 저는 지
리서 짝이나 봤습니다” “그럴테주” “진국태 진좌수는 그럼 뭐하는가?”
“동의보감 짝이나 봤습니다.” 문곡성 보고는 “뭐하는가?” 허니 “복술
이나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감이 시험해기가 목적인데, 뒷날 고전적을
데리고 자기가 신호지지 땅에 가서 ㄹ리쳤다 말이여. 제자리에 강 툇허게 앉
아놓고 “여기 어디 혼밧의 혈 만한 데가 없는가?” 이러니까 고전적이 허
는 말이 “대감이 일어서야 보겠습니다.” 일어서 부니까 거기다가 쇠 붙여
가지고 “여기가 조습니다” 이러니 대감이 “그래 너 밥 얻어먹어 살겠다.”
돌아오란 옛날 엽전시대 엽전 일곱뼉을 돛대양으로 툇허게 덮어놓고 문곡성

을 불렀어. “여기 뭐 들어 있느냐?” “통천 일곱늪이 들어 있습니다.” “너도 밥얻어 먹겠다.” 월계 진좌수보고는 대감이 그때 메뉴리가 아팠는디, “이제 우리 자부가 아팠는디 뽕 진찰해 주겠는가?” “해 드리겠습니다.” 메뉴리한테 가 가지고 제주서 멩의가 왔는디 진찰허랜 허니까, “죽으문 죽었지 제주도 사름허고는 진맥을 못 허겠습니다” 허거든. 경허니까 대감이 나와 가지고 “진맥을 안 허고도 뽕을 볼 수 있는가?”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는가?” “춤실을 환자 손목에 좁아 매고 꼬트머리만 앓다 주십써.” 경한 메뉴리신디 간 춤실을 헐허게 즐라매 가지고 꼬트머리만 앓다 주니 그 메뉴리가 생각허기를 아무래도 제주놈 진맥을 허게 됴직 허니까 그 실을 클러 가지고 정동화리 다리에 즐라맷다 말이여. 게난(그러니까) 진국태가 영진맥해 보고 대감보고 “자분(자부는) 안 살겠습니다.” “어째서 안 살겠느냐?” “사람의 맥으로 나오지 아니허고 통천 맥으로 나옵니다.” 경한 메뉴리 방에 가 보니까, 이젠 정동화리 다리에 즐라맷다 말이여. “너도 그만 허민 밥 얻어 먹어 살겠다.” 바로 그들이 멩인들이랴지. 게난 또 양운성이는 원래 무관인디, 보성군수 해먹었지. 전라남도 보성군수 해 먹었는디, 효재고 얼굴이 잘 났어. 중군에 나시면은 어영대장 고슴이라고 해났주. 양운성이는 거주 살았다고 허는디 사냥을 했다고 해. 평소에 무관이니까, 사냥을 해서 짐생을 잡아오면은 아버지네 집에 혼 머리 잡아오민 갈라서라도 보내고 두 머리 잡앙 혼 머리라도 보내고 허는디, 양운성이는 어머니는 돌아가 버리고 죽은어머니허고 살았다 말이여. 죽은 어멍 동생도 있었고. 반찬을 보내니까 죽은어머니가 자기네 아덜 다 쥐불고 아방안티는 안 보냈다 말이여. 경허니까 이제 아방은 아들보고 “너 사냥해당 먹으면서 반찬도 좀 아방안티 안 보내느냐?” 했다 말이여. 경허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ㅁ만이 앓았다가 목으로 피 탁 토행 죽었다 말이여. 경해도 글피 후제 영장을 해신디, 영장 행 일개월만에 거주지방에는 양반이 많이 나는디, 거기 현훈장이라는 어른이 질 가당 보니, 딱허니 질에서 양운성을 만났다 말이여. 거 영훈이지. 만나니까 깜짝 놀래거든. “거 자네 보성이 아닌가?” 했거든. “예, 그렇습니다. 훈장님 들어보십써. 제가 고기를 사냥을 해다가 아버지네 집에 반찬을 보낼 것 꺾습니까, 안 보낼 것 꺾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럽게 울거든. 억울해서 죽었다 이거지.

3. 힘센 머슴 먹쟁이

Tape 2 - 앞

제보자; 양남학 (남·68세) 하례 1리 662번지

조사일자; 1987년 8월 4일

조사장소; 양남학 할아버지 댁

『장사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마다 거의 한두 마디씩은 전해 내려오는데 이 마을은 없는 듯 했다. 그러면서 의귀리의 장사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주도 대부분의 장사 혹은 거인 설화에서 대부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굶어죽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㉔: 힘센 사람도 이서났던 허는디 이 맛을 사람 아니라도 예, 아는 얘기 이시민 얘기해 줘서.]

의귀리에 있었던 허는 힘센 사람은 머슴이었는데, 의귀리의 장밧 경주 김칩이 머슴이 이서서. 조천 사람이 의귀리 오란 배를 짓는다, 식량이 부족했던 모양이라. 그 장밧디 가서 식량을 얻어 먹으면서 배를 지었는데, 배를 다 짓고 육지로 상사를 나갔어. 올 때 보리를 사 와 가지고 신세진 사람한테 곡식 값 받아가라 허니 그 장밧디서는 머슴보고 가서 보리 훔 집만 저오라 했던 말이여. 배는 조천포구에 매었는데, 배안에는 보리 서른 다섯 가마니가 이서서. 그 머슴은 보리를 지는데, 서른 두 가마니는 등에 지고 훔 가마니씩 양손에 들고 훔 가마니 입에 딱 물고 배에서 내려오니까, 배 임재가 하는 말이 머슴보고 “고치 뒤따라 가 보다가 버치거든 해 냉겨 버리고 안 버치거든 내버려라” 했다 말이여. 장밧머슴이 서른 다섯 가마니 보리를 지영 오다가 벤을 보고 싶어 허는디, 이게 가관이여. 그 서른 다섯 가마니를 짐진냥 앉아서 벤을 봤다 말이여. 따라오단 머슴이 그걸 보고 겁 낭 돌아가 버렸어. 경행 돌아간 “가당 짐 진냥 아잔(앉아서) 벤을 봅디다” 허니까 “내불라.” 짐작할만하지게. 보리 서른 다섯 가마니를 짐진냥 앉아서 벤을 봤으니까. 경해연 오다가 시장끼가 도니까 산중인디 저 쪽에 연기가 나거든. “저기 불 이신거 보난 사람 살암실거라” 하면서 경 오단 보리 서른 다섯

가마니를 부려 놓고, 머슴이 어떻게 허냐 허민 옛날에 옷이 적삼 아니라게. 그 적삼을 벗어 가지고 전대처럼 몸에 졸라 매서. 그 속에 보리 혼 되쫄은 놔 그네. 다시 말해서 옛날 동냥바치 모양으로 맨든거지. 발은 켈룩켈룩 저는 체 허멍, 연기 나는 딜 가서. 가 보니까, 거긴 도적놈덜이 소 잡아먹는 디라 말이며. 그 사람덜에게 말하기를 “얻어 먹는 사름 왔수다” 이랬거든. “뭘 허다가 이런 산중에 왔느냐?” “넘어 가다가 연기 나길래 사름이 살 암신가 해서 왔수다” “거 괴기 혼 빼 조불라” 소 혼 빼를 앓다 주니, 빼고 머고 다 먹었던 말이며. 그것도 생차로 말이며. 그러니 또 “혼 빼 더 주라” 했다 말이며. 혼 빼 더 주니까 그것까지 게눈 감추듯 다 먹었어. 그걸 보고 있던 두목이 허는 말이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심부름 해라” 하니 “예, 경허쿠다.” 했어. 그 케에 살면서 케 안을 뽕뽕하게 허는 일을 했거든. “케에 불을 살르라” 하니 작은 낭이영 죽은 낭이영 몽땅 봉가다가 불을 때는다, 이제 불이 과랑과랑 크게 됐다 말이며. 영 옆에 보니까, 파랑헌 큰 풍나무가 허나 있거든. 그것을 폭 좁아 매니까 매지거든. 풍나무의 발은 요렇게 갈래갈래 퍼지거든. 발로다가 불을 케안으로 막 붙아부렸어. 게난 산적놈들이 다 불탕 죽고, 거기 있는 케기를 먹을 만큼 먹언, 이젠 보리 서른 다섯 가마니를 지연 집에 내려왔다 말이며. 어른이 허는 말이 “너 오다가 잤힐 짓했지?” 하니 “아닙니다. 그런 일 안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조금 진작을 허는 모양이라. 아무리 산적이라고 호여도 사람을 멧 갠 죽여시난 큰 일은 큰 일이니까. 그리고 장밋뚱이 지금의 화순에 시집을 갔는다, 홍수가 터져 가지고 논밭이 다 씻어가 버렸어. 뚱이 친정 아버지한테 와 가지고 “아버지 저 먹쟁이 허썰 빌려십썸.” 그 머슴 이름이 먹쟁이라. “뭘 허겠느냐?” 하니, “논밭 다 씻어 가 버린 흙덜 해 늦썸 (농으려고) 마썸.” “게민 빌려 가라.” 조반 밥을 안 줘 가지고 대정 강 얻어 먹으라 했거든. 이 사름은 여깃 말로 혼 말 곡식을 혼 번에 줘야 배가 부른덴 허여. 대정 가니, 밥 혼 술 허여 준다 말이며. 밥 먹어 가지고 그냥 밭디 강 자버렸어. 그러니 시삼춘되는 사름이 말 허기를 “어디 일 헐 사름은 왔젠 허는다, 어찌 일을 안 햄신고?” “아까 갔수다.” “밭디 강 보난 원 일 허는거 님지 안해라” “게도 갔수다” 여깃 말로 혼 세시쫄 되영 가 보니까, 하늘이 부영 했어.

옛날에 삼이라는 것이 낭갈래죽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들었거든. 잡아 캐우려 가는데, 하늘이 부영현 정도로 말이며. 혼 다섯시쯤 되니까 다 해 가지고 왔는데, 거 오죽 매정헌 사름이라. 밥 혼 솥 해영 쥐불꺼지. “저녁이랑 옷귀강 먹으라.” 의귀리보고 옷귀리라고 했거든. 옷귀 오니깐 “밥이랑 대정 일헌 집의 강 먹으라.” 이젠 해볼 수 없이 산에 올라가서 궤에 살면서 소 잡아먹당 죽었던 허여. 그 궤 이름을 먹쟁이 궤엔 허는데, 자세히 알 수는 있나? 궤가 워낙 많으니까.

4. 묘자리 이야기

Tape 2 - 뒤

제보자; 양남학(남·68세) 하례 1리 662번지

조사일자; 1987년 8월 4일

조사장소; 양남학 할아버지 댁

『묘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것은 어린 자식의 효도로 좋은 묘자리를 얻는다는 내용으로 효자 설화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②: 옛날에 묘자리 잘 썩 잘 된디 어수파?(없습니까?)]

토평 오침이는 아들이 9달살 나는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는 출상을 해 가지고 나중에 출상을 허였거든. 묘자리를 봐 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며. 출상을 해놓고 이제 소상이 당해오는데, 그 어머니가 허는 말이 “너의 아버지는 존존헌 돌을 평평하게 해 가지고 그 우에 관저를 놓고 출상을 허였는데, 그냥 돌 우이 시체를 놓고 소상을 지내게 되는구나” 소상이 가까와 가니 이런 얘기를 허는데. 한 태가 지나니 아홉살이 된 아들이 “어머니 어디 가민 지사를 청해올 수 있습니까?” 허니 그때가 우리 듣기로는 북촌리라고 그랬는데 “고전적이라는 양반이 있다.” “그럼 제가 가 보겠읍니다.” 아홉살 난 소동이 상복을 입고 혼자 찾아갔다 말이며. 거기 들어가지는 못허고 올래(골목)에 강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살암서. 거기 거처하면서 아

침이민 올래에 가서 이리저리 서성거렸다 말이며. 사흘 아침을 허니까 하녀가 발견해 가지고 주인 어른한테 “어떤 상제 소동이 올래에 와 가지고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하니, 주인이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와가지고 마당에 엎드리었지. “넌 어떤 사름이냐?” 하니 “예, 저의 아버지가 죽어서 소상을 당하는데도 장사를 못해서 그저 어르신님 좀 수고를 빌어 옮겨 올려 왔습니다.” “그래 너 몇 살인가?” “아홉살입니다.” “네가 내 사위가 된다면 가서 땅 봐주마” 그런데 그 사람이 대답하는 말이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어머니는 살아계시니 어머니 허가를 받아야 될까 합니다.” “그럼 빨리 가서 어머니한테 허가를 받아오라” 집에 돌아와서 그런 말 허니까. “장개 들라. 그러나 쫄은 뺑신일거다. 뺑신이지마는 아버지 장사를 헐려든 헐 수 없는 일 아니냐! 장개 들겠다고 해라” 그래서 가서 이 사름이 장개들겠다고 해면 산터를 봐 주는데 땅을 훑어 밟다 딱 봐 놓고 저 서귀포 흥로우에 도로목이엔 허는 덩디, 거기에 땅을 봐 놓고, 삼매봉이엔 현 으름에 가 가지고 감실 허는 거라. 분무나 부귀를 겸혼덜 불러고 허는 거지. 옛날 메칠 공을 들여 가는디, 그가 아무리로 정심(점심)가정오라 허민 거기 가져가야 한다 말이며. 훑 달 계속 영 허여 가니까. 정심 저 간 사름이 투정하기를 “이놈의 집은 밥보단 장이 아까와” 훑 걸 들었다 말이며. 그날은 도로목으로 정심을가정오라고 했던 말이며. 도로목의 묘자리 강 턱 상제되는 사름앞의 앉았거든. 정심 출영 와도 아무말도 안 허영 ㅈ만이 앉았거든. 정심을 벌려 놓고 “여봐라 너는 밥사발에 영장을 허겠느냐 장독에 영장을 허겠느냐?” “밥사발에 영장을 허지 장독에 영장을 허겠습니까?” “아니다. 너네 집인 밥보다 장이 귀허다. 여기 영장을 허민 장은 충분헐 것이다.” 그래 가지고 땅을 봐 줬다고 허여. 그리고 그 사람을 사위로 삼았고 그 때 서귀포에 있는 “묵은 가름”인가 허는 디가 있는데 거기도 영장허기에 마땅허다고 했던 허여. 그래서 고전적 꼴이 거기에 묻었던 해여.

5. 禮村 양집의 名墓

Tape 2 - 뒤

제보자 ; 양남학(남·68세) 하례 1리 662번지

조사일자 ; 1987 년 8 월 4 일

조사장소 ; 양남학 할아버지 댁

예촌 양집이도 멩묘가 많이 이서. 삼형제가 부모가 죽으니, 출상을 해 놓고 구산을 허는디, 저 상호 우이 “갈락”이라고 이서. 여깃 말로 “츄름”이지. 그 앞에 어떤 사름이 앓아 가지고 줄암거든. “어떤 분입니까?” 하니 “어디 가는 사름이냐?” “자리를 좇아 가는 길입니다.” “나를 이름 우이 업어 올려라. 그렇게 허민 자리를 봐 주마” 나도 전설로 들은 애기지. 큰아덜이 업엄 가다가 버치거든. 경허연 요만치 가당 내려 왔거든. 이름이 이렇게 가까지른 모냥이라. 셋아덜도 형보단 약간 더 올라가다가 요만치 가다가 버치니까 내려 왔어. 말젠, 막내아덜이 꼭대기 7지 업엄 올라갔다 말이며. 이제는 영 쳐다 보니까. “저기 보이는 디 있지?” “예” “저기가 가지고 멩자나무 죽은 것을 훔 사름이 훔나씩 꼬집어 두어라. 꼬집어 두면 내일 아침 알 도리가 있을 것이다.” 삼 형제가 가서 멩자나무를 쫓아 두었는데 뒷날 아침 강 보니까 큰아덜 것은 조금 살기만 허고 셋아덜이 쫓은 것은 순만 뽕죽허게 나고 막내 아들이 꼬집은 것이 순이 젤 많이 나서. 경해영, 그디 영장했는디, 장파에 10명, 중파에 100명, 말파에 천명이었던 허여.

6. 使令강님 이야기

Tape 6 - 뒤

제보자 ; 현희순(남·80세) 하례 1리 709번지

조사일자 ; 1987 년 8 월 5 일

조사장소 ; 현희순 할아버지 댁

『이 이야기는 전에 읽었던 “제주도신화”의 ‘인간차사 강님’의 이야기가 축약된 것인 듯하다. 즉 같은 이야기라도 제보자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조금씩 틀리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도 그러한 예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제주군, 정의군, 대정군 해서 3군이 있고, 또 제주목사엔 허민 3군을 통치하고, 그 제주군에서 판관이엔 허민, 정의, 대제에 오민 원님과 같은 것이주. 그 때 판관 김치라고 한 사람이 이서. 쇠 금(金)字, 繼 재 해서, 김치랜 한 거 원님이시.

어떤 할망이 자식이랜 한 건 원 딸 자식 하나 매긴디, 아! 오꼳 죽었다 말이여. 딸이. 경허난 판관 원님안티 가서 “하! 난 자식이랜 한 거 딸 자식 하나 매긴디 저승채시가 오란 오꼳 잡아가수다. 하!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하고 양탈을 허는거라. 김치판관이 “허 그러냐 패쌌허다. 사령을 대령허라.” 사령이랜 허민 거 심바람부리는 하인인디, 그때 강님이랜 한 사령이 이서. “저 염라왕이 잡아가시니까니 염라왕 강 잡아오라”고, 호출장을 판관이 써 가지고 소령을 쥘서. 염라대왕 강 잡아오라고. 아! 불쌍혼 딸 하나만 있는 것을 잡아가시니, 패쌌한 염라왕 강 잡아오라고. 아! 그 소령은 염라왕을 잡아오라니 어디강 잡아올꺼여. 원! 어떻게 해 볼 수는 없고 집에 오랑 탁 문 닫고 드러누웠지. 드러누워서 그냥 죽어불자고, 밥도 안 먹고. 집에 누웠더니, 강님의 각시가 “아 왜 그러시느냐”고. 남편이 문닫고 드러누니까니 먹도 앓고 허니 “아! 밥 먹으라”고 “왜 그러시느냐”고, 하도 사정을 허니 밥 먹었던 말이여. 먹으니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해서 “거 잡아오지 안 허민 판관안티 얻어 죽을 꺼라 말이여.”경헌디 그 부인이 조왕제도 잘 허고 산신제도 잘 허난 신이 도와준 모양이라. 하루는 신이 나타나서 “한라산으로 붉은 기가 보이민 염라왕이 나타나는 줄 알라.” 허거든. 허니, 아니! 한라산이 벌경헌 구름이 일어. “정말, 염라왕이 오신다.” 오더니 그 성안더래 들어오는거라. 들어오는데 춤 무서운 하르방이 들어오는 거라. 그때는 거 영등이랜 한 도청안의 관덕정 앞 그집이지. 그전 도청해난디. 들어오니 그 판관은 앓았다가, 염라왕이 와서 “어평행 날 불렀느냐?”고 허니 대답헐 갈이 이서. 소령은 거기 사(서)있다 말이여. “거 소령이나 날 달라. 내가 데리고 가겠다”허니 소령은 여기서 심바람을 시켜

보 아주 착실하고 아까운 사람인디 앓아 가겠다고 허니 줄 거라. 경허난 염라왕이 “혼과 육체 중 하나만 날 달라” 허니까 판관은 혼은 쓸모 어실 거(없을 거) 같앙 몸뚱아릴 갖겠다 했거든. 아 경허난 염라왕은 혼을 가정 가 버렸거든. 경행 강 보니 소령은 그자 구작 산냥 있다 말이며. 주악 건드리니 그냥 이서. 거 벌써 혼은 빠가벤 죽은거라. 겨니 그 소령이 염라 왕이영 가부러찌.

[㉔: 경행 똥은 어떻게수파?]

죽어분 걸 어떨 말이라. 그냥 내불주.

7. 위살꾸러기 변인태

Tape 6 - 뒤

제보자; 현희순(남·80세) 하례 1리 709번지

조사일자; 1987년 8월 5일

조사장소; 현희순 할아버지 댁

『변인태이야기는 전에도 들어 보았지만 우리가 찾아간 할아버지께서 너무 재미있게 말씀해 주셔서 실컷 웃을 수 있었다. 또한 그 이야기 속에서 옛 사람들의 악의없는 재치를 엿볼 수도 있었다.』

지금 ㄴ트민 군 주둔지자. 왜놈들이 자꾸 오라서 침범허니까, 왜놈들 방어하기 위해서 허는 건디. 서귀포에 진이 있는데 그디 서귀포 진 안에 심바람허는 사람 변인태가 이신디. 그 진안에서 심바람허는 심바람꾼인디, 이 사람이 거짓말도 잘허고 꾀 잘허는 사람이며. 변인태가 그 진안에서 심바람허 명 빌어먹는 사람이라. 그땐 진장보고 조방장이라고 해서. 진장이 어서 오라서 이기 살면은 식스도 톤 주고 해 가지고. 모든 심바람을 다 말앙 허는디. 밥을 처음은 지영 가는디 흥썰 설 듯허게 지영 오라서. “밥이 좀 섭니다” 허니까, “설면은 내가 먹지.” 다음은 스몏 익게 행 가네 “밥이 좀 익습니다.” “익으면 내가 먹지.” 해그네 자꾸 진장이 속아 그놈안티. 혼 번은 진장이 변인태안티 “닭콩메움을 해 오라” 허니까 “예, 해오겠습니다.” 닭을 잡지 안 해 가지고 우로 터럭이영 가족이영 싹 베껴네 속음만 빼내 가

지고 쏘그배꺼(속엿것) 다 빼내두고 그디 온갖 양념을 다 해놓고 해서 다
솔마 가지고 그 뚫을 가죽 터럭 붙은 양 또 다시 탁 앓다 썩우니까 생닭 골
으거든. 앓당 드리니까 “아 이거 생닭 먹어지겠냐? 니가 앓당 먹어볼라.”
“그러믄 나 먹읍주.” 멀리도 아니 강 그 앞이서 탁 그 터럭을 영 제청 보
니 속에는 먹엄직히게 잘해 놔다 말이여. 그 앞에서 다 먹어버렸주. 해영 진
장이 속아놔다 말이여. “다시 해 오라.” “예, 다시 허겠읍니다.” 다신 올케
닭 잡지 안 해영 그냥 터럭차 그냥 갓당 솔마네 갓다 드려서. 요번거 닭으
카 부덴(닭을까 봐서) 진장이 먹젠 보니, 잡지 안 헌 닭 그냥 삶은 거라.
창지(창자) 그냥 놔서. “이거 어찌 된 일이나?” “아 므녀 거 잘못 해쥔
허건 뭐, 이번엔 그냥 삶아수다.” “허이고 아니 되겠다.” 해서 속았덴 허여.
훈 번은 이런 일이 이서서. 식사에다가 고깃국을 끓여 가지고 식상을 들러
가는데, 순고락으로 그자 진장앞이 영 상은 갓다 놓고 자꾸 고작고작 걸어
가. “거 뭘 허느냐?” “올 때 원 영 상 들렁 오젠 허난 코가 국더레 빠지
건대 그저 건져볼젠 햄수다.” “아 그거 먹을 수가 있느냐?” 했거든. 이것
도 거짓말이지. “너 먹어라. 난 안 먹겠다.” 그것도 앞에서 그냥 다 먹어
부렸지.

또 훈 번은 괴기를 거 바닷괴기를 굽는다, 불에 그슬려 가지고 시커멓게
그슬린거 앓당 드린다 말이여. 드리니까 “아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먹어지
느냐?” “어떻게 구웠느냐?” “아 불에 놔 그네 타지 안 됩니까?” “아
먼 불에 구워서 타지 않게 구워야지 이렇게 그슬려서 이거 먹어지겠냐?”
“다시랑 먼 불로 구우쿠다.” 날이 어두워 가는데 그 서귀포 진은 지금 솔
동산이랜 헌 디고, 서귀포 내 서쪽에 지금 삼매봉이랜 헌디 거기 불 썩는 디
거든. 그래서 거기서 불 썩다가 바당 멀리서부터 왜놈덜이 침범해가믄 그걸
발견시키거든. 지금은 전화가 있으니까 허지만 그때는 전화가 없으니까 불을
썩 가지고 신호했거든. 봉화 말이여. 아니! 고기를 들렁 서귀포 진 마당에
서 영 해영 고기를 들렁 사니까(서니까) “거 뭘 허느냐?” “먼 불에 고
기 구랜 허난 그 망불에 훈참은 헌디 그 불에 이거 고기 구웁수다.” 아! 먼
불에 고기 구랜허난 저기 훈참 뱃긔의 불에 영 괴기를 들었거든. 그런 사름
이주.

8. 말 잘못해서 개똥먹은 이야기

Tape 4 - 앞

제보자 ; 현희순(남·80세) 하례 1리 709번지

조사일자 ; 1987년 8월 5일

조사장소 ; 양남학 할아버지 댁

둘이 ㅁ치 울곡선생안티 강 배운 땀디. 거기가 먼디니까, 거시기 식량을
집이서 앓다당 지급허면서 공부를 허는디. 한 달에 한 번씩 양석 가지래 오
는디, 두 사람이니까니 혼 사름이 와서 두 사름 양석을 가져가거든. 두 집
이꺼. 그런데 오성이 양석 가지래 왔어. 오라네 이한음네 집에 가서 이한음
양석을 달라고 허젠. 이한음네 집에 간 보니, 탁 분을 달아와서. “사름이 이
실 건디!” 허는디. 술째기(가만히)보니까 방안에 사름이 있는 것 같아.
술째기 구멍 찌진 데로 영 배려 보니까니, 요새 없주만 옛날엔 옷에 니가일
어나서. 여자도 니 일고 남저도 상투 차고 해서 니 일어노니 막 근지럽고
허지게. 헌디 이 한음 각시가 속곳 벗어가지고 이렇게 앉아네, 니 잡암다말
이여. 그걸 보니까니 요 배또롱 아래 큰 사맥이 이서. 그걸 봐내 이제 못 본
추룩 해영 나갔다네, 기침 해 가지고 들어와서 양석 내노민 가져 가겠다고
허니까 내주거든. 가 가지고 이한음보고 “나 너네 집 양석 가지래 갔다네
너네 각시영 나 혼 번 똥당 오랐져.” “거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느냐?”
고. “아 참말이여. 뉘젠 보나네 배또롱 아래 큰 사맥이 이서라이.” 아 이
한음은 자기 각시가 사맥이 있는 처레도 몰라서. 허는디 이젠 사맥이 있젠.
“이서라. 난 낮이난 거 배려져라.” 이한음 생각엔 “새로 온 각시가 몸 허
락을 안 헐 건디”했거든. 내중에는 둘 다 이제 방학 행 집에 돌아올 땀디.
“너 이항복이 양석 가지래 오라시난 몸 허락 해줬지?” “그런 일 없다.”
“너 배또롱 아래 사막 이서랜 말꼬지 곤더라. 너 배 내와 보라. 사막 시냐?”
한음은 자기 각시 안타 사막 있는 처레를 몰랐다 말이여. 붉은 날에 그거 배
릴 거라게. 어둑을때만 봐실테주. 보니 사맥이 있다 말이여. “너 분명히 오

성이 오라시난 몸 허락해 준 거다.” 아니 이젠 허고랜 허더라고. “아 그러냐”고. “그러면 그 사름 ㄱ라 우리 집에 오란 놀겐, 집에 도랑오라. 데령오라.”고 허니까, “그리 허라.” 허니. 이항복이 집에 가 가지고 이항복이 보고 “오늘 나도 놀게 되고 너도 노니까 우리 ㄱ치 집에 오랑 놀라.” 그러냐고 끝은 동학간이고 뭐 집에 놀레 올 거라 말이며. 집에 오라시니 그 이한음 각시는 어떤 일을 했는고 허니까. 메밀 ㄱ루 해 가지고 떡을 맨들았는데, 만두떡을 먹엄직허게 다 맨들아 와 가지고 사발에다가 행 주는데, 만두떡 하나에다가 똥을 담아 가지고 우로는 편쩍허게 해영 이항복이 앞더레 갖다 와. 제일 우이 ㄱ녀 집어 먹을 걸 똥 담은 걸 우터레 왔다 말이며. 아! 이항복이는 만두떡 먹어보젠 딱 그치니까 (끓으니까) 똥이 나온단 말이며. “하 이거 뭇 짓이여.” “그런 나쁜 말 곧는 입에는 똥을 발라야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그냥 똥을 담지 못허니까 수단으로 담아 논 거지.

9. 울산 李氏 이야기

Tape 6 - 앞

제보자; 현희순 (남 · 80 세) 하례 1리 709번지

조사일자; 1987 년 8월 5 일

조사장소; 현희순 할아버지 댁

『이 이야기는 선비가 과거보러 가는 동안에 겪은 것으로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지 않으려 하다가 그런 식으로 빼 버린다면 이 이야기의 전수가 안 될 것 같아 적어 본다.』

이씨가 이제 공부할 땐디. 공부를 서당에서, 뭐 요샌 학교지만 그 땐 서당에서 서당 그 벗들이 “자 서울로 우리 과거나 보러 가자”고 해서. 공모해 가지고 가기로 허는데, 남보당 뒤떨어정 가비따 말이며. 행장 책경 오겠다고 서당에 왕 보니, 벌써 벗덜은 가불어서. 자기 혼자만 떨어전, 이젠 혼자만 갔지. 아마 서울 보디게 간 모양이지. 가다가 날이 저무니까, 걸어서 서울 다니니까, 세상에 참 거 무인처가 많으니까 무인처에 주막 하나 짓어가

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재워주는 디가 있거던. 그 주막에 들었어. 들었 하룻밤 묵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다. 호끔 있더니 어떤 영감이 물을 타고 상젠디, 방립이라고 구덕 얹은 거 쓰는 거 이서. 방립 쓰고 상복 입고 완 물 알려래 내리니까, 물 이끈 사름 호나가 “봉래방 치워라.” 해서. 안방 치워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무똥에 당도해 가지고 물 아래 노리는데 봉래방 치우라고 허니까 그 모녀 갔던 울산 이씨가 방에 있다그네 나오쟁 허니. 물 알려래 내리는 상제영감이 나오지 말라고 “우리 ㄱ치 자자”고 “ㄱ치 잡시다” 해영 ㄱ치 앉았다 말이며. 앉으니까 이제 담뱃대 해서 그자 담아서 피우거든. 담배 내주면서 담배 피우라고 허니까 담배 말앙 피우고 허는데, 날이 금새 저물어 가서. 조금 지나니까 관행이 도착했는데, 사람 혼 수십명의 관속이 가마를 모시고 와서 봉래방 치워라고 야단이거든. 그러니 그 주막 임재는 “관행이 당해가지고 봉래방 치우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봉래방 못잘 사람인가?” 그 상제가 허는 말이 “거 어떤 행이냐고 물어봐라.” 경행 주막 임재가 무똥에 나선 “거 어떤 행이냐고 물어 보라고 한다.” 대답을 안 허는데, 앞에 선 심바람허는 놈이 호나 있다가 “울산 첨사다.” 경허니, “울산 첨사라고 합니다.” “울산첨사? 울산첨사가 누군고?” “저 울산첨사 정치 잘 못허였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 끌어불라.” 그 주인이 얘기허길 “아 저 울산첨사 정치 잘 못헐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허난 ㄱ만 슬슬 헐어져부러. 경행 거 울산이씨허고 둘리 ㄱ치 앉앙 이야기하고 담배 자꾸 피우라고 허니까, 담배 쥐 피우니까, 이젠 상제영감이 “어디 가나?” 물어서. “서울 갑니다.” “서울 과거 보러 갑니다.” 허니까 “거 공부 잘 해지민. 과거도 봐야지.” “공분 잘 못했읍니다마는, 구경할라고 갑니다.” 앉앙 아주 캄캄하게 어둡은디, 잠도 안자고 얘기만 허면서 문 바깥디로 보니 창문 바깥디로 보니, 등불이 요기 갔다, 요리 갔다, 두번 허니 어서져. 경허니 그 상제영감이 “울산이씨, 뱃긋되 한 번 갔다 오시오.” 뱃긋되 나가니까 그 울산첨사가 손목을 꼭 잡고 “아이고 사람 살려 주시오. 사름 열을 죽였오. 그러니 사름 호나에 천냥씩 만냥을 드릴테니 살려 주시오.” “하 내가 뭐 사람 죽이고 살리고 어떻게 험니까? 명의로 아닌디...” “아니오. 그 양반 허고 ㄱ찌 동좌허는 사름이 조선에 누가 당신밖에 더 있겠소? 당신이면 살

려줄 거요.” 경 행 그말 끝으니, “거 누군지 알겠소?” “아 난 모른다”고 영 끝으니 “거 김병익대감 아니오.” 하 김대감 무섭다 하는 말은 들었는데 다시 들어간 ㅁ찌 앓쟁 허난 원 몸이 떨려서 고찌 앓을 수가 어서. 무서와서. “허 진정 하시오. 진정 하시오.” 담배 주니까 담배 화로불에 부칠 처랜디, 떨려가지고 원 담배 태울 생각도 어서. “경헌디 아까 뱃긔의 가난 뭐라고 말했소?” “사름이 열은 죽었다고, 열을 죽였는데 사름 하나에 천냥씩 만냥을 드릴테니 살려달라고 합니다.” “꽤쌌한 녀석, 이천냥씩 이만냥을 주어야지. 헌데 당신을 봐서 천냥씩을 감해그네 만냥만 음지라고 있지.” 요새 같으면 거 뭐, 가수표, 개인수표 이실 거 아니라. 그런 걸 써주니까 가정 들어오란, 들어오니 영 봐그네 다리 알러래 측 쫓려서. 다시 담배만 피우다가 시골 삶은 어찌고 뭐, 서울 가민 어찌고 허멍 얘기해서. 뒷날 아지긴 날이 밝으니 까 어떤 놈이 와서 “울산참사가 대감님안터 분안 드리겠다고 여쭙랍니다.” 주인이 왕 끝으니 “나는 상제다. 상제는 꿈에만 시켜도(?) 재수가 없던 헌다. 그냥 가볼라.” 원 얼굴도 안 배와돈 가부런. 이젠 펜지를 싹싹 써 가지고 자리 아래 묻어땀 음지 ㅁ찌 담고 “이 편지 가져가서 서울 가거들랑 이 편지를 주라”고 해서. 어딜로 어떻게 해서 돌아가며는 나온다고 집 방향도 다 끌리쳐 줘서. 경헌 그 대감은 알러래 내려가고 그 이씨는 서울로 갔는데, 끝은대로 이젠 그 집을 찾안 갔다 말이며. 서울 좇앙 가서 문 뱃긔의 서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부르거든. 게난 그디 머슴이 나와서 “무슨 일입니까?” 허니 “나는 누군디, 나를 청해라” 이렇게 허거든. 허면서 편질 내 주었다 말이며. 뛰어가더니 “허 대감님 편지 오셨네” 여러 사름이 나오더니 편지를 다 봐 가지고 “아이고 이 양반 언제부터 알았소?” 편지 내용은 뭐인고 허니까 ‘이 편지 가지고 가는 이가 나하고 막연한 친구니까 어느 깨끗한 방으로 잘 모시고 나 갈때까지 위해 달라. 그리고 그 음지 담은 거 그돈 만냥 좇아다가 집의 잘 보관해뒀라’ 이런 편지거든. 그래서 깨끗한 방으로 잘 모셔서. “저 이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간 앓안 보니 원 이건 세상에 지골에선 그런 집 구경도 못 헌 좋은 방이라. 강 앓으난 밥상이 들어왔는데, 시상 구경도 못 해 본 밥상이 들어와. “야 이거 참. 상이 좋다.” 훈 보름은 그기서 먹으면서 그냥 사는데, 김병익 김대감이 들어와서. 들어오면

서 “여기 저 울산 이서방 어느 방에 있나?” 거기 그 소리에 울산이씨가 나갔지. 나가니까 “하 자네 오라서 많이 고생했지!” “고생은 뭐가 있습니까? 잘 있습니다.” “아 객지에 나서면 고생하는 것일세.” 들어간 앉은나 떡 허게 방안에 앉아 가지고 그 서기허는 사름 호나 불러가지고 “이번 과거 주는디 상시관 누구로 정했다더냐?” “거 아무 양반으로 정했답니다.” “그래” 편질 쓱 써 가지고 “요 편지 그 양반안티 강 드려라. 곧 회답해 줘세 해그네 답장을 반앙 오라.” “예” 경 행 편질 앗당 드렸다 말이여. 그 편지 내용은 뭐인고 허니 ‘이번 당신이 상시관으로 뽑혔으니까, 그 때 과거 줄 시제의 시관이 글 한 수 지었을테니 그 글을 달라’는 거라. 허니 글 한 수를 딱 생각했다가 써서 봉투지에 담아서 줘서. 가정 오라네 “이 편지 당장 반앙 오랐습니다.” “이래 가정 오라.” 가정 오니 글 한 수 써 논 거거든. “경헌디 요새 이 서울 장안에서 누가 글씨 쥔 잘 쓴다더냐?” “거 아무 동네 사는 아무 청년이 제일 글씨 잘 쓴답니다.” “거 이레 불러오라.” 가더니 청년이 들어 오는데, 무서워서 상 걸질 못해, 무뚝에서 기영 들어 갔지. “예, 대령했습니다.” “오! 요새 자네가 글씨를 잘 쓴다지?” “예, 그저...” “아무날 과거 준다하지?” “예” “그날랑 글 훈 장 써 줘.” “예” “꼭 부디 잊지 말고 써 줘.” “예” “이제랑 가” 행 가부러서. 경해돈 이젠 앗앙 잘 먹고 놀 판이지. 그 날이 당허니까 “저 이서방 우리 놀레 가자. 오늘 과거 준덴 허니까. 놀레 가자. 춘당대회 구경이나 허고 놀레 가자.” 허 춘당대회 강 보니까, 그때 팔도선비들이 막 올렸어. 그제사 시제도 발표허거든. 다 글들 지으려고 영 웅크려 앗앙, 글을 쓰고 허는데, 그 글 잘 쓴덴 헌 청년이 똑 그디강 대령해 있어. 술짜기 불린 “글 훈 장 써라.” 그 날 과거 대한 글이지. 턱 댜 써 냈지. 다른 사람들은 그제사 연구행 허젠 허민 오래는디, 이 사름은 미리 적어논 거난 뭐 싹싹 써서 냈지. 그 춘당대회 질이 저 멀리 크니깐, 사름이 찌각(꽉차게) 허게 앗아노니, 그 글을 앗앙 갈수가 없어. 떡을 썬 가나신디, 그 글 쓴 종이에 떡을 싸 가지고, 이걸 던지기 좋으라고. 돌을 썬 던져서는 이거 맞아서 누구 상혈건고 허지만 딱 던졌거든. 상시관이 저만치 앗으니까. 시관 옆에는 또 임금이 앗았거든. 시관이 그걸 탁 봐 가지고 글을 고시허는데, 쥔 댜 와서 던진 게 시관 앞더레 던

저쳐서. 그 시판이 지은 글이니까. 뭐, 과거는 틀림없는 거지 도장 얼른 찍어 주고 그래노니, “허, 김대감네 사랑에서 과거가 났다”고 하니, 사방에서 축하가 이만저만 아니게 커. 허, 이게 과거 났댄. 치하한다고 해 가지고 장안화류 문 구경시켜 주고, 혼 열흘 더 살다가 “저 울산 이서방, 이제랑 집의 가지. 오랑 과거도 했고 집의 부모도 있으니까 부모도 가다림실 거고 내려가지.” “예, 가겠습니다.” “그 자네 올 때 거 돈 만냥 번 거 거 어떻허코?” “허, 제가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거 전 모르겠습니다.” “거 자네가 번 돈이지, 뭐 내가 번 돈인가? 자네가 뱃굿의 혼 번 나오랑 번 돈이지. 나 돈인가?” 허고 해도 “그래도 전 그 돈 모르겠습니다.” “음, 가정가기 불편허민 와 뒤. 내가 집으로 보내주지.” 경한 이젠 집이 그냥 내려왔다 말이여. 하 내려오니 울산첨소가 그 이씨네 집에 가서 부모에게 치하하기를 이만저만 치하허지 안해서. “당신 아들 덕분에 내가 그 때 죽을 건디 영 살아 있습니다.” 허멍, 돈도 몇 만냥 앓단 탁 바쳐주고 헌디, 이제 서울에서 김대감이 그 돈 만냥을 또 보냈거든. 그러니, 일시에 장원 타고 일시에 부자 되고 허엿주.

10. 웃귀 烈女 이야기

Tape 3 - 앞

제보자 ; 현희순(남·80세) 하례 1리 709번지

조사일자 ; 1987년 8월 4일

조사장소 ; 현희순 할아버지 댁

< 10 - I >

그것도 웃귀 사름인디, 위미리에 시집 오라서. 열 일곱살에 시집 오라 가지고 남편은 열 여덟살 난 남편안티 시집을 오라 가지고, 뒷해에는 잉태가 되어서. 허니, 동짓달 썸 되니까, 애 낳기 전에 남편이 병으로 죽어 부렀다 말이여. 죽으니까 앉아서 울면서 허는 말이 “내가 죽식을 가졌는디 이거 아덜이민 나지민 내가 살 거니와 딸이나 나지민 내 무엇을 믿영 살 거요.” 이

렇게 하면서 울더니. 정월 나니까 조식을 냈는디, 똥을 냈다 말이며. 똥을 냈는디 “똥 냈다” 영해영들 좋앙 허는디. 헌디 그만 아기한 여자가 없어. 그 열 여덟살 때 지게. 열 일곱살에 시집 오라 가지고. 그만 어서 “하, 어디 갔느냐?”고 “아기 난 어머님이 어디 갔느냐?”고 싸방에 쫓다 보니, 자기 남편 영장을 못허고 가빈을 행 이셨거든. 옛날엔 다 가빈해 두고 산터도 잘 보꼭 해그네 땔 달 후제 영장허는디. 가빈 행 있는디, 그 가빈혼 그 빈소에 가네 모가지 딱 쫓르고 그디 바닥에 죽어 부러서. 그 때 심어사가 정의골에 오란 출두해네 문 실정 조사해 가네 열너교 지어났어. 비각도 행 세우고.

< 10 - II >

저 옷귀 열너가 호나 이서 냈는디. 거기도 열너주. 남편이 죽어부니까 그자 외롭게 살아가는디, 자식도 없고 그자 외롭게만 살았지. 아니 호루는 동네에 부역혈 일이 시니, 그되 드을에 심바람 허는 사름덜이 다 부역 나오라고 재촉을 허니까 나갔다 말이며. 하니 심바람 허는 놈이 툭허게 그 여자 팔목을 영 잡아서. 잡으니까 “노라”고 허여도 도시 안 놔. 그거 홀어머이고 허난 건드려보젠 거 잡은 거지. 잡으니까 툭허게 앉아서 허는 말이 “천지지간 만물지중에 사름이라고 허는 것은 다 정헌 배필이 있는 것이다. 널 끝은 더러운 천한 쌍놈의 손으로 잡아난 손을 내가 어찌 그냥 가지고 댕기느냐” 해서, 도끼로 그냥 손목을 탁 쳐서 그만 죽어 부러서. “이 호미로 그장 피를 가지고 내가 너의 몸에 뿌리겠노라”고 해서 이녀냥으로 탁허게 끊어 가지고 피를 뿌려 부렸지. 그거 열너 됐주.

11. 蘇牧使와 高典籍

Tape 2 - 뒤

제보자 ; 양남학 (남·80세) 하례 1리 662번지

조사일자 ; 1987년 8월 4일

조사장소 ; 양남학 할아버지 댁

명도암 선생이라고 호탕헌 사름이 이셨는디, 서울에 과거를 보러 가서 과거장을 써 바치는디, 소목스라는 양반이 과거장을 써 바치는디, ‘소’ 재가 초두(艸) 아래 고기어(魚) 해 놓고 수화(禾)를 해야 되는데(艸) 아래(禾) 해 놓고 魚를 했다 말이며. 자기 성재(字)를 바꿔 썼다 말이며. 명도암 선생이 그것을 보고 “선비, 미안하지마는 ‘소’ 재가 잘못 되지 안 했는가?” 하니, 선비가 다시 보고는 “예, 잘못 났읍니다.” 다시 써 바친 것이 과거에 급제 허엿넌 허여. 명도암선생은 과거를 못허고 소목스는 과거 급제 해 가지고 제주 목사로 들어오게 났단 말이며. 딱 들어오면서 묻기를, “명도암선생이 어디 사느냐?” 하니 “명도암선생은 돌아가셨읍니다.” 그 때가 돌아갈 때다 말이며. “아덜은 있는가?” “예” 그 아들 불러 오라고 해서, “들으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어디에 영장을 허엿느냐?” 하니, “아무 곳에 해수다.” “아무날은 내가 선생님 배례를 갈 터이니 좀 준비허여 주게.” “예.” 무릇 제주도 목스가 배례를 간다고 하니 정성껏 과일도 출리고, 제주(祭酒)도 출리고, 돛자리노 출리고 해서. 그 때가 되어서 가다가, 선친의 묘 혼 3·4 백미터 떨어진 곳 쯤 가다가, “저깁니다.” 하니, “여기에 자리를 펴라.” 자리를 펴니, 그냥 스몹 제배를 허거든. 생각허기를, “아! 이렇게 높은 어른은 멀리서 제배를 허는가.” 했거든. “이 묘는 누가 봤느냐?” “고홍진이가 봐수다.” “그러냐! 팽이로 여길 파라.” 파보니 시체가 나온다 말이며. 그냥 그 자리에서 싸 가지고 그것을 토롱에 놓고, “아무날 내가 땅을 봐 주겠네. 그 때랑 묻으라.” 옛날에는 목스가 순력을 다니는데, 그때 지사들을 다 지금의 토평 지경에 모두 데리고 가서. “여기 영장허기에 좋은

디 좀 보아라!” 그렇게 허고는 목소가 앞으니까, 고흥진이가 딱 목소 앞에
 딱 앉는다 말이며. 고흥진이는 옥에 이셨는다, 그날은 ㄴ짜 데리고 갔다 말
 이며. 여러 지사들은 여기저기 ㄴ리치면서 명당을 본다 말이며. 목소가 고흥
 진보고 “너는 왜 말을 안 허느냐?” 하니, “스또님이 일어서 부러야 보
 겠읍니다.” 그래서 목소가 일어서면서 “보라”고 하니, 스또가 앉았던 곳에
 쇠를 딱 쏘이면서 “여기 험주.” “여기 허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니,
 “청룡이 좋으니까, 주손이 많을 거고, 명당이니 부자가 많이 날 겁니다.” 허
 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허거든. “너 왜 그러면서 선생님은 고생을 시키느냐?”
 “아니고! 말도 마십써. 제가 글 읽을 때에 비온 날도 방안터레 들어오지
 못허게 험디다.” 옛날 아전은 문 밖에서 공부허고, 양반은 방안에 들어강
 했거든. “훈 번도 노시(도무지) 방안에 들어앉지 못허게 험디다. 그 원수
 값아십주.” “그러냐!” 고. 그래서 선생님의 영장을 허라고 해 두고 다시 고흥
 진은 옥에 간험어. 또 제주목소가 꿈을 꾸었는다, 어머니 산소에 불이 나
 뵈다(보인다) 말이며. “해몽을 잘 할 사람이 있느냐?” 하니, 그때 늙은
 사령이 허나 있다가 “저 옥에 있는 흥진이가 해몽을 잘 험니다.”가서 “해
 몽을 허라.” 하니, 고흥진이가 “삼일내로 어영대장 명령이 내려올 것이다.
 또 있지마는 그런 큰 해몽은 훈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다.” 경해연 스또안티
 아뢰니, 진짜 사흘만에 어영대장으로 추대되어 올라가게 됐다 말이며. 이제
 또 해몽을 해 주라하니, “이제 배가 올 테니 여기서 전대를 나가라. 저기서
 발포허거든, 여기서도 응포를 해라. 만일 응포를 안 허민 역적으로 몰린다.”
 하니, 그렇게 허겠다고 해서. 그날 출려서 배를 나가니, 저기서 배가 온다
 말이며. 배가 오다가 총으로 광허게 쏘거든. 여기서도 응포를 했다 말이며.
 그렇게 해 가지고 배가 들어왕 어영대장으로 모성 강거라. 가게 될 때, 제주
 목소가 고흥진안티 “돈 천 냥을 받겠느냐, ㄴ짜 가겠느냐?” 하니, 해몽헌
 값으로 천 냥 주겠다는 거지. “저도 딱라 가겠읍니다. 천 냥 허영 뭐 험니
 까?” “그러면 ㄴ짜 가자.” 그렇게 해 가지고 서울에 올라강 그에게 전적
 벼슬을 줬다는 거라. 그래서 “고전적!” 허는 거지. 지리에 통헌 사름이지.

信 仰

目 次

- | | |
|-----------|----------|
| I. 概觀 | IV. 巫俗信仰 |
| II. 公認宗教 | V. 結語 |
| III. 部落信仰 | |

I. 概 觀

下禮里는 東으로 下禮川을 경계로 新禮2里와 西로는 孝禮川을 경계로 西歸浦市에, 그리고 北으로는 新禮里에 접하고 있는 마을이다. 下禮里는 행정구역상 下禮1里와 2里로 구분하는데, 중산간쪽으로 2里가 있고, 칠오름, 걸쇠오름 밑 바다쪽으로 1里가 있다.

下禮里는 南元邑 소재 부락중 設村歷史가 가장 짧은 部落이기도 한데, 당초 이 마을의 이름은 「가마귀머루(마루)」 또는 「오지리」라 부르다가 高宗 25년인 1905년에 마을 명칭을 下禮里라 했다.

本稿에서는 주로 下禮1里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2里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는 酬祭만 調査하였다. 70년대 이후로 이곳은 감귤 소득으로 전국 최고의 부자마을이 되었으며, 새마을 운동의 영향으로 酬祭 등 남자 중심의 儒式部落祭 및 個人信仰은 사라진 반면 여성 중심의 巫俗信仰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II. 公 認 宗 教

下禮里에는 佛敎 외에는 별다른 公認宗教가 없는 실정인데 佛敎라 할지라도 여전히 巫俗信仰이 강해서 巫·佛混合의 성격을 띠고 있다. 現在 세 곳에 寺刹이 있다.

1. 普陀寺

① 名稱：大韓佛教 太古宗 普陀寺

② 沿革：이 寺刹은 25년 전에 金悠寺라는 이름으로 걸쇠오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水害로 인하여 절이 유실되면서 현재 위치인 망장포로 옮겨왔다. 지금의 普陀寺라는 이름은 12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다.

③ 敎人 現況 및 布敎地域：信徒는 약 100여명으로 下禮里 住民이 대부분이고 위미, 서귀포, 서홍, 남원의 住民들도 있다. 信徒들은 대부분 農業(과수원)에 종사한다.

④ 敎會 現況：이 寺刹에는 信徒會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 1년에 4번 대법회(큰불공)를 여는데 正月 보름, 4월 초파일, 七月 七夕, 동지불공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조석회향을 위해 여름에 한 번, 고훈회향을 위해 1년에 한 번 설달그믐에 법회를 연다.

寺刹은 법회시 올려지는 佛錢으로 運營된다.

⑤ 代表者：오도영 주지 스님과 보살 1명 부전 1명 등이 있다.

⑥ 住民과의 관계：뿌리 깊은 巫俗信仰으로 佛信徒라 할지라도 有事時에는 절보다는 당을 먼저 찾는 편이다. 이러한 現象은 巫·佛의 對立이 아니라 巫·佛融合으로 이해된다.

2. 佛光寺

① 名稱：大韓佛教 曹溪宗 佛光寺

② 沿革 및 敎人 現況：이 寺刹이 생긴지는 9년이 된다. 4년 전에 信徒數는 15~20名이었는데 지금은 100여名에 이른다. 지금의 法堂은 올해 信徒들의 성금으로 新築한 것인데, 옛 법당이 있었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③ 敎會 現況：法會로서는 매달 한 번 信徒法會와 1주 1회의 學生法會가 있다. 절의 運營은 信徒會가 이끌어 간다. 큰 불공으로는 정월 보름, 4월 초파일, 七月 七夕, 成道祭日에 올려지는 것들이 있다. 이 寺刹에서는 동지불공이 크게 행해지지 않는다.

④ 代表者：김정찬 주지 스님

⑤ 布敎地域：신도는 대부분이 下禮里와 新禮里 住民들이고 그외에 서귀포

와 위미리 지역 주민들도 있다. 대부분 과수원 농업을 하며 일부는 漁業에 종사하기도 한다.

⑥ 住民들과의 관계 : 普陀寺와 유사하다.

※ 나머지 한 사찰은 '삼보사'라고 하는데 걸쇠오름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는 上記한 두 寺刹로 끝냈다.

Ⅲ. 部 落 信 仰

正月에 마을의 안녕과 생업의 풍요를 기원하는 마을제인 醺祭는 下禮1리에서는 10년 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인하여 사라지고, 下禮2리는 4·3사건 때 상·하효리, 토평, 신예리로 소개되었다가 복귀하여 온 사람들과 육지부 사람들이 이주해와서 1963년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이 밖에 60년 전에 행해졌던 「祈雨祭」와 오랜 세월 속에 잊혀져간 「香火」가 있었다고 한다.

本稿에서는 下禮1리와 下禮2리 醺祭로 나누어서 기술하고자 한다.

1. 下禮1리 醺祭¹⁾

① 祭名 : 醺祭

② 祭神 : 醺神之靈位

③ 祭日 : 正月 初丁日

④ 祭場 :

가. 名稱 : 포켓단

나. 位置 : 걸쇠오름지경

⑤ 祭儀管理 : 過去에는 警民長이 마을 하인을 시켜 鄉會를 소집하고 祭儀 준비를 했지만 지금은 里長이 주관한다.

가. 회소집 名稱 : 鄉會

나. 參加者 : 各 戶마다 1人(남자가 참석)

다. 회의내용 : 제관 선출 및 제비 결정.

1) 下禮1리 醺祭 내용은 현회순(男·80세) 옹으로부터 제보 받았다.

⑥ 祭費：各 戶마다 좁쌀 1되씩을 수렴한다. 祭에 쓰일 쌀은 깨끗한 집에서 거두어 들인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炊飮都色이 돈으로 바꾸어서 祭物을 마련한다.

⑦ 祭官：

가. 자격：마을의 姓氏別로 안배되도록 하는데 부정타지 않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나. 종류：18祭官, 初獻, 亞獻, 終獻과 이들 중 사고 있으면 대행하는 豫差獻官, 그리고 執禮, 大祝과 이들의 사고나 결혼시때 행하는 都豫差, ‘鞠躬拜’를 부르는 東贊者, ‘興’을 부르는 西贊者, 謁者, 奉香, 奉爐, 司樽, 奠酌, 奉酌, 飮監, 掌牲令, 炊飮都色이 있다.

⑧ 祭物

가. 메류：稻(벼), 梁(조), 黍(기장), 稷(피)

나. 犧牲：돼지 전마리.

다. 幣帛：무명 3~4자. 백지.

라. 果類：栗黃(밤, 굴)

마. 祭酒：玄酒(玄米로 빚은 술)

바. 채소류：菁菹, 芹菹

사. 고기류：魚醢, 鹿醢, 鹿脯

아. 荊塩, 黃燭, 香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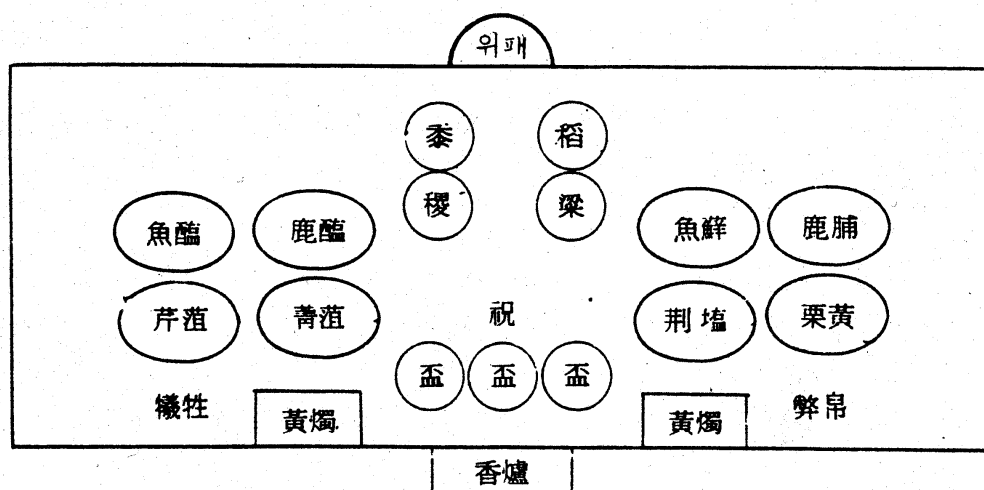
⑨ 祭服：청의, 유건, 제복은 스스로 마련한다.

⑩ 祭器

가. 籩(竹器)：果實, 乾肉 등을 담음.

나. 豆(木器)：菹, 醢 등을 담음.

⑪ 祭物陳設圖



⑫ 笏記

謁者引獻官以下 俱就門外位 謁者引祝及諸執事 入就壇南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詣盥洗位 盥洗 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位 謁者進獻官之左 白有事 謹具請行事 四拜 獻官及在位者四拜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搢笏 盥洗 執笏 引詣神位前 北向跪 搢笏 執事者三上香 獻幣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行獻爵禮 謁者引初獻官 詣樽所 西向立 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搢笏 獻爵 俯伏 興 小退跪 讀祝 祝以進神位之右 東向跪 讀祝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行亞獻禮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搢笏 盥洗 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酌酒 引詣神位前 北向跪 搢笏 獻爵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終獻禮는 亞獻禮와 同一한 절차이므로 생략한다)

飲福受胙 執事者詣樽所 以爵酌醴酒 執事者持俎進 獻神位前 胙肉 謁者引初獻官 降詣飲福位 西向跪 搢笏 執事者北向立 以爵授獻官 獻官受爵 飲卒 以爵授執事者 執事者受虛爵 執事者 北向立 以胙授獻官 獻官受胙以授執事者 執事者受胙 降自東階出門 執笏 俯伏 興 平身 引降復位 四拜 獻官皆四拜 徹籩豆 祝以進徹籩豆 四拜 獻官及在位者 皆四拜 望燎 謁者引初獻官 詣望燎位 西向立 祝以篚取祝板及幣 降自西階置於坎 可燎 謁者進初獻官左 白禮畢 遂引獻官出 謁者引祝及諸執事 俱俯壇南拜位 四拜 祝以下皆四拜 以此出。

⑬ 祝文

維歲次云云 敢昭告于 醺神之靈 赫赫明靈 鎮我一域 局茲歲首 敢乃祈福 有事即吉 有禱即吉 民安物富 莫匪爾極 胡今聖代 間有恠氣 願多明靈 眷顧里德 廓掃妖鬼 清此一落 農不違時 熟我百穀 家家太平 人人安樂 轉災爲祥 保護民物 人享壽福 裕量蠶角 於萬斯年 寧忘厚德 茲擇吉辰 齋休信宿 敢竭微誠 庸薦菲薄 謹以牲幣 醴齊粢盛 庶品式陳 明薦尚饗。

⑭ 祭廳：過去에는 3일 전에 初獻官 집에 입제하였는데 향사가 생긴 후에는 향사로 입제하였다. 다른 마을들과 달리 입제하게 되면 한꺼번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각 집에서 제공한다.

⑮ 飲福：祭가 끝나면 제단 주위에서 음복한다. 그러나 본향당 참배는 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온다.

⑯ 사라진 이유：日帝時代는 거의 하지 않다가 해방후 시작되었으나 1973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 下禮2里 醕祭

① 祭名：醕祭

② 祭神：土地之神 醕神之靈

③ 祭日：正月 丁·亥日

④ 會召集

가. 명칭：醕祭鄉會

나. 회의내용：初獻官 선출

⑤ 祭費：150여 가구가 일정량씩 내는데 이외에 동네 유지들이 다시 따로 부조금이나 술을 낸다.

⑥ 祭官

가. 자격：덕망이 있고 정성을 다하며 경제적 여유도 있는 사람으로 연세는 대개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나. 선출방법：初獻官만 鄉會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祭官은 姓氏別로 里長이 사정을 보아 임명한다.

다. 종류：過去에는 18祭官이나 現在는 11祭官이다. 初獻, 亞獻, 終獻官과 典司官, 執禮, 大祝, 謁者, 贊引, 贊者, 奉香, 奉爐, 奉酌, 奠酌, 酒監, 飯監, 掌性令, 炊飯, 都色에서 典司官, 奠酌, 酒監, 飯監, 掌性令, 炊飯, 都色이 제외된다.

⑦ 祭場：군유림에 있는 포켓단.

⑧ 笏記, 祭物, 陳設圖：하례1리와 거의 흡사하다.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⑨ 祝文

維歲次 己巳 正月 丁亥 朔 拾壹日 初獻官 某某 敢昭告于 醕神之靈 伏以 赫赫明神 鎮我壹域 弭災招祥 莫匪其極 有願感應 非今自昔 謹修郊社 致祭明靈 扇播和氣 屏却災殃 司我壹洞 願蒙嘉祥 康濟此民 無作神羞 俾我老少 永賜伸休 世當己巳 日值中丁 敢竭細誠 謹陳柴望 伏惟明神 降之辟福 瑞感下氓 亨應殷薦 春願齊明 昔疾今愈 無有遭罹 舊殃新消 永終是圖 民之未生 天德何極 物之未盛 地之何博 蠢愚下氓 欽仰神德 特垂蔭隲 永賜天祿 耆老康彊 童稚歡躍 五穀豐登 六畜蕃息 世惡百鬼 乃驅乃逐 都濟蒼生 佑我愚蠢 躋彼壽域 永杜來殃 共受嘉澤 謹以弊醴 齊粢米盛 庶品式陳 明薦尚饗.

⑩ 齋戒：初獻官 집에서 3일 동안 합숙한다. 初獻官 집에서는 1주일 동안 술

설 등을 쫓아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식사 제공도 거의 여기서 이루어진다.

⑪ 飲福：醕祭는 새벽 12시 30분에 시작하는데 끝나서는 初獻官 집에 와서 祭官과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음복한다.

⑫ 本鄉堂 參拜：醕祭를 지내고 나서 그 祭物을 따로 모아두면, 다음날 부녀자들이 이사무소 앞에 있는 어케할망당에 그 祭物을 가지고 가서 고사를 지낸다.

⑬ 醕祭유래：4·3사건이 일어나면서 계속 행해오던 포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후 '4·3복귀주택' 조치로 다시 사람들이 어주해 와서 하례1리와 같이 행해오다가 1964년도에 하례1·2로 분리되면서 하례2리만 독립하여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IV. 巫 俗 信 仰

巫俗信仰의 면에서 볼 때 新禮里와 下禮里는 거의 같은 구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新禮里와 下禮里에 있는 작은 堂들이 孝敦川 부근 '매역밭'에 있는 큰당인 禮村堂(本鄉堂：하르방당)에서 갈라져 나왔고 주민들도 신예리, 하예리 구분없이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禮村堂은 제단 뒤에 神木이라 하는 큰 나무가 있고 그 옆에 神穴이 있다. 워낙 위치가 멀고 험해서 祭日인 1月 8日이나 2月 8日, 3月 13日, 7月을 제외하고는 다니지 않는다.

이 조사에서는 하례리에 있는 明神堂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1. 明神堂

① 位置：하례1리 바닷가. 망장포 부근

② 由來：큰당에서 가지갈라온(分鄉한) 堂으로 큰당에 가는 祭日을 제외하고 일이 있을 때 하례리에 있는 高氏 심방을 빌어 굿을 한다. 큰당까지의 거리가 멀고 험해서 여간해서는 가기가 힘들므로 보통의 작은굿, 비념 등은 여기서 한다.

③ 祭儀執行者：고산옥(女·66세)씨가 심방인데 시아버지적부터 굿을 하는

세습무이다. 이 집안의 入巫過程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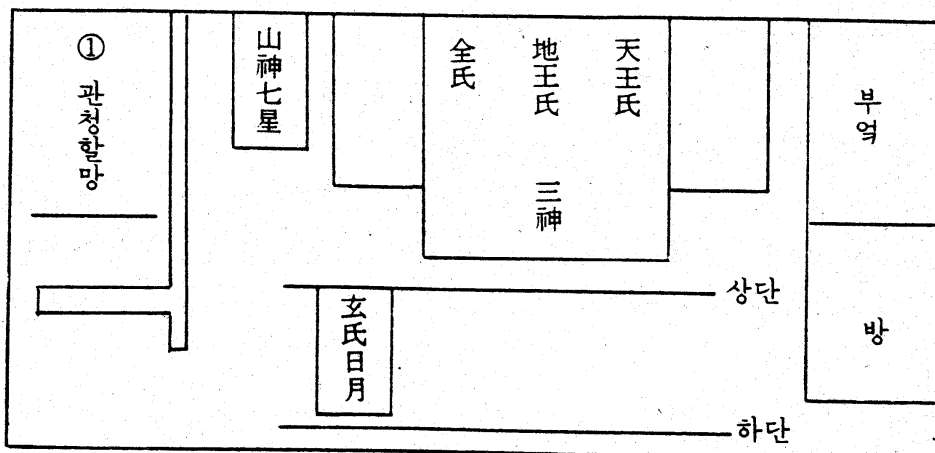
시할아버님이, 시아버지가 세 살 때, 육지로 나가게 된다. 당주 시할머니는 여자 이긴해도 결결하고 좋았다. 같이 갔던 하효 사람들은 돌아오지만, 한 5년 동안 시할아버님은 돌아오지 않게 된다. 그러는 동안 그 동네 어떤 할아버지가 시할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집의 밭도 갈아주고 쇠도 봐주고 하다가 그만 시할머니랑 눈이 맞아 애기가 있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그때 18살 때였는데 아버지를 찾을 결심을 하고 같이 갔던 하효 사람에게 육지 마을 이름을 알아보고 집을 나갔다. 그러나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하효 고씨 심방집에 들어가 버렸다. 거기서 시아버지는 굿을 배우며 지내다가 그집 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서는 신예리로 옮겨와서 살게 되는데 병에 걸려 굿을 하기에 이른다. 이때 쇠동냥을 해서 멩두를 만들었고, 이 멩두로 굿을 시작하였는데 시아버지가 하는 굿은 잘 들었다. 시어머님도 굿을 배워 그때부터 심방질을 하게 되었다.

고 산옥 심방이 사용하는 멩두는 그때 쇠동냥해서 만든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④ 形態: 큰당과는 달리 당집을 짓고 큰당의 세 神人(하로산 백관님, 철오름 변사또, 강남천자국 도원님) 외에 玄氏日月, 山神, 요왕신 등을 모시고 있다.

정면에 세 神人을 모시고, 선반을 만들어 제물을 차릴 수 있도록 하였고 아래는 玄氏日月이란 神明을 붉은 형철에 흰 글씨로 써 모시고 있다. 왼쪽 윗 벽면에는 나무로 神像을 조각하여 山神으로 모시고 있다.

특이한 것은 왼쪽편 칸막이로 된 곳에 '관청할망'을 모시고 있는데 이는 官과 관계있는 입학시험, 공무원 시험, 승진, 출세 등을 비는 곳이다. 이날 행하였던 작은곳에서도 '관청할망'에게까지 제물을 차려 놓았다(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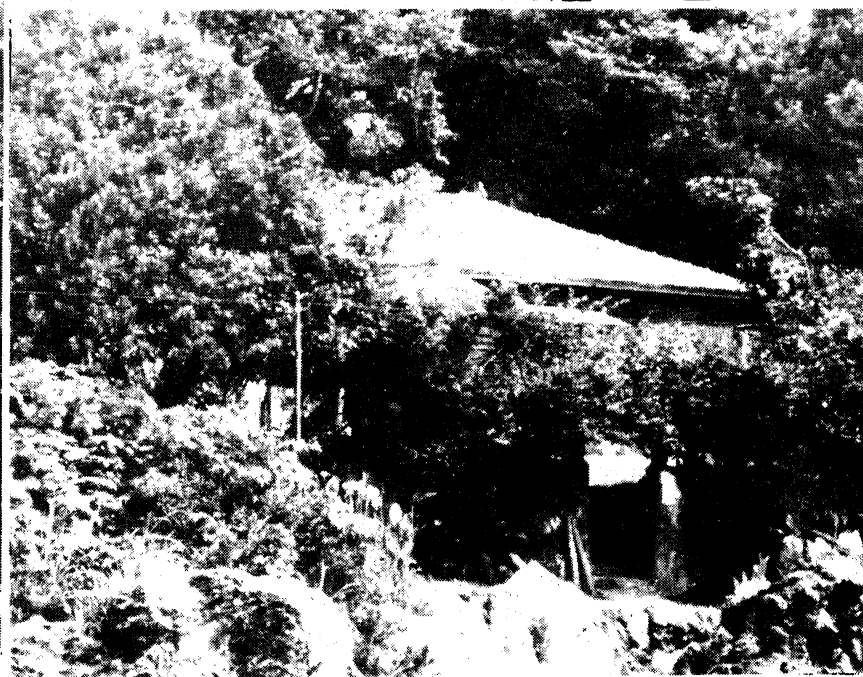


⑤ 본풀이 : 여기서 정리한 본풀이는 玄氏日月 본풀이다.

아바님은 선씨(玄氏)이곡 어머니는 고씨(高氏)니다. 선씨일월 어진 조상은 아홉 오누이 열 오누이 나그네 다 죽당 당으로 오누이가 살았수다. 오라방은 혼 열 다섯 되어지고 누이는 식설이 되어가난 애기 식설인 때부터 태산 몸에 태산 신경 정체가 되영 칠년 한기가 ㅁ물아가당 꼭릿꼭릿 검은 을국 되여집니다. 혼 일곱살 나가난 듣도 앓도 못하여 남제 육세 좇을며 검은 을국 되어 지곡 당오라방은 열설이 넘어가난 열 다섯 스므세가 되어가난 동네에 금강산 부제침이 땡기명 ㅁ쉬 물을 맥여주곡 거념 메어주어그네 메역군랍을 먹읍 디다마는 선씨일월(玄氏日月) 어진 조상은 일곱살 나곡 여제아이 되어가난 진정 죽게 되영 방안 출입 못험디다마는 일곱살이 나가나네 고씨전 책영감을 벗삼아튀ڠ 초요드렛날은 누워시난 북소리가 귀에 정정 나가난 일어나보저 확 일어나난 우들락이 일어납디다. 삼두전 거리에 풀풀하게 기어강 보난 보이는 것은 한복 입은(청취불능) 포교임제 살안 주맹기가 있었구나(청취불능) 아이여, 둘러가 주맹기를 봉강 보난 돈이 으섯 님 슬강하게 나오라집테다. 하도 짓병 엽전이에 차고 와릉와릉 걸어집테다. 굿소리 들으멍 징소리 들으멍 굿밧에 좇아갓구나. 좇앙 강 보난 중궁아기 마장 넘어들멍 군웅만판 놀암시난 춤

◁ 本郷堂 (禮村堂)

▽ 海神堂 (明神堂)



을 강 나을나을 추어가난 김씨 심방 하는 말은 “아고, 선씨 애기야, 너는 어
 뎡 ㅎ난 처대종고 그렇게 춤도 잘 추어점디?” 영 ㅎ민 김씨 심방은 영 ㅎ저
 말저, 주멩기로 돈소리가 술강술강 나가난 “선씨 애기야, 불쌍허다. 어디
 돈이 있어 주멩기에 돈을 노완디?” “난 오당 삼두전 거리에서 보이 구덤한
 소꿉에 영 무더져시난 봉갓수다” 에— “설운 애기 이레 도라. 나가 배려보
 저” 주멩기를 클렁보난 돈이 아니고 육관제비 오섯 님이 들엇구나. 에— 큰
 심방 ㅎ는 말은 “설운 애기야, 이건 돈이 아니여 육관제비여. 이건 봉그민
 침방질을 허나 심방질을 허어사 한다. 오라 나영 강 너 심방질을 배와보민 어
 떠 ㅎ리?” 영 ㅎ난 선씨 애긴 “어서 걸랑 기영 흡서.” 주멩기엔 육관제비 담
 양노양 연공씨, 신공씨, 올려노와 두고 굿을 믈쳐 ㄱ씨 강, 일굽 설에 ㄱ씨 가난
 제비클도 메어 뎡기멍 큰 굿도 ㅎ디 가곡 죽은 굿도 ㅎ디 가곡. 영 ㅎ여건 간
 장 곡술 애 술으멍 똥 술으멍 귀 막앙 삼년, 눈 어둑영 삼년, 말 몰랑 삼년,
 영 ㅎ여건 아홉 설에 심방질을 배웁데다. 배와가든 일굽 설에서 열 설 ㄱ장은
 강 신밤 올려 팔팔하단 철문경 절문경 영 ㅎ영 언제 이 사름 죽넌 ㅎ민 죽곡
 산텐 ㅎ민 살곡, 앓아 천리 ㅎ다가 열 두설 넘어가곡 열 다섯 스므세가 나가
 난 “연반물 치메도 입구저라.” 진홍색 저구리에 연반물 치메 입어 놓고 고침
 이 더그리멍 즈기부모 돌려간 동서남북 심방질을 배웁데다. 큰 굿 가민 성진
 삼승애기 산장지 받아 앓앙 석자리 앓앙 마즈막을 배웁디다. 공싯말씀 배와진
 열 여덟이 나가난 큰 심방이 되어지네. 열 아홉 나난 초신들매를 배웁데다.
 ㅎ룻일은 상구월(上九月) 돌아오랑 초 으드렛날 선씨 조상을 큰 굿을 쫓구나
 안칠성 연막이를 위해 준덴 ㅎ난 뒤집 할망 굿 보래 오라건 “아고, 선씨 애기
 야. 굿은 에— 으망지게 잘 헤염져마는 느네 당오라방 열두 두 동서 거느리
 고 이씨 아전, 박씨 사공 거느리멍 서울 상경 ㅎ려 물(馬) 진상(進上) 나라
 에 물 진상 바찌러 감쥌.” 영 ㅎ으난 “아고, 이게 무슨 말입네까?” 열 두
 실구리 연공씨 신공씨 실어 시겨두곡 군복을 입은 양 돌으멍 돌으멍 표선리
 서 하천리를 돌아강 신물 으의 강 사그네 배고망을 해도 배는 돛구냥 서울강
 못 바리는구나. 어뎡 ㅎ민 제주네강 당오라방 서울갓젠 부탁한 말도 한한 ㅎ디
 불씨 가버렷구나. 올라사저, 올라사저. 물러진 연디가름 연디 올라선 배고망
 을 허영보난 배는 불씨 물마루에 갓구나. “설운 당오라방 ㅎ저 서울강 잘 강
 읍서. 올때 랑 나 나시 궁전공납도 ㅎ영 읍서. 수리천천낙낙도 ㅎ영 읍서. 대대

김도 흥영읍서. 스대김도 흥영읍서. 소리김 산동미주 한량지도 상 읍서. 섭섭
고슴고슴 흥영읍서 진흥색 저구리, 연방물 치메까지 상 읍서.” 흥번 두번 삼
세 번을 일러가난 지금까지 노래가 일어나곡 이부가 느령 배는 삭삭 저서가
난, 대간굿도 어서간다. 지간굿도 어서간다. 배는 폭스락 폭스락 파산(破船)
이 되었구나. 에— “설운 당오라방 죽영 열두 두 동서 거느리고 요왕 명제가
되었는디 나는 살암 무시거 하리.” 귀암을 과명 연디가를 올당보난 알레레 털
어정 수중남매 되어건 초성신이 되었수다. 초성신이 되어도 권당(眷堂)도 웃
고 동서(同孀)도 웃고, 어느 누계 그디 강 죽은 초래 압네까. 표선리 강씨 조
상들 상단골(上丹骨)을 멘 큰 굿을 반당덜 그디도 손지(孫子)들이 다 굿을
먹치곡 소문을 들어도 소문을 들을 수가 업서시난 천지스방 막스방 잇어부러
사누렌 흥난 연흥을 보름 어간이 되난 하천리(下川里) 늘근 노인 이장(里
長)님은 쇠(牛) 츠지레 연디왔디 강 쇠를 츠지레 땡기당 보난 쇠는 못찾곡.
선씨 애기 군복 입은 양 과랴게 연디 아래 떨어정 바짝 몰랑 죽었구나. 에—
불쌍하다 저저군 불러 메어진 염소 감장 올려두곡 천지스방 막스방 단골(丹骨) 덜
이난 애기가 아니난 생각을 홉니까. 선씨일월 어진 조상은 죽어건 제사 때에
백골이 되곡 술이야 썩어서 흑이 되지마는 저승 삼문은 늦게나마 썩을 수가
업습니다. 에— 삼문전은 저승 삼문전으로 높은 동산 낮은 동산 앓앙 울어간
다 울어온다 어딜 가코. 아바님이 우리가 선씨(玄氏)난 선씨 조상으로 상단골
로 불러건, 상단골로 들어가카. 고씨 어머니는 고씨난, 고씨 조상으로 상단골
로 발을 번으카, 높은 동산, 낮은 동산 앓앙 울어간다 울어온다 하단보난, 여
피 펜의 펜안 강씨 조상으로, 쫓이난 커가곡 우리 울막이가 선씨 조상은 아들
이난 커가난, 토지본양 메어진 사둔으로 무어삼고 잔치 5년 대 잔치를 홉디다.
대 잔치를 해가난 이제랑 선씨 조상 아방 펜으로 상단골로 발이 번영 가보저.
가메 부체를 삼문전이 줄끈브트곡 오재비 울막이다(?) 선씨 조상 들어갑데
다. 사각시는 방에를 들어가곡 밥상을 받은 당상 어느 누계 인간이라 구신을
배려칩네까. 선씨일월은 흥근문을 잡아도 어느 누계 감주(甘酒) 혼잔 술 혼
잔 먹으라 주라 아니 홉네다. 그냥, 시집간 시각시 감질을 주니, “아이고 가
슴이여, 아이구 머리여, 아이구 배여.” 삭삭하게 둥그러. 친정 전체가 되영
둥글어 가난 아이구 그 집에선 겁이나곡 어찌면 종곡, 김씨 심방신디 강 “아
이고, 이집이 오늘 시각시가 죽어 감쟁” 흥난 오라그네 밥대신 연월 올려보

난 김씨 심방 하는 말은 “아무 직실에 목숨 댈 일월이 조차 오랏수다. 그 상에 큰굿 흡서.” “어서 걸랑 기영 흡서.” 불근 날에 불근 택일 받아건 큰 굿 하여 정월설비도 하여가난 시각시 심정도 아주 혈색이 종양. 아파난치록도 안하고 영흡데다. “이곳 하여 댈치면 가분뒹맞이 흡센” 한 “가분뒹맞이에 혼건 무시거엔” 한 “가분뒹맞이에 일월은, 큰굿 헨 일월은 혼건 태산까지 올라강 비싼 낭을 베어당 상선(上船)에 중선(中船)에 하선(下船) 배를 지 서와건 열두가지 각서추물 전대뒹기 시겨뒹 칠성 바당 배를 노아사, 선씨일월 어진 조상 뒤를 열두 두 동서 오라방이 돌아지낭 요왕열위(龍王 列位)까지 장 대접을 하여 완전히 병(病)을 조읍니다.” “어서 걸랑 기영하라. 그것싸 어렵느냐.” 비싼 낭을 베어당 상선, 중선 배를 지영, 하늘을 올라사민 초기대장 중천하를 짐씨 조상 배가 부른 우이만각 전대, 독대 전각이 하여 전대구신 다섯 질러건 귀마기 뱃격으로 가건 푸다시 하여건 배를 지성칠성 바당데레 배를 노난, 애기 신병(神病=巫病)은 아주 걸고 심방 하는 말은 “선씨 조상은 상단골로 들어상 조상으로 상을 받으켄 험수다. 우리 적선이나 해 봅서. 우리 적선은 천하 거부(天下巨富)로 잘 살암직 허우다.” “어서 걸랑 기영 흡서.” 그때 시절은 물막은 선씨조상이라도 물막은 뱃이 우염한 되로 죽음에 가문 따라정 혼가지 조상 가난하곡 서난 헤엿당도 어떻게그네 게민 우리 적선을 하니 한 “안칠성광 동서 곁에 댈치 앓앙 고리칠셀 올려그네, 메 하나 두 그릇씩 농곡 썸 하나 농곡, 감 두개 노아건 안칠성 동서 곁으로 제사 때랑 우리적선 하곡. 심방덜 간 때라건 비념이라도 올릴 때랑 안동서, 신공서 먹은척 월광당 일광당 간떡데기, 물떡 셋에 끓어당 농곡 안동서로 혼공일도 빌어시민 알 도리가 이십네다.” “어서 걸랑 기영 흡서.” 경헨 우리적선을 그때부터 하여가난에 물막은뱃 선씨조상은 그 새각시, 새시방도 잘 살암 쓸 혼되 풀아건 뱃 하나 사곡 헛곡직에 풀아거네 뱃 하나 사곡, 쇠(牛) 하나 사곡, 물(馬) 하나 사곡 영 헤가난에 천하거부가, 대부재(大富者)가 되어가난 방상(친척) 마다 “어떠난 영 부재가 되염시냐?” “영 정 험수다.” “그영 하면 우리도 위하저, 우리도 위하저.” 모두 가지가지 송이송이 아들 간디 딸 간디 발이 번곡, 줄이 번곡, 모두 우리적선 하여정 우리 선씨일월 아니 간 되가 없수다. 옛날엔 우리 선씨 조상 덕에 버섯다건 이젠 선씨나 고씨나 아니 간되 업시 팔도강산 외국(外國)까지 다가곡 미국(美國)까지 다 갔수다. 경하여 우

리 이젠 어멍 펜이랑 중단골로 들어사건 상을 받곡 영호여건 신호돈 고침으로 받을 번영 옛날엔 신호 앞동산 고침이엔 호민 범도 새도 못지르멍 부제가 되영 천하거부, 좌수(座首), 훈장(訓長)으로 종아리들 멧게 드랑 살다건 그조 상을 위해 가난 살단 새대(新代) 나가네 우리 고침이도 선씨일월 칩이영, 아 니영 몇 대 몇 대 내려오난 이젠 지네 고침이엔 말도 못해지곡 호영 영급이 좁네다. 수덕호면 한수가 조아지곡 오늘도 明神堂으로 발이 번곡, 줄이 번곡, 신의저 지 앞세왕 시어머니, 고씨 어머니 펜으로 발이 번곡, 줄이 번영 영호 당(堂)도 위호곡 적선공덕을 흠네다. 만민 주한제단 유월 앞세왕 하여리(下禮里)로 발이 번곡, 줄이 번영 어진 조상 안동서, 시동서로 나시순서 난산국 본산국 열(十)이 호나 백(百)이 호나 올렸습니다.

玄氏日月 본풀이가 끝나면 큰당 본풀이, 토산 일뤼당 본풀이를 한다. 큰당 본풀이는 약술된 형태로 나타나고 토산 일뤼당 본풀이는 「濟州島神話」와 비슷 해서 本稿에서는 생략한다.

굿이 끝나고 점심을 먹은 후에 조금씩의 제물들을 따로 추려내서 광목 등에 싸가지고 바닷가로 가서 버린다.

V. 結 語

以上으로 하례리의 여러 信仰形態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우선, 공인종교로서는 불교가 있는데 巫俗信仰과의 혼합 현상은 대립과 갈등이라기 보다는 조화와 융합의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 특별히 불교세가 강한 것이 아닌데도 교회나 성당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이 특이하다.

새마을 사업으로 10여년 전에 사라져 버린 남성 중심의 儒式部落祭는 제관을 지낸 적도 있다는 한 노인의 기억 속에 거의 모든 모습이 담겨 있어 당시 이 酬祭를 중심으로 단결과 협동을 구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구역상 같은 하례리에 속하는 하례2리는 마을 구성원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행해지고 있다.

巫俗信仰은 신예리와 같은 신앙권이다. 여성 중심으로 진행되던 당굿 역시 이제는 자취를 감췄지만, 개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당제(堂祭)를 올린다. '큰당'인 禮村堂은 역사가 오랜 당으로 인근 부락 주민들까지 같이 섬기는

당이다. 하례리의 明神堂이나 신예리의 다른 당들도 모두 禮村堂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당들이다. 이 조사에서는 큰당에 대한 조사가 거의 못 이루어졌는데,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明神堂에서의 굿은, 고산옥 심방의 도움으로 차린 제물은 적었는데도 약 3시간 동안 굿을 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生業과 관계된 신앙으로 선왕을 모시고 있었다. 상자를 짜서, 이물간방(물이 안들고 깨끗한 곳)에 삼물색 형짚 등을 안에 넣어 모셨다고 한다. 이 선왕 역시 再調査의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하례리에서도 다른 마을들과 같이 여러 신앙의 형태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락신앙은 이미 10여년 전에 사라져 한 노인의 기억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고, 무속신앙 역시 문화와 교육 수준의 향상으로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 조상들의 정신 생활의 일면이자 삶의 일부분이었던 이러한 신앙 형태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보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이번 조사에서 모자랐거나 누락된 부분들은 再調査로 보충되길 바라면서 끝을 맺는다.